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방안

Implementation Plan
for Youth Policy in Guri City

유정균 외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권 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황선아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22-11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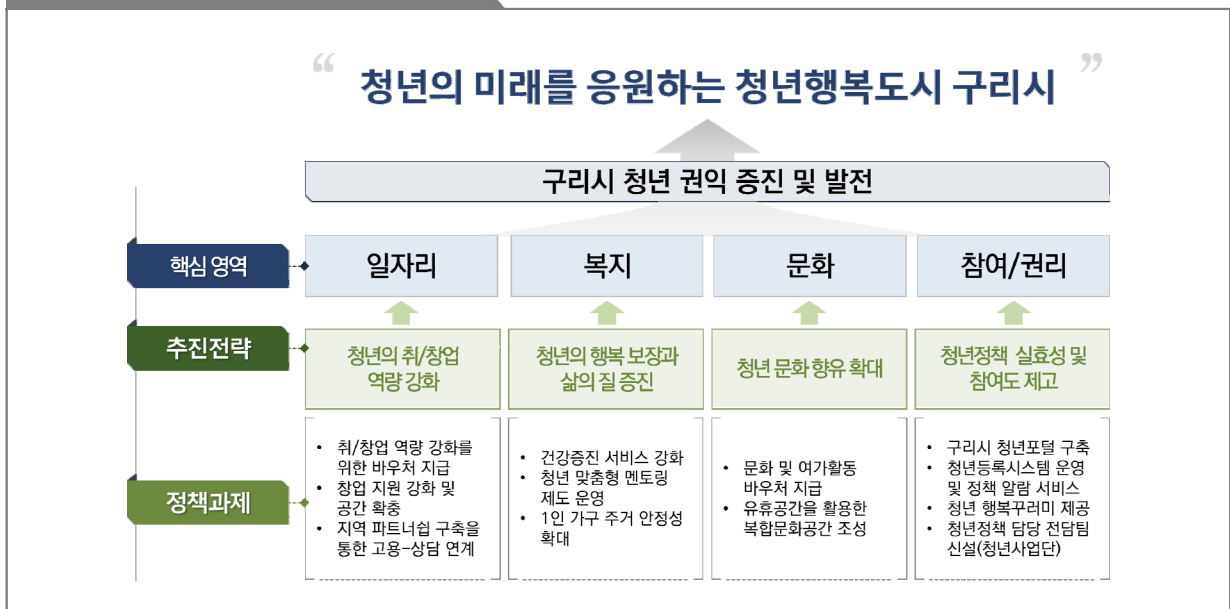
인	쇄	2022년 5월
발	행	2022년 5월
발	행	인 송 미 영
발	행	처 경기연구원
주	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	페이지	www.gri.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2
I S B N 979-11-6853-064-5 93330

- 구리시 청년정책 비전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행복도시 구리시’의 달성을 위해 구리시 청년의 특성 분석과 구리시 청년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 영역별 4개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안

[그림 1] 구리시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 추진전략 1 : (일자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정책과제 1.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 정책과제 2. 청년 멘티와 창업 멘토를 연결시켜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
- 정책과제 3. 구리시 청년이 관내 다양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용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 추진전략 2 : (복지)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 정책과제 1. 신체적 건강증진 사업, 심리적 건강증진 사업, 건강 관련 교육 사업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 정책과제 2.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멘토를 섭외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동일한 목표와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주제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정책과제 3. 청년들의 거주 여건 실태를 파악하여 수준 미달의 주거지에 안심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사 준비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이사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 3 : (문화) 청년 문화 향유 확대

- 정책과제 1. 청년에게 바우처 형태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원하고, 바우처 사용처에 관내 청년 예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청년예술인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과제 2. 기존 청년 관련 공간 또는 관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조성

■ 추진전략 4 : (참여/권리)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 정책과제 1. 구리시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리시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 신문고(가칭)’ 구축
- 정책과제 2.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심 정책 분야를 설정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DB에 등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맞는 정책 정보를 문자 및 메일로 전송하는 정책 알람서비스 제공
- 정책과제 3. 만 19~39세 청년 중 청년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복꾸러미를 신청한 청년에 청년정책 안내 자료 및 유형별 생활물품으로 구성된 키트 제공
- 정책과제 4.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인 ‘청년사업단’을 신설 제안

■ 정책과제는 자원 상황 및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적용 필요

- 중요도, 시급성, 차별성, 파급 효과 등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12개 정책과제 중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1인 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집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 청년사업단 신설과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축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필요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등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

■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역 내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청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구성된 단체나 활동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시민단체의 청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

■ 청년정책과 관련된 지표 측정 및 성과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 필요

- 지표화가 가능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성과지표는 청년의 수요와 욕구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청년정책은 개별적 운영보다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Contents

▶ 정책건의 / 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 7

1. 국내 청년정책	9
1) 중앙정부	9
2) 지방자치단체	15
2. 해외 청년정책	37
1) 국제기구	37
2) 유럽	41
3) 아시아	49
3. 시사점	54

제3장 구리시 환경 및 특성 분석 / 57

1. 구리시 일반 현황	59
1) 일반 현황	59
2) 구리시 인구 현황	62
2. 구리시 청년 현황 및 특성	68
1) 구리시 청년 인구 현황	68
2) 구리시 청년의 삶의 질	74
3.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	78
4. 시사점	80

Contents

제4장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 83

1. 조사 개요	85
2. 실태조사 분석	87
1) 응답자 현황	87
2) 가족	88
3) 고용 및 일자리	92
4) 가계 및 경제	102
5) 주거 및 교통	105
6) 문화와 여가	110
7)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	115
8) 주관적 웰빙	119
9) 정책 체감도	126
10) 청년 공간	131
11) 역량	133
3. 시사점	137
1) 구리시에 바라는 점	137
2) 핵심 영역별 시사점	138

제5장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 141

1. 기본방향	143
2. 추진전략 및 과제	145
1) 추진전략 1 : (일자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145
2) 추진전략 2 : (복지)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148
3) 추진전략 3 : (문화) 청년 문화 향유 확대	152
4) 추진전략 4 : (참여/권리)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155

Contents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3

- 1. 결론 165
- 2. 정책 제언 170

➤ 참고문헌 / 173

➤ Abstract / 177

➤ 부록 / 179

표차례

〈표 1-1〉 연구의 범위	4
〈표 2-1〉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의 삶 관련 주요 정책 개요	10
〈표 2-2〉 청년정책 관련 주요 법령	11
〈표 2-3〉 분야별 과제 및 예산 비중	13
〈표 2-4〉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14
〈표 2-5〉 서울청년센터 오랑 주요사업	16
〈표 2-6〉 2021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17
〈표 2-7〉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주요 내용	18
〈표 2-8〉 경기도기숙사 개요	19
〈표 2-9〉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개요	19
〈표 2-1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청년 발굴 방향	21
〈표 2-11〉 부산 청년문화 인프라·공간 개요	23
〈표 2-12〉 2022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6기 모집개요	25
〈표 2-13〉 청년다락 조성 현황	26
〈표 2-14〉 수원시 청년 공간 주요 내용	31
〈표 2-15〉 ‘청년오피스’ 주요 내용	32
〈표 2-16〉 ‘범계역 청년출구’ 주요 내용	33
〈표 2-17〉 ‘청년아지트 나와유’ 현황	35
〈표 2-18〉 ‘청년 2030 전략’ 우선 과제	38
〈표 2-19〉 청년전략 2010~2018 8개 분야	39
〈표 2-20〉 청년전략 2019~2027 핵심 행동 영역	39
〈표 2-21〉 ‘강화된 청년보장’ 회원국 권고사항	40
〈표 2-22〉 ‘5-3-1 캠페인’ 활동	43
〈표 2-23〉 청년보장 플러스 6개 축 주요 내용	44
〈표 2-24〉 유스 yell(youth yell) 인정기업 지원 혜택	52

표차례

〈표 3-1〉 구리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2019년)	61
〈표 3-2〉 구리시 세대 및 인구 현황	62
〈표 3-3〉 구리시 연령대별 인구 변화	64
〈표 3-4〉 연령대별 인구 비중 비교	65
〈표 3-5〉 구리시 동별 인구 현황	67
〈표 3-6〉 구리시 지역별 청년 인구 분포	68
〈표 3-7〉 구리시 지역별 청년 인구 이동 변화 추이	71
〈표 3-8〉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	79
〈표 4-1〉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개요	85
〈표 4-2〉 조사 내용 및 문항	86
〈표 4-3〉 응답자 기본 특성	87
〈표 4-4〉 결혼에 대한 가치관	89
〈표 4-5〉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90
〈표 4-6〉 확대 시급한 출산 및 육아 대책	91
〈표 4-7〉 경제활동 여부	92
〈표 4-8〉 구직활동 여부	93
〈표 4-9〉 업무와 전공 일치도	94
〈표 4-10〉 현재 직장 만족도	95
〈표 4-11〉 희망 기업 유형	96
〈표 4-12〉 희망 근로 형태	97
〈표 4-13〉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98
〈표 4-14〉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99
〈표 4-15〉 창업 고려하는 이유	100
〈표 4-16〉 구리시 창업 지원 내용 인지도	101
〈표 4-17〉 필요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102
〈표 4-18〉 월소득액	103
〈표 4-19〉 부채 유무	104

표차례

〈표 4-20〉 경제 관련 필요 정책	105
〈표 4-21〉 주거비 마련 방법	106
〈표 4-2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107
〈표 4-23〉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08
〈표 4-24〉 주거 관련 필요 정책	109
〈표 4-25〉 월 평균 통근/통학 교통비	110
〈표 4-26〉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도	111
〈표 4-27〉 문화활동 향유 지역	112
〈표 4-28〉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13
〈표 4-29〉 문화 관련 필요 정책	114
〈표 4-30〉 사회활동 참여 여부	116
〈표 4-31〉 경제적 도움 여부	116
〈표 4-32〉 신체적 도움 여부	117
〈표 4-33〉 구리시 거주 의향	118
〈표 4-34〉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119
〈표 4-35〉 일상생활 스트레스	120
〈표 4-36〉 지난 1주일 우울 정도	121
〈표 4-37〉 전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상관관계	122
〈표 4-38〉 지난 1주일 행복 정도	123
〈표 4-39〉 현재 가장 큰 고민	124
〈표 4-40〉 상담 필요한 주제	124
〈표 4-41〉 삶의 질 영향 요인(1순위+2순위)	125
〈표 4-42〉 청년 대상 판별 기준	127
〈표 4-43〉 청년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	128
〈표 4-44〉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128
〈표 4-45〉 선호하는 청년정책(1순위+2순위)	130
〈표 4-46〉 청년 공간 비이용 이유	131
〈표 4-47〉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	132

표차례

〈표 4-48〉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133
〈표 4-49〉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134
〈표 4-50〉 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134
〈표 4-51〉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1순위+2순위)	135
〈표 4-52〉 자기 개발 투자 못하는 이유	136
〈표 4-53〉 구리시에 바라는 점 및 건의 사항	137
〈표 4-54〉 일자리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138
〈표 4-55〉 복지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139
〈표 4-56〉 문화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139
〈표 4-57〉 참여/관리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140
〈표 6-1〉 정책과제 우선순위	170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5
[그림 1-2] 연구 흐름 및 구성	6
[그림 2-1]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12
[그림 2-2] 서울형 청년자율예산제 추진과정	16
[그림 2-3]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약계층 청년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20
[그림 2-4] 광명시 청년동 사업 소개	29
[그림 2-5]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처리절차	33
[그림 2-6] 청년 정책구매 플랫폼 '청년정책마켓' 추진과정	35
[그림 2-7] 아산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36
[그림 2-8]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47
[그림 2-9] 잡 카드(Job card) 활용 예	53
[그림 3-1] 구리시 위치	59
[그림 3-2] 경기도 시·군별 GRDP(2019년)	60
[그림 3-3] 경기도와 구리시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60
[그림 3-4] 구리시 인구피라미드 변화	63
[그림 3-5] 구리시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65
[그림 3-6]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66
[그림 3-7] 구리시 연령대별 청년 인구 수 변화	69
[그림 3-8] 구리시 연령대별 청년 인구 비중 변화	70
[그림 3-9] 구리시 청년 인구 이동 추이	71
[그림 3-10] 초혼연령 및 출산율 변화	72
[그림 3-11] 구리시 청년 인구 추계	73
[그림 3-12] 구리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74
[그림 3-13] 구리시 청년 일자리 만족도	75
[그림 3-14] 구리시 청년의 정책/행정에 대한 평가	76
[그림 3-15] 구리시 청년의 만족도	77

그림차례

[그림 4-1] 결혼/출산 가치관에 따른 출산 및 육아 대책	92
[그림 4-2] 부채 발생 이유	104
[그림 4-3] 학교 또는 직장 위치	110
[그림 4-4] 구리에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12
[그림 4-5] 사회활동 종류별 참여	115
[그림 4-6] 독립여부 및 가구형태에 따른 건강상태	120
[그림 4-7] 영역별 만족도	122
[그림 4-8] 삶의 질 영향 요인(1순위+2순위)	125
[그림 4-9] 구리시 청년정책 인지도	126
[그림 4-10] 선호하는 청년정책(1순위+2순위)	129
[그림 5-1] 구리시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144
[그림 5-2] 서울청년포털	156
[그림 5-3] 경기청년포털	157
[그림 5-4] 안양청년광장	157
[그림 5-5] 제주 <청년DB> 관련 기사	159
[그림 5-6] 청년 행복박스 및 웰컴박스 예시	160
[그림 5-7] 청년사업단 신설 예상 조직도	161
[그림 6-1]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 전략	168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구리시 청년(만 19~39세) 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구리시 전체 인구 중 27.7%를 차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청년층 현실을 이해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구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층 인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구리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
 - 구리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 만족도가 낮은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의 방향성 마련
- 지역문화·환경 및 계층/경제 수준별 여가·복지 현황과 다양한 유형의 청년 욕구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발굴·추진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리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지역의 청년 현실을 이해하고,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유용성을 토대로 청년정책 추진 방향 제시와 지역 특화된 정책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구리시 전 지역
- 기준연도 : 2021~2022년

■ 내용적 범위

- 구리시 특성 검토 : 구리시 현황 및 차별적 특성 파악
- 국내·외 청년정책 분석 : 국내외 청년정책 추진 여건 및 사례분석
-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 구리시 청년 현황 분석,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수행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 구리시 전역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1~2022년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시 특성 검토 : 구리시 현황 및 차별적 특성 파악 • 국내·외 청년정책 분석 : 국내외 청년정책 추진 여건 및 사례 분석 •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 구리시 청년 현황 분석,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수행 •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 청년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방향 제안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 청년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방향 제안
 - 국내외 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도출
 - 구리시 청년 일반 현황 분석을 통한 차별적 특성 파악
 - 실태조사를 통한 구리시 청년 특성 및 정책 수요 파악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2) 연구의 방법

■ 통계분석

- 구리시 청년 관련 기초통계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정책의 의의 및 한계 평가를 통한 정책 방향 도출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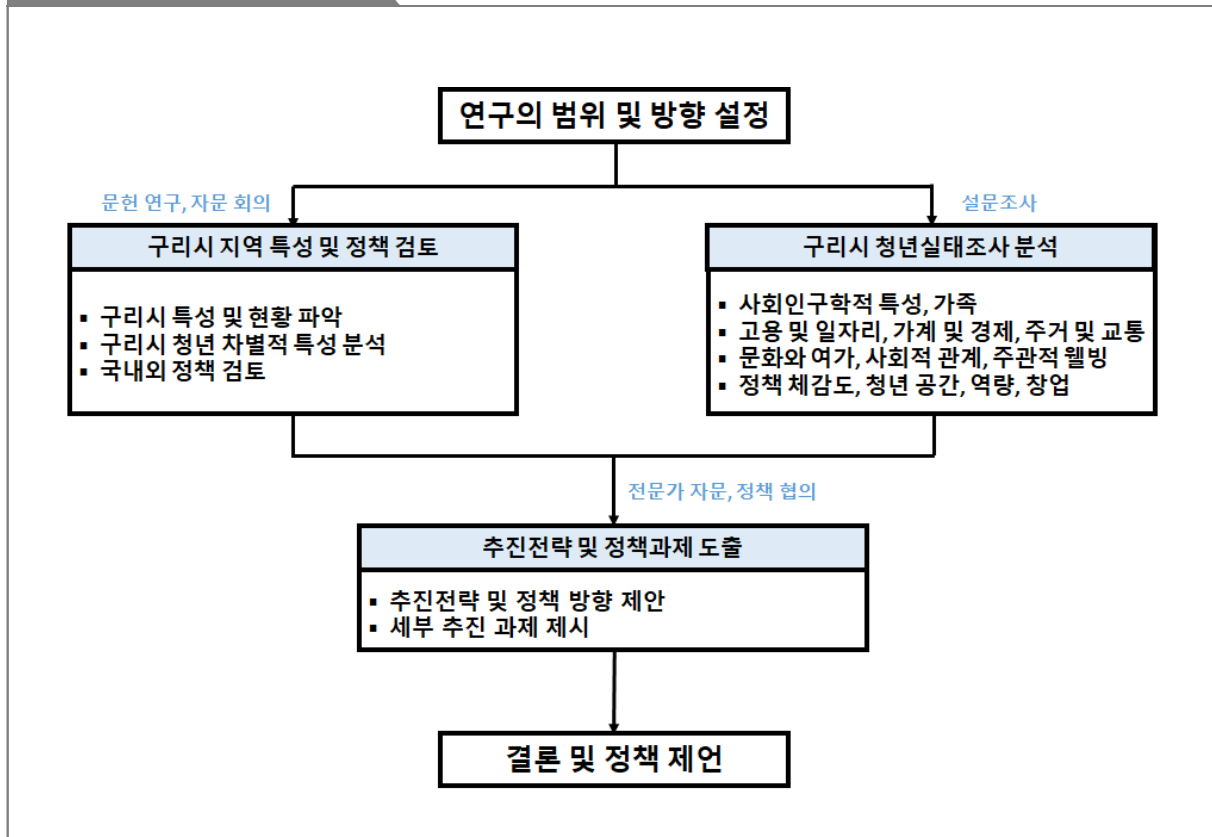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

■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 수요 발굴
- 구리시 지역 청년센터 및 유관 기관 종사자 인터뷰 및 자문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 방향 제안

[그림 1-2] 연구 흐름 및 구성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제 2 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1. 국내 청년정책
2. 해외 청년정책
3. 시사점

제2장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1. 국내 청년정책

1) 중앙정부

(1) 청년정책 흐름

■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년실업 대책 위주의 정책 추진

■ 역대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대책 위주의 청년정책 추진

- 김대중 정부에서 청년실업 관련 이슈가 제시되며 실업 대책 정책 대상으로 '청년'이 포함되었으나 주요 대상은 아니었음
 -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중장년층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업 대책을 발표, 그중 취업 취약계층 대상 대책으로 청소년(15~24세)의 미취업을 다룸
-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2004.3)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발표
 -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 미스매칭, 대학의 현장 적합성 부족, ▲노동 수요 측면에서 해외 취업, 공공부문 일자리, ▲노동 인프라 측면에서 진로지원, 정보제공 등을 제시한 종합적 대책임
- 이명박 정부는 장기화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2009.10)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
 - 고용률 70%를 목표로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화 고용제, 중소기업 취업 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박근혜 정부는 청년 고용률 제고 정책 기조 지속
 -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으로 '해외취업지원(K-Move)',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대기업·정규직 경직성

문제 및 근로 처우개선 등 정책 제시

- 문재인 정부는 초기 청년실업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층 실업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교육·복지정책을 병행
 - 일자리 중심 청년대책으로 '청년 일자리대책(2018.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2019.7)', '직업제고 취업 활성화 방안(2020.5)' 등 추진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중소기업 클린업, 고용증대 세제 신설 등의 취업 관련 정책과 청년주거 관련 대출 지원 강화, 공적 주택공급 확대 등의 주거 관련 정책, 청년저축계좌 신설, 햇살론 유스 재출시 등 복지 정책 등을 추진함

〈표 2-1〉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의 삶 관련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청년의 삶 개선방안 (1차, 2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제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정책화 → 5개 분야 34개 과제 도출 • 5개 분야 :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생활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청년의 삶 개선방안 (2차, 20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43개 과제 도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2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필요, 향후 5년간 정부 및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비전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에 따른 5개 분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 제시 • 5개 분야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의 삶 개선방안 (2차, 20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43개 과제 도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32개)와 광역·기초 전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립 • 총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1,500여 개 과제 도출 (중앙정부) 308개 정책, 약 23.8조 원 투입 (지자체) 1,258개 사업, 약 3.2조 원(순 시·도 예산 2.2조 원) 투입
청년특별대책 (20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고용, 교육·주거비 부담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 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 도출 • 3대 추진 방향 :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20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4개 분야 ① 채용과정,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②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③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④ 취약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로 제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32개)이 합동으로 총 24.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376개 과제 추진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3.26.).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9.18.).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 합동(2021.3.30.).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21.8.26.). “청년특별대책”.; 관계부처 합동(2021.11.30.).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활용하여 재구성.

주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2021.12)’ 등의 일자리 중심 정책은 제시하지 않음

■ 일자리 위주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범위 확대

- 「청년기본법」 제정(2020.3) 이후 청년의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 확대 추진
 -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 관련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청년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청년정책을 체계화하여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제시 및 추진

(2) 청년정책 관련 추진 기반

■ 청년정책 관련 주요 법령 현황

- 각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표 2-2〉 청년정책 관련 주요 법령

부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국조실	「청년기본법」	• 청년 연령(19~34세), 국가지자체 책무, 청년의 권리책임 등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 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 등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등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중기부	「중소기업창업법」	• 창업사관학교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등
과기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W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마련
국방부	「병역법」	• 병사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근거 마련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지구·조성 및 공급·관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교육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부	「후계청년농업인법」	• 청년 농업인 기준, 우대, 고용지원 규정 등 마련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청년 포함, 우울증 검사주기 개선
외교부	「여권법」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4).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p.8.

■ 추진체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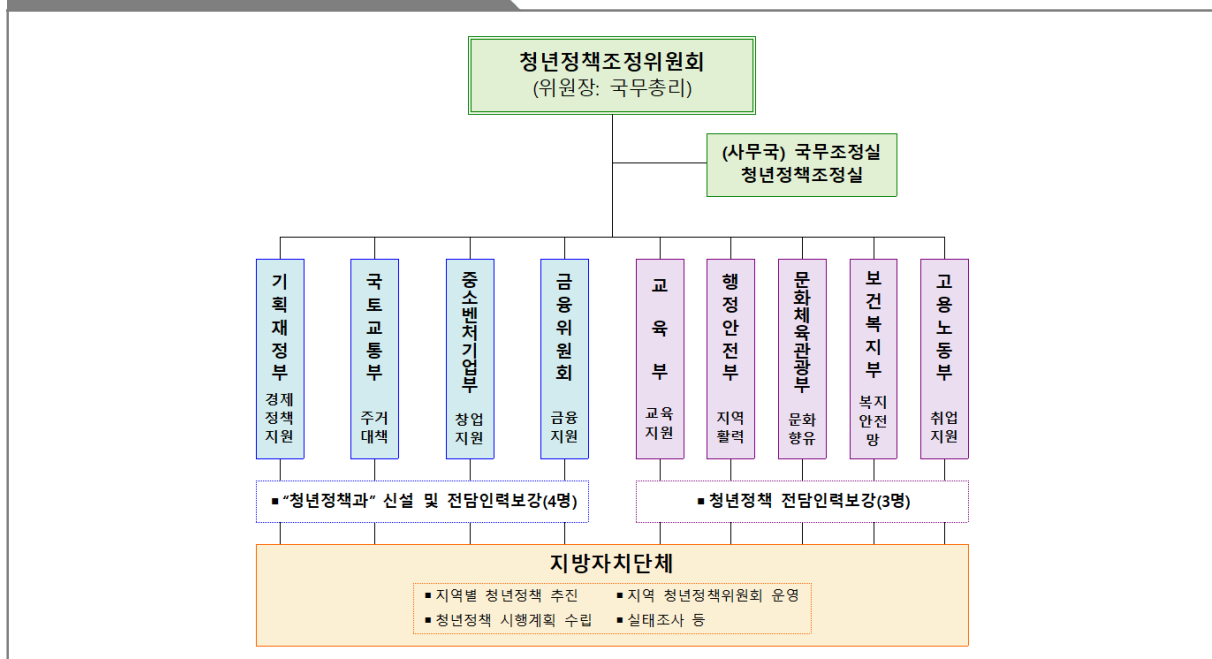
■ 청년정책조정실

-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 총괄 조직 ‘청년정책추진단’ 신설(2019.7)
-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실’ 신설(2021.6.15), 기구 및 인력 보강으로 규모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2020.9.18)
 -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20명, 부위원장과 청년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 청년정책 이슈 수시 대응을 위하여 부처별로 정책 조정을 위한 다양한 기제 활용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금융위 청년특별위원회 등 기제 활용

[그림 2-1]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자료 : “청년정책조정위 중심으로 청년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기구·인력 보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9.1.).

1) 관계부처 합동(2021.4).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p.10.

■ 청년정책책임관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총 44개 부처(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고용부 등) 국장급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2019.9~)

(3)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²⁾

■ 2022년 정책 여건

-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코로나19,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속화, 새로운 청년정책 수요 등 복합 과제에 직면
-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전환기 청년역량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충, 증가하는 정책 수요 대응 필요성 증가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정책 사각지대 감소, 분야별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 및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08개 과제) 따른 과제 확대·구체화, 청년특별대책 등 청년정책 집대성 도모
 - 32개 중앙행정기관 총 376개 과제, 약 24.6조 원 투입하여 2021년 과제 수(308개), 예산(23.8조 원) 대비 증가
 - 과제 수 기준으로선 일자리 분야, 예산 기준은 주거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3〉 분야별 과제 및 예산 비중

구분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주거
과제(%)	39.3	28.5	14.4	10.6	7.2
예산(%)	31.4	27.4	5.0	0.4	35.8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p.11.

2)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요약·제시함.

〈표 2-4〉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구분	과제 수(개)	예산(억 원)		비중(%)
		2021년	2022년	
I. 일자리	148	82,197	77,496	31.4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70	63,490	56,58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56	12,052	12,428	
3. 일터 안전망 강화	10	26	176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12	6,630	8,312	
II. 주 거	27	87,039	88,380	35.8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9	50,970	53,0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7	28,929	35,080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5	7,125	-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15	231	
III. 교 육	107	56,793	67,523	27.4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43,907	46,468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59	6,041	13,927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6,422	6,78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423	346	
IV. 복지·문화	54	11,623	12,219	5.0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7	752	3,616	
2. 청년 건강 증진	8	6,057	2,689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360	813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5	4,454	5,100	
V. 참여·권리	40	685	874	0.4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9	11	9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3	12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9	160	139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8	511	71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2.14.).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p.11.

■ 향후 계획

- 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에 따른 기존 과제 보완,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실적 평가 및 차년도 시행계획에 결과를 반영하는 등을 통해 실행력 담보 도모
- 신규 과제 발굴 시 2023년 시행계획, 하반기 종합대책, 계기별 청년대책 등에 포함·추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필요 사항 점검·개선으로 이행력 강화
- 온·오프라인 참여 기반 확장을 통한 청년참여 확대 및 소통·홍보 강화
 - 청년정책에 청년 목소리 직접 반영, 다양한 매체(카드뉴스, SNS 등)를 활용한 적극 홍보 도모

2) 지방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

① 서울

■ 참여·권리

- 서울형 청년자율예산제
 - 시정 전반에 과소 대표되고 있는 청년의 참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필요성과 서울형 거버넌스의 권한 강화를 통한 보다 효능감 있는 청년참여 구현을 위하여 기획·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를 근거로 함
 - 시정제안형과 자치구제안형으로 구분되며 2019년 31개 사업/280억 원, 2020년 18개 사업/264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 사업 추진
 - 시정제안형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 편성
 - 자치구제안형은 참여자치구별 5억 원의 예산을 자치구 단위의 개방적인 공론장을 통한 숙의과정을 통해 편성³⁾

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youthnet/content/NET020-02>" (2022.2.10. 검색).

[그림 2-2] 서울형 청년자율예산제 추진과정



자료 : “지역별 청년정책 우수사례-서울형 청년자율예산 운영”, 2021년 제2회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 서울청년센터 ‘오랑’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청년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 9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기준 10개소 운영 중
 - 2020년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9개소, 2021년 광진구 1개소로 총 10개소 운영 중
- 각 센터별로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6명의 청년지원매니저가 상주하며 종합상담 및 후속 확인, 지역 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관 등 사업 운영

〈표 2-5〉 서울청년센터 오랑 주요사업

구분	주요 내용
종합상담 및 후속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복합적인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면 상담을 위한 공간(종합상담실)과 비대면 소통을 위한 채널(전화, 문자, 메신저 등) 운영 • 종합상담 후 정보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확인 진행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에 분산된 다양한 청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오랑멤버십 가입(회원가입)시 청년지원매니저가 큐레이션 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 가능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 • 새로운 관계 맺기 기회를 통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룹 형성, 지역 내 다양한 인적·사회적 자원과 연결되도록 지원

자료 : 서울청년센터 오랑(2020). 『서울청년센터 오랑 안내서』 ; 서울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orang/>” (2022.2.23. 검색)를 참고하여 재구성.

■ 교육

■ 청년인생설계학교

- 청년이 나답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 여러 분야 전문가 등과의 만남과 새로운 도전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 등을 무료로 지원
- 2017년 청년 당사자가 제안하여 시작, 2020년 기준 총 646명의 청년 지원(2,183명 신청)
- 청년들의 자기 발견, 일과 삶의 조화, 삶의 도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베이직’, ‘워크앤라이프’, ‘프로젝트’ 3가지 코스로 구분되어 운영

〈표 2-6〉 2021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베이직	• 주제 강연, 진로 탐색 워크숍, 또래 그룹 커뮤니티와 각종 정보·체험프로그램 등 주도적 인생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
워크앤라이프	• 멘토와 함께 하는 소모임 활동, 원데이 클래스 등 일과 삶의 조화를 고민하는 그룹 활동 제공
프로젝트	• 프로젝트 수행 활동비 및 전문가 멘토링 등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율 활동 지원

자료 : “지역별 청년정책 우수사례-청년 인생설계학교”, 2021년 제2회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life_desi_sch_intro"](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life_desi_sch_intro) (2022.2.23. 검색)를 참고하여 재구성.

② 경기

■ 일자리

■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사업

-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매칭 지원
 - 6개 분야(기계, 전기·전자, IT, 사무, 영업, 마케팅)⁴⁾ 관련하여 청년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선(先) 발굴하고, 채용을 전제로 청년구직자를 선발하여 배치
- 수습 기간(3개월)에 대하여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 사측 부담금 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참여자 직장 적응 컨설팅, 참여자 근무 전 사전 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엑셀 교육 등), 정규직 전환 참여자 대상 사후관리 등 진행

4) 2022년에는 ‘품질관리’가 추가되어 총 7개 채용 분야가 제시됨.

- 2021년 53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청년에 72개의 일자리를 제공, 1차 참여 청년(30명)의 77%(23명)가 정규직으로 전환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및 신규 청년 근로자 유입 유도를 위하여 재직 청년노동자 임금 보전, 복리후생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임금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연금’ 등
- 2020년 기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⁵⁾은 89.3%

〈표 2-7〉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재직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내용 : 2년간 총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재직자, 중소·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내용 : 연 120만 원을 분기마다 재직 여부 확인 후 포인트 형태로 지급
청년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연금 가입), 건강 보험료 78,000원 이하(3개월 평균)인 근무자 • 지원내용 : 개인별 매칭 금액 지원(금액에 따라 월 10, 20, 30만 원/10년)하여 장기근속(10년) 시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 원의 자산형성 지원

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2022.2.25. 검색). ; 경기도일자리재단(2021). “2021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 경기도(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 : 청년 연금은 2021년에 시작한 10년 장기사업으로 2022년 현재 신규 선발 계획 없음.

II 주거

■ 경기도 공공기숙사 ‘경기도기숙사’

- 경기도 대학생(재학생),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청년을 대상 공공기숙사 운영(2017년 9월 개관)
- 단순 거주 공간이 아닌 청년주거공동체로 취업과 창업,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조식, 석식 등의 입사 생활과 공동생활 필수교육, 취업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5)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 인원/선정 인원) × 100, 고용유지 인원(명) = 선정 인원 - 자발적 퇴사 인원 구성

- 개관 이후 동아리(자율방범대원, 서둔마을 청년탐사대 등), 입사생 협동조합 등 소규모 자치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10월, 입사생 전원이 참여하는 ‘입사생자치회’ 출범
- 총 정원은 278명으로 2022년도 입사생 선발에 419명이 지원하여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준에 따라 대학생 209명과 청년 65명 선발

〈표 2-8〉 경기도기숙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면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서둔동 92-6) / 부지 16,660㎡, 연면적 5,890.98㎡
주요시설	• 기숙사동 96실(3인실 91개, 1인실 5개(장애인 전용)) •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세탁실, 식당, 숲속 수목원, 카페 등 부대시설
비용	• 3인 1실, 보증금(연) 20만 원, 입사부담금(월) 20만 원

자료 :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 “<http://www.ggdorm.or.kr/>” (2022.3.9. 검색).

■ 참여·권리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 청년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있는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단체의 공동체 활동 지원

〈표 2-9〉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2021년	• 청년공동체 30개소 이상, 각 공동체별 5백만 원 이내로 1인 가구·다문화가정 지원, 각종 청년 사회·문화·예술 활동 등 ‘공동체 활동’, 포럼, 워크숍, 연구조사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22년	• 청년공동체 20개 팀 대상, 활동, 네트워크, 홍보 3개 분야 지원 • 활동 : 8백만 원 이내 과업수행비 지원 • 네트워크 : 청년 공동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행사, 성과 공유회 등 지원 • 홍보 : 온라인 홍보 활동을 위한 SNS 홍보 채널 운영,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자료 :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참여팀 모집 공고”, 경기도 공고(2022.1). ;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 경기도 공고(2020.12).

③ 인천

■ 일자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지원사업 후속 및 연계 지원
 -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인센티브(응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사업 후속 및 연계 지원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취업 시) 등과 연계 지원

[그림 2-3]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약계층 청년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발굴 및 신청접수 or 상담시 청년별 유형분류	유형별분류	진로탐색유형	사회참여유형	구직활동유형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청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종료 청년 등	심리, 경제 적 문제를 겪는 청년,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 청년, 코로나 불무를 겪는 청년 등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한 청년 니트청년, 장기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 청년 등
		[공통 프로그램] 청년마음진단 멘토링, 취준진담, 인천청년캠프, 습관개선 프로젝트, 유유문화살롱, 청년컬러테라피, MBTI검사와 진로탐색, 슬기로운 집콕생활, 취준클래스, 취업새나기를 위한 안내소, 청년생활백서		
		나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드로잉클래스 회사생활 체험기, 응답하라 199X, 에세이 클래스, 톡톡온에어, 드로잉 클래스 등 진로탐색을 위한 심화강의 제공	유유의 사생활, 멘탈단련 트레이닝, 청년아카데미, 톡톡 온에어 셀프브랜딩, 톡톡온에어, 유유의 사생활 등 개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셀프 브랜딩 클래스, 나만의 에세이 쓰기, 취업을 위한 직무멘토링, 셀프창업 설계 직무멘토링[자기소개서, 면접, 직무분석], 톡톡온에어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청년맞춤형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제공	공통프로그램	나만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드로잉클래스 회사생활 체험기, 응답하라 199X, 에세이 클래스, 톡톡온에어, 드로잉 클래스 등 진로탐색을 위한 심화강의 제공	유유의 사생활, 멘탈단련 트레이닝, 청년아카데미, 톡톡 온에어 셀프브랜딩, 톡톡온에어, 유유의 사생활 등 개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셀프 브랜딩 클래스, 나만의 에세이 쓰기, 취업을 위한 직무멘토링, 셀프창업 설계 직무멘토링[자기소개서, 면접, 직무분석], 톡톡온에어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선택강의 미술·체육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한 대체수강 지원	17~4기 선택프로그램 5기~7기 선택프로그램 연계기관	인천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천시 보호종료아동복지시설(27개소)	인천광역시자원센터, 인천시「자살예방방방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청년수당「드림체크카드」, 면접복 대여서비스, 잡스인천, 여성가족재단 등

자료 : 박창언(2021). ‘취약계층 청년 발굴과 청년센터의 역할-청년도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1 청년정책포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청년허브.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동, 청년 친화형 온라인 홍보 활동, 사전 설문조사 및 참여 청년 유입경로 분석, 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발굴 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
 - 2021년 구직단념 청년 513명 발굴, 프로그램 참여 458명, 이수 청년 383명, 미승인 등 중도 이탈 청년 130명 타 프로그램 연계 지원
 - 2020년 대비 2021년 프로그램 참여 청년, 홈페이지 회원 수가 각각 74.8%(2,666명), 89%(4,766명) 증가하였으며, 취·창업 성공 및 타 사업 수혜 청년 또한 각각 92.1%(106명), 430%(2,709명) 증가

〈표 2-1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청년 발굴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동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청년 공동발굴 및 지원사업 연계, 지역청년고용협의회 운영
청년 친화형 온라인 홍보 활동	• 커뮤니티 홍보(홈페이지, SNS, 맘카페 등),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 어플 내 배너광고,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이벤트(친구 추천, SNS 공유 등)
사전 설문조사 및 참여 청년 유입경로 분석	• 신청접수 시 유입 경로 설문, 설문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실시간 대응, 가족/지인 등 전 시민 대상 홍보 강화
오프라인 홍보 강화	• 현수막/역사 내 전광판/버스쉼터 공고, 유관기관/행복복지센터 등 홍보물 배포, 아파트 전단지 광고 등

자료 : 박창언(2021). “취약계층 청년 발굴과 청년센터의 역할-청년도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1 청년정책포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청년허브.

■ 복지·문화

■ 드림체크카드⁶⁾

-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 원)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추진
 - 선입금 방식 클린체크카드(드림체크카드) 30만 원,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20만 원 지급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 생활비로 사용 가능하며 2021년 2,186백만 원으로 총 653명 지원
 - ▲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의 직접비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의 간접비 ▲의료비, 생필품, 의류비 등의 생활비

■ 청년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

- 지역여행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인천 청년이 지역 관광콘텐츠를 즐기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홍보하여 청년 여가활동 활성화 및 관광향유권 증진 도모
- 2021년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TF’를 통한 예산 편성 요구로 2022년부터 사업 추진 예정
- 5명 이내 소규모 그룹으로 인천 여행지를 체험하고 모니터링하며 인천여행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개발, 활동 기간 중 1인당 20만 원, 최대 2회(40만 원)까지 지원

6) 인천광역시(202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pp.253~255.

④ 부산

■ 참여·권리

■ 청년행복박스

- 2019년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 부산시 거주 청년(만 18세~34세)에게 청년정책 홍보물이 담긴 청년행복박스 제작·전달
- 2020년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를 컨셉으로 ‘힐링박스’를 제작, 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택배 수령, 오프라인 행사 배부 등을 통해 총 5,500부 제공
 - 청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후,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구성된 힐링박스 3개 중 택1 제공
- 2021년 ‘코로나19로 지친 청년에게 한 끼의 행복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컨셉으로 ‘청년이 청년에게 주는 행복 푸드박스’ 제작, 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택배 수령으로 총 6,000부 제공
 -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 8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밀키트, 부산경제진흥원이 선정한 지역 스페셜티 커피와 청년정책 홍보물로 구성
 - 청년행복박스 제작에 참여한 청년 외식사업가에게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 인터뷰·레시피를 포함한 홍보영상과 책자형 리플릿 등 제작·배포 지원

■ 교육

■ 부산청년학교

- ‘부산청년학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청년단체 등이 학과운영자가 되어 청년들의 일과 삶으로 연결되는 커리큘럼을 기획·운영
- 2019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사업으로 학과당 10주 이내(1회 2시간)로 운영되며 담임비·강사비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 창업 멘토링/콘텐츠 마케팅/지역 콘텐츠 탐구/금융교육 등 다양한 학과가 운영됨
- 2020년 10개 학과 운영 209명이 수강하였으며, 수요가 높고 신청자가 많아 2021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12개 학과 운영 210명 수강
 - 2020년 학과운영자 10팀 선정에 53팀 접수, 학과생 209명 선정에 637명 접수

■ 청년 금융 특강

- 부산 청년(대학생)들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신용·부채관리 실패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금융 마인드 제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찾아가는 금융특강 운영
 - 학자금 대출과 부채관리 기초, 대학생 신용관리 방법, 사기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사기/개인정보 유출/금융회사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등
-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 금융 특강 동영상 제공

■ 복지·문화

■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 청년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지원

〈표 2-11〉 부산 청년문화 인프라·공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청년작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중구 광복중앙로 13(BNK 아트시네마 3층) • 주요시설 : 다목적 행사·교류 공간, 휴게 및 라운지 공간, 세미나 및 소모임 공간, 영상도서관 등 • 주요사업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예술가 커뮤니티 구축, 공간 운영 등
민락 인디트레이닝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철도 2호선 민락역 내(지하) • 주요시설 : 다목적연습실 3개, 밴드연습실(개인포함) 6개, 운영사무실 1개, 기타 부대시설 등 • 주요사업 : 인디문화 관련 단체 창작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사상 인디스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사상구 사상로 190(경전철 사상역 인근) • 주요시설 : 공연장, 스튜디오, 전시실 등 • 주요사업 : 인디워홀(공연), 청년BBM(포럼), B-SIDE(전시), 메이드인사상(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자료 : 부산광역시 청년G대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young/culture05>” (2022.2.23. 검색).

■ 일자리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

- 2022년부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사회진입활동비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입 촉진
 -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 ‘디딤돌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
 - 취·창업 시 지원을 중단하고 취·창업 성공금 지급(50만 원/조건부 지급)

- 활동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며, 2022년에는 구직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간접비로 월 5만 원 내에서 문화비 사용 가능
 - 시험응시료, 수강료, 서적 구입비, 면접 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의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의 간접비
- 사업참여자에게는 1대1 취업 상담 등 온라인 신청 시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⑤ 제주

■ 일자리

■ 청년 업(業)토링 지원사업

-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진로 탐색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및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 2021년 플랫폼 운영, 프로필 제작, 진로 탐색 멘토링 지원, 아카이빙 구축 등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진로 탐색 멘토링(온·오프라인), 직무 탐색 및 이해를 위한 청년과 기업의 프로필 제작, 멘토링에 대한 기록을 통한 콘텐츠화, 멘토링 프로그램과 콘텐츠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교육

■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청(靑)코노미 프로그램’⁷⁾

- 청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본사업 추진
 - 2021년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가 프로그램에 만족
- 시범사업에 따른 피드백을 수용하여 경제 분야별 실무자 섭외, 청년 강사를 활용한 강좌 ‘유스 바이 유스(Youth by Youth)’ 운영, 강의 선택제 운영,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계획

7)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2.3.6.).

- 경제 분야별 실무자 위주의 강사를 섭외해 실제적이고 생생한 실무 현장 이야기 제공, 경제 분야 청년 강사를 활용한 유스 바이 유스 강좌로 공감과 동기부여 제공 등 도모
- 보험, 부동산 등 생활경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표 2-12〉 2022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6기 모집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모집분야 및 인원	일반	• 일반분야 진로 희망 청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제외) 60명 내외 (도내 75% 내외, 도외 25% 이내)																																
	디지털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진로 희망 청년 15명 내외 (도내 인원 100%)																																
지원내용		• 취·창업(직) 교육프로그램 지원																																
		<table><tr><td></td><td>1단계 기본교육과정 6개월</td><td>▶</td><td>2단계 진로모색과정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td><td>▶</td><td>3단계 진로실현과정 최대 12개월</td></tr><tr><td rowspan="2">일반분야</td><td rowspan="2">팀 프로젝트수행에 기반한 기획, 분석, 마케팅 등 기본역량향상 교육</td><td rowspan="2">▶</td><td>희망진로 경험</td><td rowspan="2">▶</td><td>심화 과정</td></tr><tr><td>취업연계트랙</td><td>취업연계트랙</td></tr><tr><td rowspan="2">디지털분야</td><td rowspan="2">기본역량향상 교육</td><td rowspan="2">▶</td><td>창업(직)실전트랙</td><td rowspan="2">▶</td><td>창업(직)실전트랙</td></tr><tr><td>특화형 취업연계트랙 (SW개발프로젝트 교육)</td><td>실전경험 및 심화과정</td></tr><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 rowspan="2"></td><td>취업연계트랙</td></tr><tr><td>창업(직)실전트랙</td><td>창업(직)실전트랙</td></tr></table>				1단계 기본교육과정 6개월	▶	2단계 진로모색과정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	▶	3단계 진로실현과정 최대 12개월	일반분야	팀 프로젝트수행에 기반한 기획, 분석, 마케팅 등 기본역량향상 교육	▶	희망진로 경험	▶	심화 과정	취업연계트랙	취업연계트랙	디지털분야	기본역량향상 교육	▶	창업(직)실전트랙	▶	창업(직)실전트랙	특화형 취업연계트랙 (SW개발프로젝트 교육)	실전경험 및 심화과정						취업연계트랙	창업(직)실전트랙	창업(직)실전트랙
			1단계 기본교육과정 6개월	▶	2단계 진로모색과정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	▶	3단계 진로실현과정 최대 12개월																											
		일반분야	팀 프로젝트수행에 기반한 기획, 분석, 마케팅 등 기본역량향상 교육	▶	희망진로 경험	▶	심화 과정																											
취업연계트랙	취업연계트랙																																	
디지털분야	기본역량향상 교육	▶	창업(직)실전트랙	▶	창업(직)실전트랙																													
			특화형 취업연계트랙 (SW개발프로젝트 교육)		실전경험 및 심화과정																													
					취업연계트랙																													
			창업(직)실전트랙		창업(직)실전트랙																													
• 훈련수당(바우처카드)·프로젝트 수당(현금) 월 100~150만 원 지원																																		
		<table><tr><td></td><td>1단계 기본교육과정</td><td>▶</td><td>2단계 진로모색과정</td><td>▶</td><td>3단계 진로실현과정</td></tr><tr><td>일반분야</td><td rowspan="2">훈련수당 100만원 + 프로젝트수당 50만원</td><td rowspan="2">▶</td><td>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수당 100만원</td><td rowspan="2">▶</td><td rowspan="2">프로젝트 수당 150만원**</td></tr><tr><td>디지털분야</td><td>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 수당 50만원 + SW특화개발교육</td></tr></table>				1단계 기본교육과정	▶	2단계 진로모색과정	▶	3단계 진로실현과정	일반분야	훈련수당 100만원 + 프로젝트수당 50만원	▶	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수당 100만원	▶	프로젝트 수당 150만원**	디지털분야	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 수당 50만원 + SW특화개발교육																
	1단계 기본교육과정	▶	2단계 진로모색과정	▶	3단계 진로실현과정																													
일반분야	훈련수당 100만원 + 프로젝트수당 50만원	▶	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수당 100만원	▶	프로젝트 수당 150만원**																													
디지털분야			훈련수당 50만원 + 프로젝트 수당 50만원 + SW특화개발교육																															
		• 탐나는 인재 커뮤니티 형성 및 산업별 전문 멘토링 지원 등																																

자료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6기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고(2022.1.19.).

■ 제주더큰내일센터

-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하여 청년 혁신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통합 지원서비스 지원 기관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2019.9)
- 도내·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혁신적인 취·창업(직) 프로그램과 월 100~150만 원의 훈련수당(바우처카드)과 프로젝트 수당(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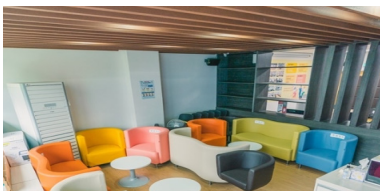
- 참여자 취·창업률 73.7% 달성, 도내·외 실습 및 인턴십 수행 기업 404개사 네트워크 구축, 창업 분야 참여자 외부자원 연계(53건) 및 사업비 확보(1,704백만 원) 등의 사업효과에 따라 탐나는 인재 모집 경쟁률은 1기부터 5기까지 평균 3.5대 1로 꾸준히 상승 중
- 제주 1~4기 교육에 참가한 도외 청년 70명 중 53명(75.7%)이 제주에 정착하는 등 청년 유입 효과가 나타남

■ 복지·문화

■ 청년다락(본점 및 분점 1~4호점)

- 청년다락은 제주지역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만 19~39세) 및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무료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휴게공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회의실과 같은 분임 공간은 만 19~39세 대상으로 예약 및 사용 가능
- 2021년 기준 이용자 수 14,962명(목표 9,000명), ‘청년다락의 날’ 만족도 97.5% 등 성과

〈표 2-13〉 청년다락 조성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본점	• 제주시 중앙로 53, 5~6층 (5층 : 청년시너지ZONE, 6층 : 청년활동ZONE) • 공유물품 : 의자/테이블, PC/프로젝터, 와이파이 등	
	• 세미나실 	• 휴식라운지 
분점	• 1호점(제주시점) : 제주시 연삼로 386-1, 5층 • 2호점(서귀포점) :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층 • 3호점(대정점)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79번길 2 • 4호점(구좌점)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 공유물품 : 의자/테이블, PC/프로젝터, 와이파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등	
	• 1호점 오픈라운지 	• 2호점 휴식라운지 

자료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jejuyouth.com/m/pages.php?p=4_3_1_2” (2022.4.11. 검색).

■ 참여·권리

■ 제주청년 ‘등록시스템’ 운영

- 청년 특성별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주청년 데이터베이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2020.7~)
- 도내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온라인(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www.jejuyouth.com)을 통해 등록 가능
- 인적 사항과 청년정책 관심 분야는 필수 등록사항이며, 도내·외 각종 위원회 등에 후보 추천 동의 시 활동 청년단체·동아리명, 참여 프로그램, 주요 경력 및 전공을 선택 등록 가능
 - 관심 분야는 활동·자립·소득의 3개로 구분된 15개 청년정책 중 3개까지 자유롭게 선택
- 2021년 기준 청년등록시스템에는 도내 1,586명의 청년이 등록, 지속적 증가 추세
- 제주청년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청년에 관심 분야 정보를 발송(주 3회)하는 ‘문자메세지 청년DB 알림톡’ 운영(2021년 총 185회/12만 건 발송), 91.5%가 제공되는 정보에 만족

■ 이주청년 웰컴키트

- 청년 순 유입 규모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 청년 유입 유도 지원방안 마련 필요로 2022년 ‘이주청년 웰컴키트’ 사업 신규 추진
- 제주 전입 청년의 청년정책 활용도 제고 및 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 자료(책자, 리플릿 등), 물품(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 발송

(2) 기초자치단체

① (경기) 광명시

■ 일자리

■ 광명형 청년인턴제

- 미취업 청년에게 현장 경험, 직무 역량 제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광명형 청년인턴제’ 운영

- 청년들이 전문적인 인턴으로 성장하도록 기존의 공공부문 체험형 청년 인턴사업 ‘잡스타트(Job-start)’를 개선, 2020년부터는 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자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근무처(공공,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
- 2022년부터는 사업 장소를 60개소로 확대하여 인턴 기회 제공(총 75명 목표)

■ 광명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적성을 고려한 직업탐색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 ‘광명시와 함께하는 미니 인턴’ 운영

■ 주거

■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2020.11.6.)
- 신혼부부는 연 1회 최대 3년간 총 195~225만 원 지원 가능하며, 청년은 같은 기간 최대 90~120만 원까지 지원
 - 2021년 신혼부부 200가구에 1억 1천만 원, 청년 100가구에 2천만 원 지원

■ 청년·신혼 주택 마련

- 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너부대 마을(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름산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타워 등에 2025년까지 1210호의 청년·신혼 주택 마련 계획

■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 주택 건립 추진

-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서비스가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 주택’을 2024년 완공 목표로 광명시 소하동에 건립 추진
- 토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약 244억 원 투입, 행복주택 140호와 주차시설 118면 조성 예정

- 광명시는 향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극적 확대 계획

■ 복지·문화

■ 청년동(GM YOUTH ZONE)

-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청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 2021년 10월 개소
-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907㎡ 규모의 회의실, 다목적실, 밴드실, 녹음실, 개인 연습실, 문화홀, 코워킹스페이스, 휴게실 등 다양한 청년 공간으로 구성

[그림 2-4] 광명시 청년동 사업 소개



자료 : 청년동 홈페이지. “https://www.gmyouthzone.org/about/about_02” (2022.3.10. 검색).

■ 참여·권리

■ 청년숙의예산

- 청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직접 결정하기 위하여 ‘청년숙의예산 토론회’ 운영
- 2020년 처음 시작, 2021년에는 2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50억 원 규모의 사업 결정
- ‘청년숙의예산 토론회’를 통해 청년센터 설립, 청년 공간 대여 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홍보

책자 발간, 인턴십 분야 확대, 청년 주택 및 주거비 경감 지원, 정신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사업 제안·추진

② (경기) 수원시

■ 주거

■ 수원 청년 주거상담

- 수원시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 누구나 주거 관련 지원 정보와 관련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 운영
- 수원도시재단 내 청년지원센터에 수원 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1명이 상주하며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 통합 제공, 관련 상담, 교육 등 진행
- 온라인 채널을 통한 채팅 상담(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 ‘청년바람지대’), 전화 상담(031-231-3376), 방문상담 등 가능
- 2021년 10~11월 시범운영 후 2022년 2월 예산 사업으로 재개

■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 지원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연 1% 지원
 - 2022년 기준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 지원

■ 교육

■ 여가지원 「취미로 부업까지」

- 만 19세~34세의 수원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지원을 통한 문화생활 및 부업으로의 연계 지원 추진
- 라탄 공예, 이모티콘 제작, 수익형 블로그 운영방법 등 10개 강좌 운영

■ 복지·문화

■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통카드(청카드)를 통해 30만 원 지원
- 수원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중 취업 준비 중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 만 18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대상
- 버스·지하철 전용 교통카드인 '청카드'는 1년간 사용 가능

■ 참여·권리

■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도모
- 청년에게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프라인 청년 공간 '청년바람지대', '청누리' 운영

〈표 2-14〉 수원시 청년 공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청년 바람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팔달구 행궁로84번길 23(교동) • 규모 : 788.53㎡(지하1층, 지상1~2층) • 공간 : 공유카페, 아기자기룸, 세미나실, 모여모여실, 꿈지락실험실 등
청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팔달구 행궁로 68-1(팔달로3가) • 규모 : 327.63㎡(지하1층, 지상1층) • 공간 : (자유존) 청년들이 부담없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스터디 및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회의실) 청년들의 모임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 / 대관 신청 필요 (휴식존) 정기 공연이나 강연 등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 / 대관 신청 필요

자료 : 수원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http://www.swyouthpolicy.kr/?p=157_view&idx=36" (2022.3.10. 검색).

③ (경기) 안양시

■ 일자리

■ 청년오피스

- 청년오피스는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 관내 2개소(동안구, 만안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표 2-15〉 ‘청년오피스’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동안 청년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3층 (현 안양창업지원센터) • 규모 : 총 976㎡ (오픈무대·오픈공간, 회의실·세미나실, 휴게실·열린 도서관, 1인 작업실) • 이용대상 : 청년, 예비창업자 등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만안 청년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1 프로젝트500타워, 16층 • 규모 : 총 478㎡ (오피스) 2~5인 입주 10개실, 회의실, 공용키친, 휴게실 등, (라운지) 자유 50석, 공용키친, 무료 무선인터넷, 유료복합기 등 • 이용대상 : 청년기업가, 창업의지자(예정자), 기타 프리랜서 등 		
			

자료 : “안양산업진흥원 『청년오피스』 2022년 라운지 멤버십 모집 공고”, (재)안양산업진흥원 공고 2022-13(2022.1.11.);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ca.or.kr/content/contents.do?menuId=1153>” (2022.3.4. 검색).

— 초기 사업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예비)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으로는 ‘인큐베이팅’ 사업과 ‘액셀러레이팅’ 추진

— 인큐베이팅은 청년기업가, 창업의지자(예정자)를 대상으로 무료 입주실을 지원하는 ‘오피스 멤버십’과 청년기업가, 창업의지자(예정자), 기타 프리랜서 등에 자유석을 지원하는 ‘라운지 멤버십’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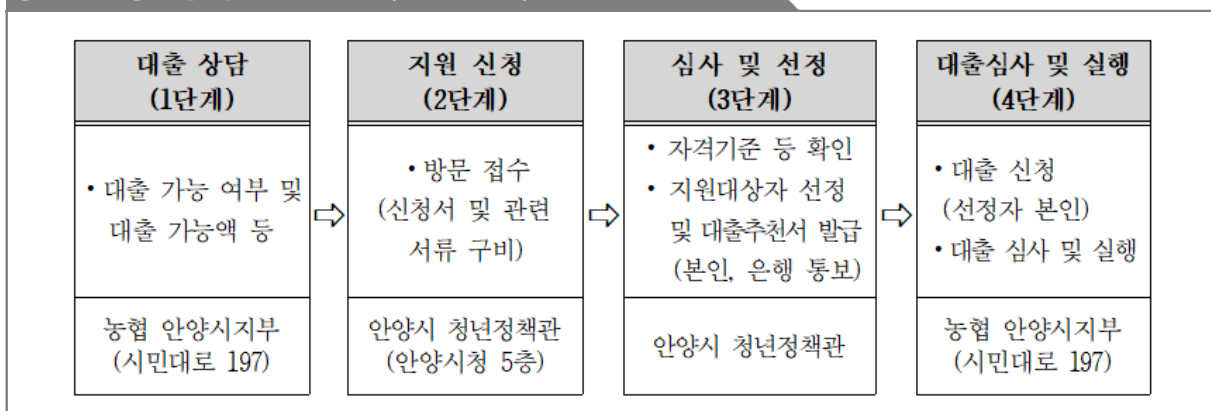
— 액셀러레이팅은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맞춤형 비즈니스 클래스, 멘토링, 네트워킹), 자금 및 성장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입주 혜택 추가 등 지원

■ 주거

■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 목적
-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0.3.2.)하여 법적 기반 마련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1개월 이내)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전월세 보증금) 추천, 연 2% 이내에서 이자 지원

[그림 2-5]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처리절차



자료 : “2022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2차모집”, 안양시 공고 자료 (2022.2.8.).

■ 복지·문화

■ 범계역 청년출구

-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자기계발 활동과 청년 간 소통·교류를 위한 활동 공간 설치 및 운영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도모

〈표 2-16〉 ‘범계역 청년출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위치	•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1층 범계역 광장 내
규모	• 면적 65㎡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10:00~21:00, 일요일 10:00~19:00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이용대상	• 청년(19세~39세)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터디, 회의, 자기계발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대관 • 청년 위한 프로그램(문화로운 청년생활(One-day class), 청년 토크콘서트,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운영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3.2. 검색).

■ 참여·권리

■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안양청년광장’ 운영

- 각종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개설(2021.6)
-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청년정책이 정리되어 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공모에 원스톱 신청 가능
 - ▲청년참여·소통 ▲청년일자리·창업 ▲청년주거 ▲청년 공간 등 4가지 분야별 정책 제시
-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반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④ (충청) 아산시

■ 복지·문화

■ 청년 내일카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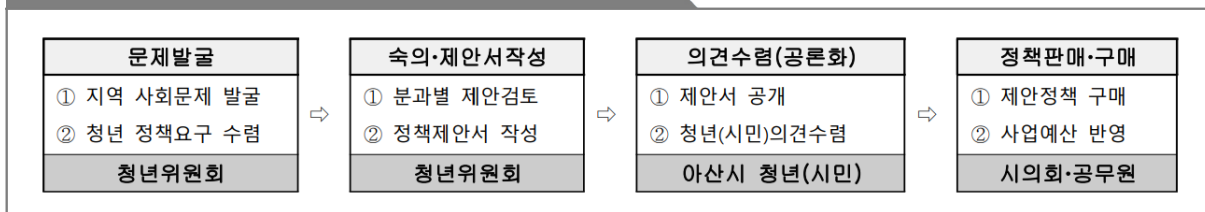
- 일하는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신규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원
 -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제외)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근속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역화폐(아산페이)로 월 25만 원, 총 150만 원 지원
- 아산시 관내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
 - ▲병원 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의 건강관리 ▲온천, 레포츠, 여행, 공연(영화 등) 관람, 주유 및 교통비 등 문화·여가 ▲도서 구입, 학원수강, 자기관리 등 자기계발 ▲임신/출산, 유아용품 구입, 자녀교육 등 가족친화 등
- 2021년 2,144명 대상 630백만 원 지급, 소비 촉진(6.2억 원), 만족도 9.58점/10점 달성

■ 참여·권리

■ 청년정책마켓

- 청년이 직면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숙의 과정을 거친 청년의 아이디어가 청년주도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의제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구매 플랫폼 운영
- 2021년 선정된 3개 정책제안서 중 2개 정책제안서가 2022년 정책에 반영
 - 청년심리상담,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찾아가유’

[그림 2-6] 청년 정책구매 플랫폼 ‘청년정책마켓’ 추진과정



자료 : 아산시(2022). “2022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p.37.

■ 청년아지트 나와유

- 취·창업 지원 및 문화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청년 전용공간 직영 운영
-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과 경험·관계 확장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동적 삶의 실현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1호점)’ 개소(2019.8.31.)
- 청년센터 1호점의 정책성과 확산을 위하여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배방읍에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2호점)’ 개소(2021.9.11.)

〈표 2-17〉 ‘청년아지트 나와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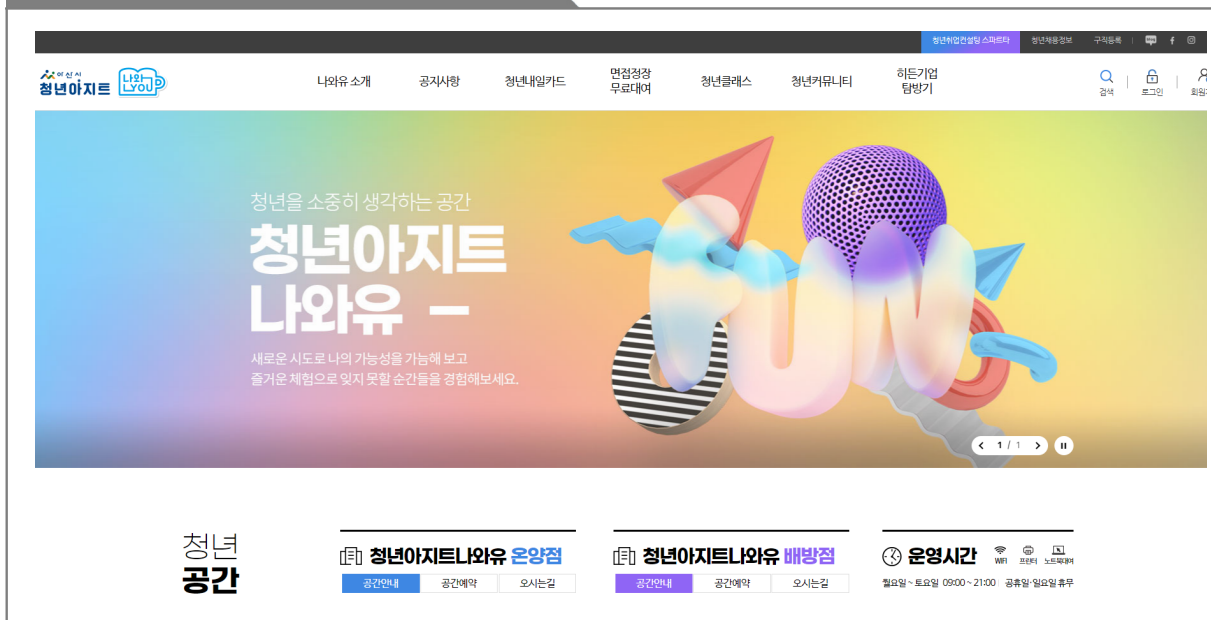
구분	온양점(1호점)	배방점(2호점)
위치	•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4	• 아산시 배방읍 월천2길 8-14
규모	• 370.35㎡, 지상 1~2층, 6층	• 534.4㎡, 지상 3층~5층
조성비용	• 건물매입(13.2억), 인테리어(4.3억)	• 인테리어(5억), 임차료 월440만원
주요업무	• 취업컨설팅, 공간대관, 청년 클래스운영	• 취업컨설팅, 심리상담, 공간대관, 클래스운영
공간구성	• 북카페, 스터디룸, 프로그램실, 공유부엌	• 스터디 카페, 베이커리공방, 심리상담실

자료 : “2022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아산시 사회적경제과(2022.1), p.11.

- 2022년 청년아지트 나와유 3호점(탕정점) 조성 추진 계획
 - 탕정면 ‘지중해 마을’ 내 코로나19로 인해 설자리·일자리·놀자리를 잃은 지역 청년작가(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업 특화 플랫폼 조성 계획

- 온라인 플랫폼(<http://asan.go.kr/naeil>) 구축·운영 사업
 - 청년 전용공간 ‘청년아지트 나와유’와 연계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년아지트 나와유 추진사업 안내 및 신청, 공간 대관 등 제공
 - 청년채용정보 제공, 구직정보 등록 등 일자리 관련 플랫폼으로서 역할

[그림 2-7] 아산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자료 : 아산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naeil/>” (2022.4.11. 검색).

2. 해외 청년정책

1) 국제기구

(1) UN

■ 청년정책의 발전

- 세계 청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
 - UN은 1979년 최초로 1985년을 ‘세계 청년의 해’로 결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회원국들이 청년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
 - 임유진(2020)에 따르면 UN은 청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가 아닌 ‘현재 살아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세대의 중요한 일부’로서 간주할 것을 권고⁸⁾
 - 1985년 ‘세계 청년의 해’를 계기로 청년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 등 세 가지를 주제로 채택
 - 이후 2010년 8월 12일, UN은 다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기후 변화 등 지구적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사회 투자를 촉진하고자 세계 청소년의 해를 지정⁹⁾
 - 2010년 ‘세계 청년의 해’는 문화, 종교, 세대를 초월하여 청년 간의 연대와 평화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통과 상호 이해(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를 주제로 채택
- 2000년 이후 청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 1995년 유엔총회에서 UN, 회원국, 비정부조직이 중점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채택
 - 전 세계 청년의 상황을 개선을 목표로 국가별 조치이자 국제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지침인 동시에,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청사진으로 평가

8) 임유진(2020).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과 「청년기본법」”,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17.

9) “‘우리의 해, 우리의 목소리’-세계 청소년의 해(2010-2011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식(2010.9.6.).

- 청년을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인구 집단이 아닌 다양한 하위 집단(도시/비도시 청년, 인종차별을 받는 청년, 어린 노동자, 장애 청년 등)의 집합체로서 인식
- 청년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청년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모든 부문(국제, 정부, 시민, 민간 등)에서 우선 과제로 요구되어야 함을 확인

■ 청년 전략 2014~2017(Youth Strategy 2014~2017)

- 2014년 UNDP는 전 세계 청년들이 직면한 기회의 불평등과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 아래 ‘청년 전략 2014~2017’ 발표
- ‘청년 전략 2014~2017’은 목표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량 강화” 제시¹⁰⁾
- 지역사회개발 또는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파트너, 실행의 주체적인 리더로서 인식하고자 함

■ 청년 2030 전략(Youth 2030 Strategy)

■ 새로운 UN 청년 전략 ‘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 2018년 9월 24일 UN 총회에서 청년정책 5대 우선 과제를 담은 ‘청년 2030 전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의 UN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
 - 5대 우선 과제로 ‘관계, 참여 및 옹호’, ‘교육 및 보건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청년과 인권’, ‘평화 및 탄력성 구축’ 제시¹¹⁾
-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국가 및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표 2-18〉 ‘청년 2030 전략’ 우선 과제

우선 과제 영역	주요 내용
관계, 참여 및 옹호	•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확대
교육 및 보건 기반	•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년 접근 확대 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 고용에 대한 청년의 접근확대 지원
청년과 인권	• 청년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며 청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 지원
평화 및 탄력성 구축	• 평화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서 청년 지원

자료 : 국제연합(2019). 『청소년2030 : UN 청소년전략 한국어판 (이지향,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114.

10) 임유진(2020).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과 「청년기본법」”,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17.

11) 국제연합(2019). 『청소년2030 : UN 청소년전략 한국어판 (이지향,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114.

(2) EU

■ 청년전략(Youth Strategy)

■ 청년전략 2010~2018(Youth Strategy 2010~2018)

- 15~25세의 청년들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
- 청년의 고용·취업·창업 제고를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 도모, 미래 시대의 시민성 함양을 통한 유럽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8개 분야를 제시

〈표 2-19〉 청년전략 2010~2018 8개 분야

분야	주요 내용
교육과 훈련	•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 기회 지원
고용 및 기업가 정신	• 피고용인 또는 사업가로서 청년을 노동시장에 통합 지원
건강과 웰빙	• 청년의 건강과 웰빙 촉진
참여	•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청년의 참여 촉진
자원봉사활동	• 청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인정 및 지원
사회통합	• 청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 타파
청년과 세계	•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정치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창의성과 문화	• 창의적 역량과 기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 기회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p.31.

■ 청년전략 2019~2027(Youth Strategy 2019~2027)

- 민주적 삶에 청년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26일 채택
- 참여(engage), 연계(connect), 역량 강화(empower) 등에 초점

〈표 2-20〉 청년전략 2019~2027 핵심 행동 영역

핵심 행동 영역	주요 내용
참여(engage)	• 청년단체, 온라인 활동 등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의미 있는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도모, 민주적 삶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
연계(connect)	•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성, 연대성,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
역량 강화(empower)	• 팀워크, 리더십 강화, 문화 역량 강화,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지원

자료 : 임유진(2020).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과 「청년기본법」”,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21.

■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 청년보장(Youth Guarantee)

- ‘청년보장’은 회원국에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유럽 차원의 중요한 제도로 2013년 도입
-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실직 또는 정규교육 종료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와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2013년 시행 이후 약 7년 동안 2,4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청년보장제도에 등록하여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얻음

■ 강화된 청년보장(Reinforced Youth Guarantee)

- 2020년 10월, 기존 청년보장제도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현존하는 격차 일부 해소를 목표로 ‘강화된 청년보장’ 발표
- ‘강화된 청년보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서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주고자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의 세계에서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청년 연령 범위를 29세까지 상향하고 ▲디지털·녹색 기술 관련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부응 지원 ▲장기 청년 니트(NEET) 등 취약 집단이 청년보장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제도의 포용성 강화에 주력

〈표 2-21〉 ‘강화된 청년보장’ 회원국 권고사항

실행 영역	회원국 개별 방안
매핑	• 니트의 다양성 이해, 지원 서비스(기술 수요 예측 포함) 계획, 니트 위험군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추적 시스템 개발
선제적 접근	• 인식 제고 활동 개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개발, 취약계층 중점 전략 개발
준비	•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한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상담·지도 및 멘토링 강화,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기술 평가와 개선 및 인정
기회 제공	• 목표 대상을 정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 질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는 기회 제공, 배치 후 꾸준한 지원 및 피드백 제공
조력 요소	• 모든 정부(시민사회 포함)의 파트너십 강화,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제도 개선, 유럽기금의 적절한 활용

자료 : Isabelle Le Mouillour(2021).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9(12) : 19-29, p.21.

2) 유럽

(1) 영국

■ 고용 및 훈련¹²⁾

■ 킥스타트 프로그램(Kickstart Scheme)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충격과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하여 영국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인턴십(job placements) 제공 프로그램
 - 16~24세의 무직 청년이 기본 대상이며 영국의 공공부조인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 수급자와 장기 실업의 위험이 큰 청년이 우선 참여 대상
- 기업은 청년층에게 인턴십 기회를 부여, 정부에서는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정부에서는 주 25시간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최대 6개월간 기업에 지급
 - 기업 준비 비용(setup costs), 인턴 훈련비용을 고려하여 인턴직 한 개 당 £1,500을 기업에 추가 지급
- 킥스타트 프로그램 신청·등록 시 청년과 기업은 각각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잡센터 플러스’와 기업 지원기관 ‘킥스타트 게이트웨이(Kickstart gateway)’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청년은 지역별로 설치된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원 도움을 받아 킥스타트에 등록 가능
 - 기업은 킥스타트 참여 신청서 작성, 기업에 정부지원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킥스타트 게이트웨이¹³⁾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음
- 2021년 7월 기준 15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정부의 승인하에 킥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 실제 약 5만 명의 청년이 등록된 일자리 중 하나에 취직하여 근무(인턴십 활동)

12) 손동영(2021).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 『Global Youth & Now』 21-S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킥스타트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기관이 중앙정부 내 노동연금부와 협약을 맺은 후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 시민단체,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이 킥스타트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음.

■ 연수 제도(Traineeships)

- 관련 기술과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취직이나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견습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직무 준비, 영어 및 수학, 등 견습 과정 또는 취업에 필요한 연수를 지원하는 과정
- 연수 과정은 연수생과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 가능하며, 기간은 6주부터 1년까지 자유롭게 설정 가능
 - 현장 실습은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서 7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설정 가능
- 사용자는 건설적인 조언 제공, 사업체 내 일자리가 있을 경우, 해당 연수생에 입사면접 기회 제공 등 연수생의 연수 과정과 연수 종결 이후에도 지원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9월부터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연수생 1인당 £1,000의 지원금을 제공¹⁴⁾

■ 도시 사례 :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

- 요크셔 리즈 도시권(Leeds City Region)의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은 성장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청년고용 창출에 중점
-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은 지역 경제의 성장과 우선순위 선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영국 정부가 2011년 조직한 지역 당국과 기업 및 관계자 간 파트너십
- 니트족이 없는 도시를 위하여 ‘5-3-1’ 캠페인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노력
 - 지역 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5가지의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 3가지의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 1가지의 결과를 골자로 계획·운영¹⁵⁾

14) 해당 지원정책은 2022년 7월까지 지속 예정

15) 배효정(2016)에 따르면 ‘5-3-1 캠페인’은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5가지(기술 투자, 초기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교육제공자와 연계, 청년 실업자에게 직업연수 제공, 견습 제공), 3가지 이유(개인 잠재력 발굴, 고용주 사업 이익, 지역 경제 활성화), 1가지 결과(경제 성장)”를 주요 내용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22〉 ‘5-3-1 캠페인’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헤드스타트 (Headst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뷰 보장, 멘토링, 고용주 대상 임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실업 청년 및 고용주를 동시에 지원
견습훈련기관 (Apprentice Training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견습 관련 조언 및 지원을 담당 견습을 제공하기 어려운 고용주를 위해 견습을 창출하고, 견습훈련기관을 수료한 견습생을 고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위임청년계약 (Devolved Youth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악되지 않은 16~17세의 니트족을 대상으로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보조금을 지원해 이들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함
재능매치 (Talent Match L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사업으로 1년 이상 실직 청년을 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분야 전문파트너가 참여하며, 그 설계에 청년들이 공동으로 참여

자료 : 배효정(2016).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p.112.

■ 문화

■ 내셔널 갤러리, 청년 관객 모객 방안 마련¹⁶⁾

-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젊은 관객층 발굴을 위해 소셜 미디어인 틱톡과 스냅챗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등 디지털 영역을 강화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함
- 청년 멤버십 가입자를 위한 특별 온라인 콘텐츠의 수를 늘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예술가를 섭외한 토크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예정
- 내셔널 갤러리의 5개년 전략 계획의 일환이자, 2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으로 청년 관객을 모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계획·추진

(2) 스페인

■ 고용 및 훈련

■ 청년보장 플러스(Youth Guarantee Plus)

- EU 이사회 권고(2020.10.30.)에 따라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청년보장 플러스 계획 2021~2027” 수립, 약 30억 유로의 예산 투입 예정(2021년 6월 25일 스페인 관보 게재)

16) “National Gallery turns to TikTok and Snapchat to attract younger audience”, The Telegraph(2021.4.29.).

- 청년에게 양질의 고용과 지속적인 교육, 견습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보장과 목적은 같으나 수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조정
- 6개 축을 중점과제로 69개 실행방안 구성

〈표 2-23〉 청년보장 플러스 6개 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진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활성화 목표 • 직업상담사를 찾는 청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 소통 채널 운영, 양질의 상담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사 훈련 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재도전 학교(Second chance school)', '다양한 일학습 프로그램, 직업훈련 학교(workshop school)' 등을 운영, 학교 중퇴율 지속적 감소 목표 • 소프트 스킬과 노동시장에서 유용하나 청년이 갖추고 있지 않은 디지털, 녹색 기술 활성화
고용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제조업, 돌봄 등 특정 이해당사자가 자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지원 • 비도시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노동자 세대교체를 돕는 실행방안 시행, 청년의 지역 간 이동 활성화 지원 등 추진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한 노동시장 접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 모든 유형의 차별에 반대 • 성별, 장애 유무 등에 있어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 • 장애 청년이 훈련을 통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장애 청년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훈련 방안 설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독려, 일자리 혁신 촉진 위한 실행방안 구상 • 소액대출 제공, 창업 아이디어 실현 위한 훈련 제공 등
제도적 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내 여러 기관 사이 상호 조율, 보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추진 • 청년이 관련 기관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 간소화, 청년보장제도 평가 개선 기반 마련 등 추진

자료 : Sandra Gracia Lopez(2021). "코로나19 시기의 니트(NEET) 문제: 스페인 청년보장제도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한국 노동연구원을 참고하여 재구성.

- 청년보장 플러스 평가 방법 설계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각의 기관마다 모니터링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으로부터 이탈이나 시행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할
 - ▲중앙정부는 청년 보장 플러스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수요에 따른 관할 지역 내 실행방안 이행 및 모니터링 ▲사회적 파트너는 청년 보장 플러스 시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관점 제시 역할

■ 시골 공공근로 사업¹⁷⁾

- 청년들이 시골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함으로써 시골 인구감소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
- 대학 차원에서 지방 자치주와 협업해 시작한 시골 공공근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 최소 3개월 동안 시골에서 일차산업 및 디지털화 등 지방 자치주 소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유급 실습을 지원
 - 사라고사 대학(University of Zaragoza)은 매달 최대 600유로와 일일 식비(20유로)를 4학년 학생에 지급하여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도시 사례 : 안달루시아 에어버스(Airbus)사의 교육과 고용 연계
 -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에어버스(Airbus)사는 지역 내 교육과 고용 간 간극을 인식하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실시
 - 교육과 고용의 단절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항공산업에 연관된 훈련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직업훈련을 시행,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오전에는 인턴십 근무, 오후에는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추진
- 도시 사례 : 히혼 ‘청년 활성화 기관(Youth Activation Agency)’
 - 히혼 전역에서 청년 니트를 찾아 지원과 진로 지도를 제공하는 ‘거리 상담사’ 팀 구성
 - 2014년 청년 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5년부터 히혼 시의회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고용청 상설 연간 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

■ 주거¹⁸⁾

- 청년주거비 지원
 - 대표적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고자 월 600유로 미만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50유로의 주거보조비 지급(총 6,000유로)
 - 18~35세 사이의 무주택자이자 연간 소득이 24,319유로 미만인 저소득 계층 대상

17) “스페인 시골 공공근로 사업...‘청년실업과 인구감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BS 뉴스(2021.5.11.).

18) “스페인 정부의 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2022.1.25.).

- 정부와 자치주 승인하에 부동산 과열 지구의 경우 월 임대료 최대 900유로 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공유 주택의 경우 월 300~450유로 주택 임차 보조비 지급
- 연 2억 유로의 예산 배정으로 약 7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미 유사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2개 자치주(파이스 바스코(Pais Vasco), 나바라(Navarra))는 청년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2-2025 국가주거지원계획

-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들의 주택공급 확대 및 시골 지역 거주 촉진을 목표로 2022년 3.45억 유로 우선 투입, 2025년 17.2억 유로까지 확대 예정
- ‘2022-2025 국가주거지원계획’ 내 대표적인 청년주거 지원으로는 새로 건설할 예정인 공공주택 10만 호 가운데 30%를 청년 전용으로 할당하는 정책이 반영되어 있음

■ 문화

■ 청년문화바우처(El Bono Cultural Joven)¹⁹⁾

- 2022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문학 ▲영화 ▲공연 등 문화 상품 구매에 연간 400유로의 문화 바우처 제공
- 2억 1,000만 유로(약 2,869억 원) 규모로 2022년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으며, 상반기 중점 사업으로 언급

(3) 프랑스

■ 고용 및 일자리

■ 라 프렌치테크(La FrenchTech) 스타트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 스타트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라 프렌치테크(La FrenchTech)와 리쿠르팅 플랫폼 잡티저(Jobteaser)간 파트너십 구축
- 잡티저(Jobteaser) 사이트에 라 프렌치테크(La FrenchTech) 스타트업 전용 페이지를

19) “[스페인]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1월)”, 해외문화홍보원(202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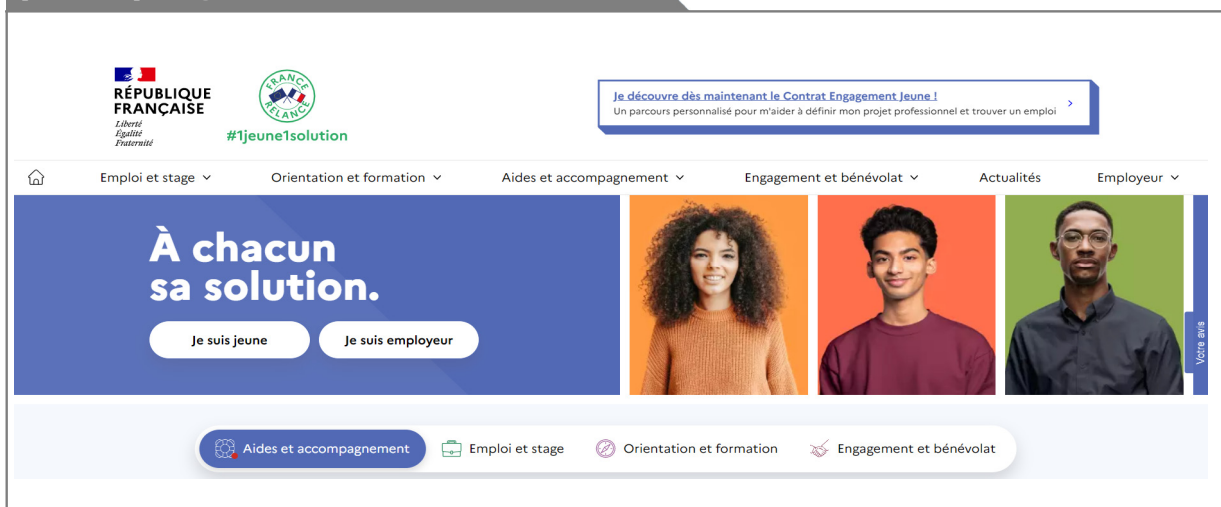
마련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

- 해당 기업인의 고용, 인턴십 정보 등은 물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등 제공

■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운영

- 2020년 12월부터 프랑스 정부는 청년구직자가 필요한 정보(취업, 자원봉사, 교육 등)를 얻고 구인 공고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www.1jeune1solution.gouv.fr)’ 운영 중
- 청년들은 구인 공고 지원뿐만 아니라 인턴, 임시직(아르바이트), 입사 체험, 멘토링, 창업, 사회교육, 공공사업 등에 지원 가능

[그림 2-8]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자료 :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www.1jeune1solution.gouv.fr” (2022.3.24. 검색).

- 사업주는 이 플랫폼을 통해 청년에 일자리(고용직, 인턴직, 행사 요원 등) 기회 제공, 멘토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계약

- 재정적 결핍으로 인해 구직활동에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26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0유로(한화 약 67만 5천 원)의 수당을 보장
- 제도 가입 청년은 12개월(특정 조건 하 최대 18개월)간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당

최소 15~20시간 이수해야 함

- 기존 청년고용 장려정책 ‘청년보장제도’가 대체된 제도(2022.3.1.~)로서 청년보장제도 대비 취업 관련 프로그램 대폭 강화, 프로그램 장기 운영 등 차별화 도모
 - 청년고용계약은 각 청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기본 소양 교육, 시민사회 봉사, 인턴십과 업무 체험 학습, 전문화 학습 프로그램, 제휴 기업 동원 프로그램 등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 지원
 - 또한, 약 9개월간 진행되던 기존 청년보장제도 보다 장기간(12개월, 최대 18개월)에 걸쳐 시행
- 각 청년에게는 지역 단위로 직업소개소 혹은 고용센터 소속 고문이 배정되며, 고문은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채용 단계까지 청년과 동반해 지속적 지원 제공
- 도시 사례 : 프랑스 파리市 청년센터 설립과 청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계획
 -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은 2021년 ‘청년층을 위한 센터(Maison pour la jeunesse)’ 설립 계획 발표
 - 15~30세를 대상으로 구인 및 구직과 관련된 멘토링, 인턴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센터 설립 계획
 - 구인 및 구직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건강, 법률 자문, 여가, 웰빙 등)와 관련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16~26세 청년 모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유로의 긴급생활비를 향후 3년간 지급 계획

(4) 핀란드

■ 고용 및 훈련

-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TE-Office
 - 2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 25~29세의 학업을 마친 청년이 ‘TE-Office’에 구직자로 등록 시 등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 맞춤형 해결책 제시

- 일자리 연계, 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창업보조금 지원, 진로계획 프로그램 등 운영
- ‘TE-Office’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수용한 청년은 구직자로 등록한 청년구직자의 약 70% 이상(3개월 이내 48.3%, 3개월 이후 24.0%)으로 해당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헬싱키 오희야모(Ohjaamo) 원스톱 안내센터
 - 2015년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Helsinki)에서 청년 욕구에 걸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희야모(Ohjaamo) 프로젝트’ 시작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헬싱키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센터 ‘오희야모센터’ 설립
 - 취·창업 관련 서비스, 교육 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스포츠,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센터 직원은 30여 명의 다양한 분야(고용, 보건·복지, 심리, 경영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TE-Office의 직원 또한 원스톱 안내센터에 파견근무 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유지
 - 약 1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등 핀란드 전역으로 확대되어 중앙정부는 센터를 위한 프로젝트 및 정책을 수행하고 50여 곳의 원스톱 안내센터 운영 중
- 도시 사례 : 핀란드 탐페레스의 ‘프로아카데미(Pro-Academy)’
 - 프로아카데미는 대학생 15~20명이 팀을 구성하고 2년 6개월간 회사 설립·경영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래픽 디자인 등을 배우고 팀 단위의 경영을 체험하도록 대학원생 네트워크가 지도

3) 아시아

(1) 중국

■ 주거

- 도시 사례 : 중국 광둥(廣東)성 ‘청년거주안정계획’²⁰⁾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지역 내에서 취업한 젊은이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광둥성에서

-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 비용, 임대료 보조금 등을 지원
 - 광둥성 지역 내 소재한 기업에 취업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지원
- 광둥성 내에서 취업은 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청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 공급될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20%를 배정
 - 2020년까지는 관계 기관(시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에서 청년 인재, 모범 노동자 등을 선정하여 주택을 배정
 - 이후 취업하였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청년은 모두 신청이 가능, 배정받는 주택 수도 크게 증가
- 청년 취업자가 광둥성 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일부 비용 보조 제도 확대 시행
 - 2020년 기준 약 4억 8,500만 위안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액수 대폭 확대 예정
- 온라인 플랫폼 ‘12355청년목소리(青年之聲)’에 청년거주안정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광둥성 내 각 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 입주 신청·심사 프로세스 운영,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보조금 신청·심사·지급 프로세스 운영 등을 지원
- 광둥성에서 일자리를 찾는 다른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청년역참(青年驛站)’ 모델 전면 확대
 - 2013년부터 선전시 정부는 다른 지방 출신 구직자가 졸업 후 구직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7일간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청년역참’ 제공
 - 2020년까지 선전시 10개 구(區)에서 15개의 청년역참 운영, 다른 지방 출신 인재 및 노동력 유입 등의 효과가 나타나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

(2) 일본

■ 고용 및 훈련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NPO 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체가 되어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커리어 컨설팅, 직업 생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거주안정계획’ 시행 (중국 광둥성)”,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508호(2021.9.15.).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취업이나 취학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과 대면하여 전문가가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하기 힘든 '일을 시작할 힘'을 이끌어내고, 직장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 주로 니트족 등 취업 희망자가 가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면접에 대한 공포, 일할 자신감의 결여, 블랙 기업 대처 등 다양한 고민을 커리어 컨설턴트, 임상심리사, 산업 카운셀러 등의 다양한 전문가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함께 해결
-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취업 정보센터, 고용정보센터, 보건·복지기관, 지자체, 협력기업 등 지역 공공지원기관과 다양한 민간단체가 공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 취업 희망자 지원
- 솔루션은 ①예약(전화, 메일) ②전문 스태프의 상담·면담 ③각종 지원 ④취업 ⑤정착·step up 지원 순서로 진행됨
 - 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착·step up 지원단계에서는 취업 후의 고민과 불안을 지원하고 업무 향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상담
- 2020년 기준 총 이용 건수는 43만 5,468건, 누적 이용 건수는 600만 건이며, 2020년 신규 등록자(1만 5,822명) 중 9,758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은 61.7%에 달함
- 헬로 워크>Hello Work)
 - 후생노동성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하여 만든 공공 직업안정소로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 소개, 진로 지도 등을, 구인자에게 정보제공, 고용보험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
 - 30대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영 헬로 워크',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헬로 워크'로 구분됨
 - 영 헬로 워크에서는 구인정보 검색 서비스, 정규직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 대상 직업 적성 진단, 업무 내용 비디오 소개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헬로 워크는 구인정보 검색 서비스, 구직 관련 상담(이력서 작성, 면접 등) 지원
- 유스 yell 인정제도(ユース yell 認定制度, youth yell)
 -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청년 채용·육성에 적극적이고, 고용한 청년의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스 yell 인정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도입
 - 유스 yell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청년층 대상(신규 졸업자 등) 정사원 구인 신청 또는 모집 ▲청년층의 채용과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유스 옐 인정기업이 되면 인증마크를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직업소개소 ‘헬로 워크’ 등에서 중점적으로 기업 홍보 가능, 각종 청년층 고용 및 육성 지원 관련 조성금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

〈표 2-24〉 유스 옐(youth yell) 인정기업 지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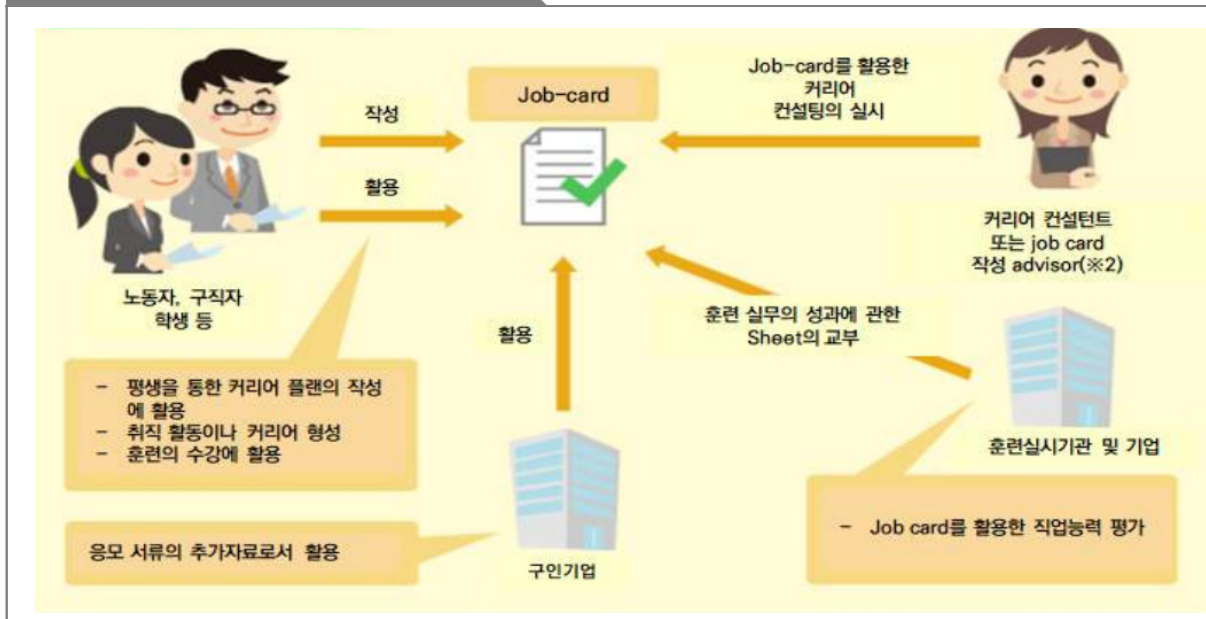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자사 상품 및 광고 등에 인정마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광고 등에 인정마크를 사용하여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인정 받은 우수기업 대외적 홍보 
헬로워크 등에서 중점적 기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과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 워크 등 지원 거점에서 인정기업 적극 홍보, 청년층 응모 증가 기대 가능
유스 옐 인정기업 한정 취직면접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 옐 인정기업 한정으로 각 시도부현 노동국 및 헬로 워크가 개최하는 취직면접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층 고용 및 육성 지원 관련 조성금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채용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인정기업이 조성금 활용시 일정액 가산
일본 정책금융 공고에 의한 저금리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 공고가 실시하는 ‘지역활성화 및 고용촉진자금(기업활력 강화 대출)’ 이용 시 기준 이율보다 낮은 저금리로 융자 가능
공공조달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중 가격 이외의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조달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유스 옐 인정기업에 가산점 부여

자료 : 김명중(2016).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pp.91-111.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00266.html>” (2022.3.22. 검색)을 참고하여 재구성.

■ ‘잡 카드’ 제도(Job card)

- 커리어 상담을 통해 기업 및 교육기관 등과 매칭되어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평가 결과를 직업능력 증명서(Job Card)인 이수자 실적 카드에 기재해 교부하는 제도
- 2008년 도입, 2015년 개편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구직자와 구인 기업체 간 매칭에 주로 활용
- 직업 계획 시 개인 관련 정보(이력, 경력 계획 등)를 활용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도구로 활용 가능

[그림 2-9] 잡 카드(Job card) 활용 예



자료 : 최은정(2020). “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잡 카드 홈페이지. “https://jobcard.mhlw.go.jp/job_card.html” (2022.3.22. 검색).

■ 일본판 듀얼시스템

- 청년층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직업훈련시스템으로 기업 실습훈련과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
- 대상은 35세 미만인 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 청년층을 수용하는 기업은 훈련에 드는 비용(수강료)을 지원하고, 사업주에는 커리어 형성 촉진 조성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 청년층 트라이얼 고용

- 공공 직업안정소의 소개를 받은 기업이 청년층을 시범 고용하는 제도로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에 대하여 판단한 후 양자가 합의하면 본 채용이 결정되는 제도
- 시용기간 중에는 기업 측에 장려금이 지급됨

3. 시사점

■ 국내 사례

-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려 및 대책 필요
-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특성 파악이 선제적으로 필요
- 수요 다양화, 요구 다양화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 지원보다 프로그램부터 먼저 같이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청년정책 제안사업을 배정하거나 청년위원 수를 확보하는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점차 ‘청년예산’ 전문으로 정책 제안, 입안 과정이 중요해짐
 - 정책 참여를 위해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려는 노력 확대 추세
- 청년에게 다양한 공공부문(고용, 주거, 금융, 건강, 의료, 교육 등)의 정보 및 자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문 간 협력과 원스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 필요
- 청년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 청년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여 청년 관련 정보와 정책을 발송함으로써 인지도와 참여도 제고 도모
- 청년을 위한 수당 지급이나 바우처 제공 시 지역경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

■ 해외 사례

-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거나, 권리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
-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본의 유스 엘 인증제도, 직무훈련 제공 경험이 적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키스타트 게이트웨이 등
-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직업 생활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필요

-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 단순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이 아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 정책 추진 필요
- 언제나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원센터 다양하게 조성·운영, 특히 지역 청년지원센터는 고용, 교육 훈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 3 장

구리시 환경 및 특성 분석

1. 구리시 일반 현황
2. 구리시 청년 현황 및 특성
3.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
4. 시사점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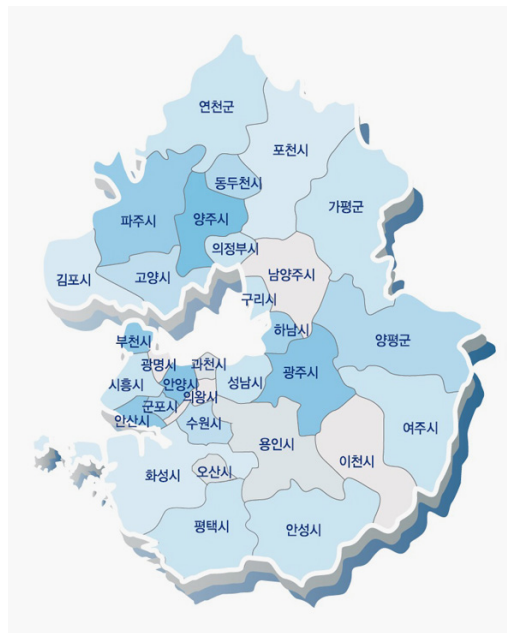
구리시 환경 및 특성 분석

1. 구리시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입지) 구리시는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남양주시와 경계
 - 서쪽으로는 아차산을 경계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접해 있음
 - 동쪽과 북쪽으로는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음
 - 총면적은 33.3km²로 경기도 전체 면적(10,171km²)의 0.33%를 차지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시·군에 해당

[그림 3-1] 구리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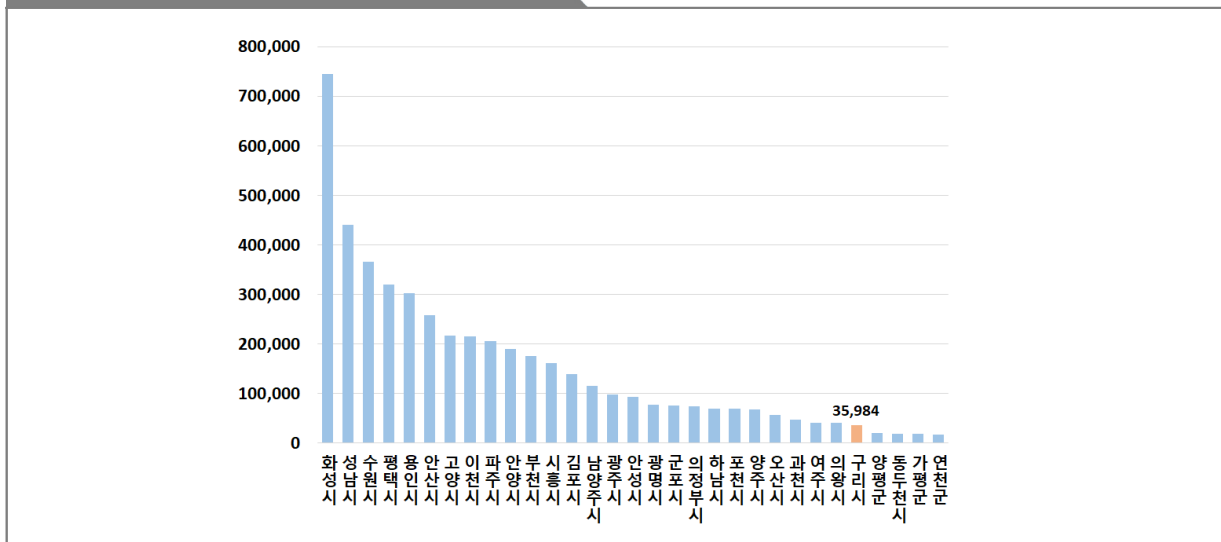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2022.1.21. 검색).

- (경제) 구리시의 경제 규모는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실업률은 높은 편
 - 2019년 기준 구리시의 GRDP는 3조 5,98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5%이며, 31개 시·군 중에서 27위에 해당
 - 구리시 고용률은 약 59.0% 수준으로 경기도와 비교하여 약간 낮은 편
 - 실업률은 증감 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2020년 상반기) 높아져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그림 3-2] 경기도 시·군별 GRDP(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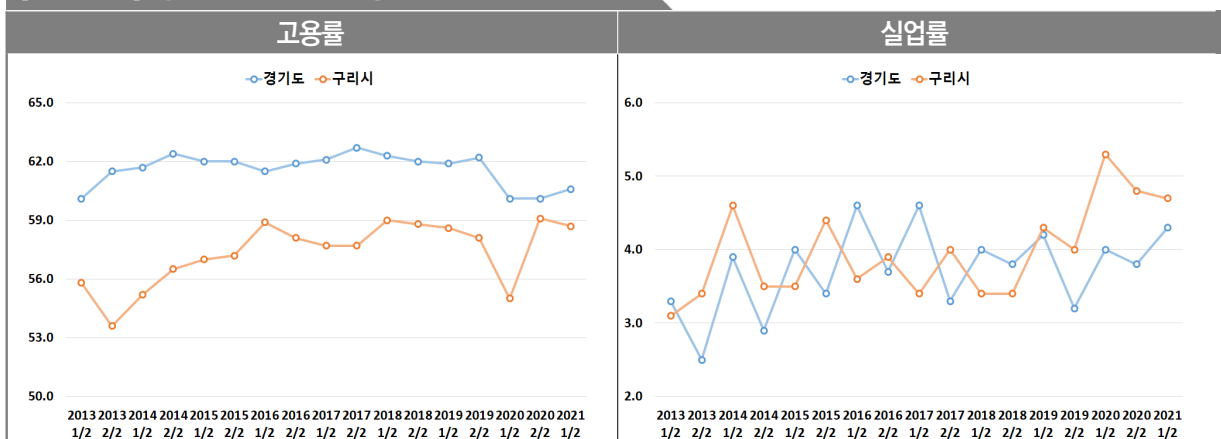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그림 3-3] 경기도와 구리시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산업) 구리시 산업구조를 보면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영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도매 및 소매업이 2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17.7%, 운수 및 창고업 12.4% 등으로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종사자 수 역시 도매 및 소매업이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1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해당 산업의 경기도 대비 비중도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보임

〈표 3-1〉 구리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2019년)

(단위 : 개, 명)

구 분	사업체			종사자		
	수	산업별 비중 (%)	경기도 대비 비중(%)	수	산업별 비중 (%)	경기도 대비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	0.0	0.2	2	0.0	0.0
광업	0	-	-	0	-	-
제조업	787	5.3	0.6	4,092	6.2	0.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0.0	0.5	87	0.1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2	0.1	1.0	336	0.5	1.2
건설업	457	3.1	1.5	4,031	6.1	1.4
도매 및 소매업	4,152	28.0	2.0	13,974	21.1	1.9
운수 및 창고업	1,838	12.4	2.0	4,106	6.2	1.6
숙박 및 음식점업	2,626	17.7	1.6	8,582	12.9	1.7
정보통신업	62	0.4	0.8	518	0.8	0.4
금융 및 보험업	162	1.1	2.2	2,902	4.4	2.8
부동산업	627	4.2	1.4	1,821	2.7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6	2.2	1.4	2,314	3.5	0.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9	1.4	1.4	2,834	4.3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	0.2	1.6	2,194	3.3	1.7
교육서비스업	781	5.3	1.7	5,105	7.7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19	4.2	1.8	7,395	11.1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82	3.3	1.6	1,624	2.4	1.4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643	11.1	1.8	4,466	6.7	2.2
전체	14,826	100.0	1.6	66,383	100.0	1.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2) 구리시 인구 현황

■ 구리시 인구 분포

- 구리시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 191,948명으로 감소 추세임
 - 경기도 총인구(13,565,450명) 중 1.4%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별로는 22번째임
 - 구리시 인구는 2010~2015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203,55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감소 추세임
 - 구리시 인구의 성비는 남자 49.6%, 여자 50.4%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세대수는 80,616개로 2010년과 비교하여 약간의 증가를 보임
 - 세대당 인구는 2010년 2.61명에서 2021년 2.38명으로 감소

〈표 3-2〉 구리시 세대 및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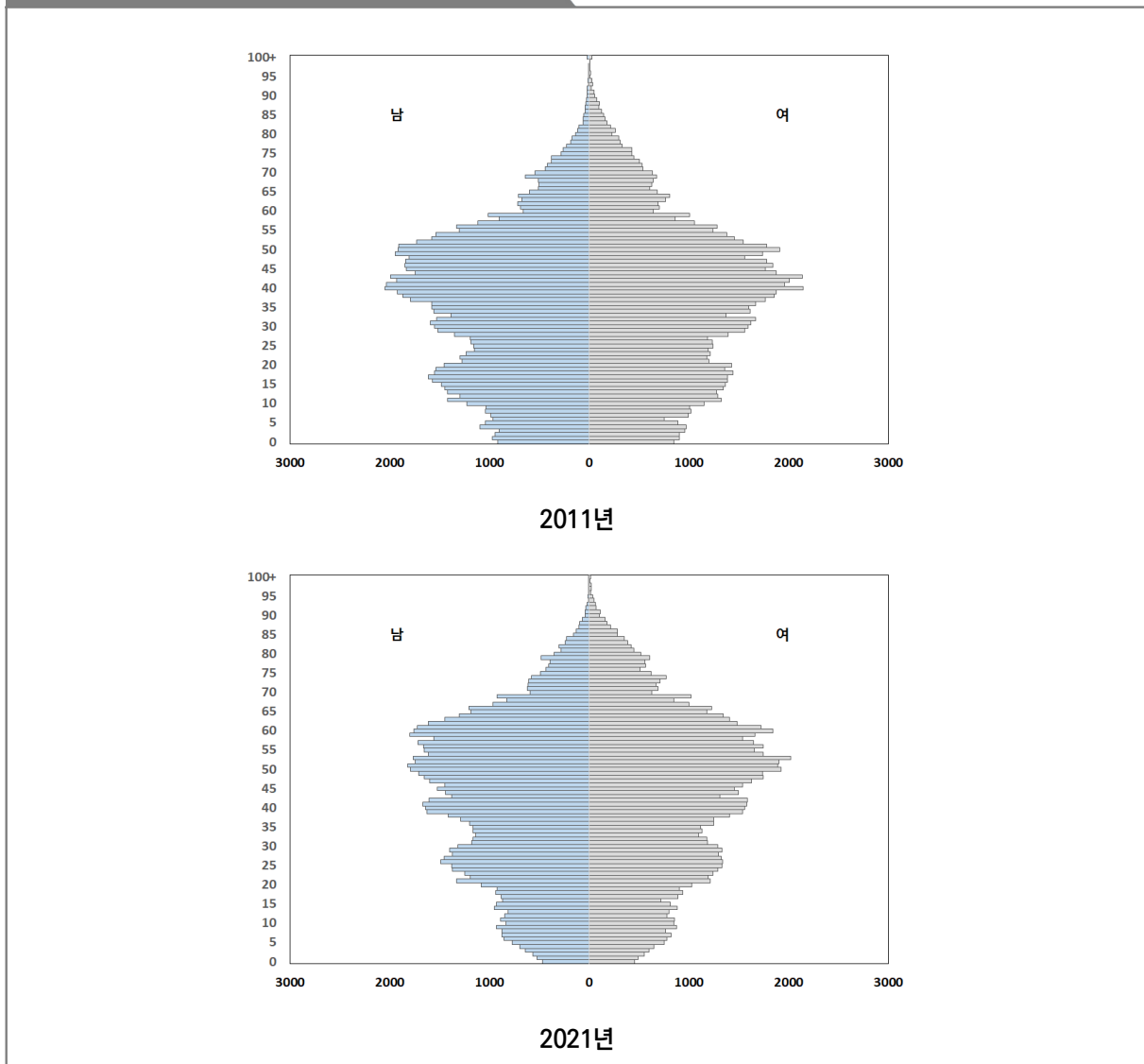
구 분	세대수	총인구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세대당 인구
2010	75,163	196,398	97,951	98,447	2.61
2011	74,473	194,881	97,313	97,568	2.62
2012	73,415	192,341	95,956	96,385	2.62
2013	72,581	189,680	94,679	95,001	2.61
2014	71,639	186,820	93,217	93,603	2.61
2015	71,602	186,721	93,096	93,625	2.61
2016	74,499	193,763	96,397	97,366	2.60
2017	77,306	200,042	99,390	100,652	2.59
2018	79,735	203,553	101,084	102,469	2.55
2019	79,870	199,265	98,968	100,297	2.49
2020	81,520	197,454	97,939	99,515	2.42
2021	80,616	191,948	95,172	96,776	2.38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구리시 인구피라미드 모양이 방추형에서 팽이형으로 변화
 - 특히,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아래가 좁고, 윗부분이 넓은 형태로 변화
 -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층 인구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3-4] 구리시 인구피라미드 변화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를 활용하여 재구성.

■ 구리시 연령대별 인구

- 구리시의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2021년 기준 40~64세의 중장년층이 81,8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39세의 청년층(52,857명) 순임
 - 유소년/청소년(0~18세) 29,433명, 65세 이상 노인 27,82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도별로 청년층(19~39세)과 유소년/청소년층(0~18세)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층(40~64세)과 노인층(65세 이상)은 증가추세를 보임
 - 유소년/청소년(0~18세)의 감소는 저출산, 노인(65세 이상)의 증가는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청년 인구는 약 10년간(2010~2021년) 10,000명 이상 감소

〈표 3-3〉 구리시 연령대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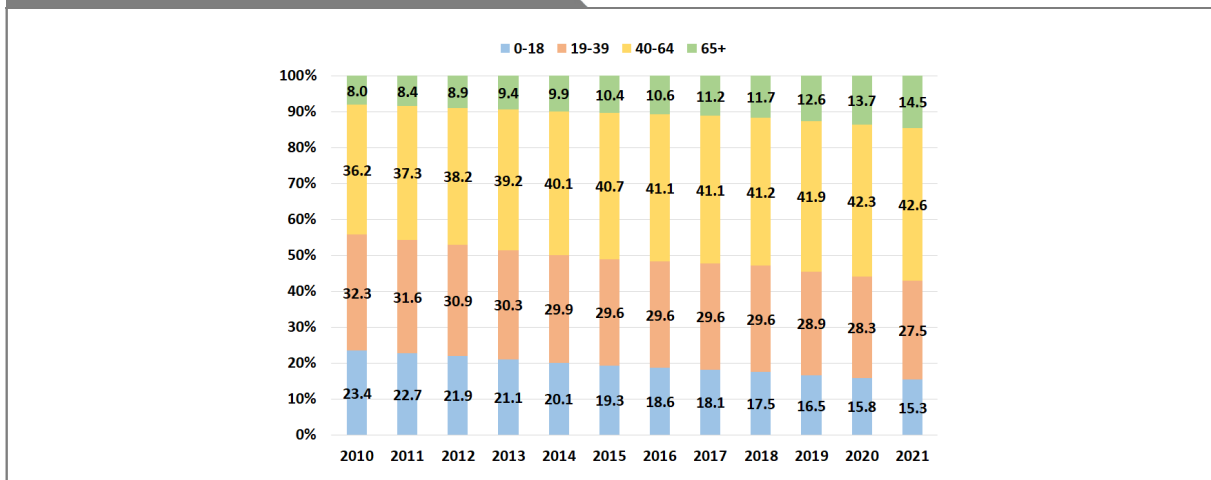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0~18세 (유소년/청소년)	19~39세 (청년)	40~64세 (중장년)	65세 이상 (노인)	합계
2010	45,994	63,481	71,189	15,734	196,398
2011	44,163	61,580	72,763	16,375	194,881
2012	42,144	59,514	73,525	17,158	192,341
2013	39,930	57,500	74,335	17,915	189,680
2014	37,555	55,896	74,841	18,528	186,820
2015	36,124	55,281	75,948	19,368	186,721
2016	36,091	57,352	79,697	20,623	193,763
2017	36,239	59,192	82,249	22,362	200,042
2018	35,591	60,211	83,951	23,800	203,553
2019	32,885	57,659	83,562	25,159	199,265
2020	31,190	55,813	83,489	26,962	197,454
2021	29,433	52,857	81,838	27,820	191,948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전체 인구에서 각 연령대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중장년(40~64세)이 4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19~39세) 27.5%, 유소년/청소년(0~18세) 15.2%의 순
 - 2010년 비교하여 유소년/청소년과 청년은 각각 8.1%p, 4.8%p 감소, 노인과 중장년은 각각 6.5%p, 6.4%p 증가
 -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5%로 집계됨에 따라 구리시도 고령사회로 진입함

[그림 3-5] 구리시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청년층, 노년층 인구 비율은 경기도 대비 약간 낮고, 전국 대비 높은 편
 - 구리시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27.5%)은 전국(26.9%)과 경기도(28.3%)의 중간 수준
 - 구리시 노년층 비중(14.5%)은 경기도(13.9%)와 비교하여 높고, 전국(17.1%)에 비해 낮음

〈표 3-4〉 연령대별 인구 비중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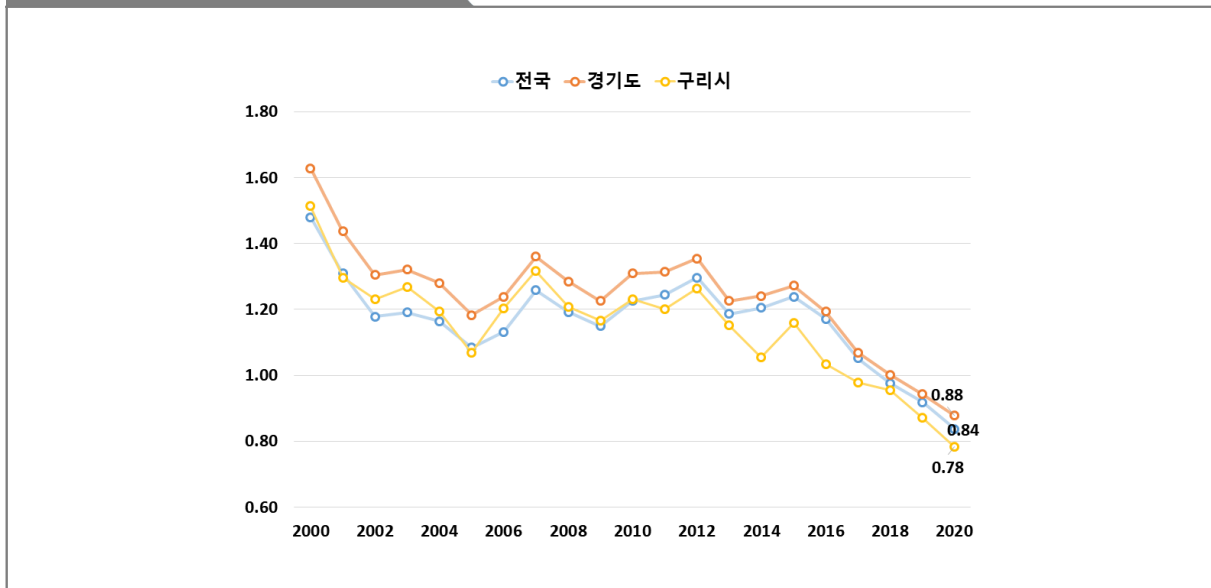
구 분	0~18세 (유소년/청소년)	19~39세 (청년)	40~64세 (중장년)	65세 이상 (노인)
전국	15.4	26.9	40.5	17.1
경기도	16.8	28.3	41.0	13.9
구리시	15.3	27.5	42.6	14.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는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며, 다른 연령대는 중간 정도 수준
 -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포천시(43.8%), 안산시(4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노인은 31개 시·군에서 15위, 청년층은 17위, 0~18세는 19위로 나타나 경기도 내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
 - 청년층은 수원시(31.6%), 오산시(30.8%), 안산시(30.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천군(27.7%)과 가평군(27.4%)은 노인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시에 유소년/청소년층 비중은 가장 낮은 지역임

- 유소년/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성시(21.9%), 김포시(20.4%) 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 중장년층(40~64세)의 비중은 전국과 경기도 대비 높은 편이며, 유소년/청소년층(0~18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대비 낮고 전국과 유사한 수준임
 -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경기도(41.0%)와 전국(40.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리시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유소년/청소년층 비중이 전국 및 경기도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리시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음
- 구리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78명으로 전국(0.84명)과 경기도(0.8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201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구리시는 부천시(0.75명), 성남시(0.77명)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해당

[그림 3-6]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동별 인구

- 구리시는 8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갈매동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갈매동은 2011년 3,054명에서 2016년 12,648명, 2021년 30,653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구리시 전체 인구도 증가하는 경향 발견
 -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동(36,266명)으로 구리시 전체의 19.4%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갈매동 16.0%의 순임
 - 수택1동과 교문1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 해당

〈표 3-5〉 구리시 동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6년	2021년	
			인구	비중
갈매동	3,054	12,648	30,653	16.0
동구동	43,371	41,388	37,266	19.4
인창동	26,331	25,308	23,258	12.1
교문1동	18,168	17,510	16,260	8.5
교문2동	25,521	24,224	21,817	11.4
수택1동	24,882	22,523	15,617	8.1
수택2동	28,762	26,404	25,158	13.1
수택3동	24,792	23,758	21,919	11.4
합계	194,881	193,763	191,948	100.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2. 구리시 청년 현황 및 특성

1) 구리시 청년 인구 현황

■ 구리시 청년 인구 분포

- 구리시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택1동임
 - 지역별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동구동 10,283명이며, 다음으로 갈매동 8,570명, 수택2동 6,941명의 순임
 - 지역별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택1동이 28.5%로 가장 높고, 인창동(28.2%), 갈매동(28.0%)의 순으로 나타남
 - － 교문2동은 청년 인구의 비중이 26.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청년 인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각 연령대의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
 - 갈매동은 35~39세의 비중이 39.5%로 높은 반면, 19~24세는 18.2%로 낮은 편임
 - 동구동과 교문2동은 19~24세의 비중이 각각 30.7%와 3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수택1동은 25~29세의 비중(30.0%)이 높아, 지역별로 연령 분포 차이가 발견됨

〈표 3-6〉 구리시 지역별 청년 인구 분포

(단위 : 명, %)

구 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청년인구	전체인구	청년인구 비중(%)
갈매동	1,564	1,707	1,916	3,383	8,570	30,653	28.0
동구동	3,155	2,609	2,266	2,253	10,283	37,266	27.6
인창동	1,753	1,808	1,470	1,523	6,554	23,258	28.2
교문1동	1,059	1,217	1,076	970	4,322	16,260	26.6
교문2동	1,812	1,415	1,180	1,258	5,665	21,817	26.0
수택1동	1,118	1,337	1,049	951	4,455	15,617	28.5
수택2동	1,906	1,975	1,563	1,497	6,941	25,158	27.6
수택3동	1,655	1,649	1,340	1,423	6,067	21,919	27.7
합계	14,022	13,717	11,860	13,258	52,857	191,948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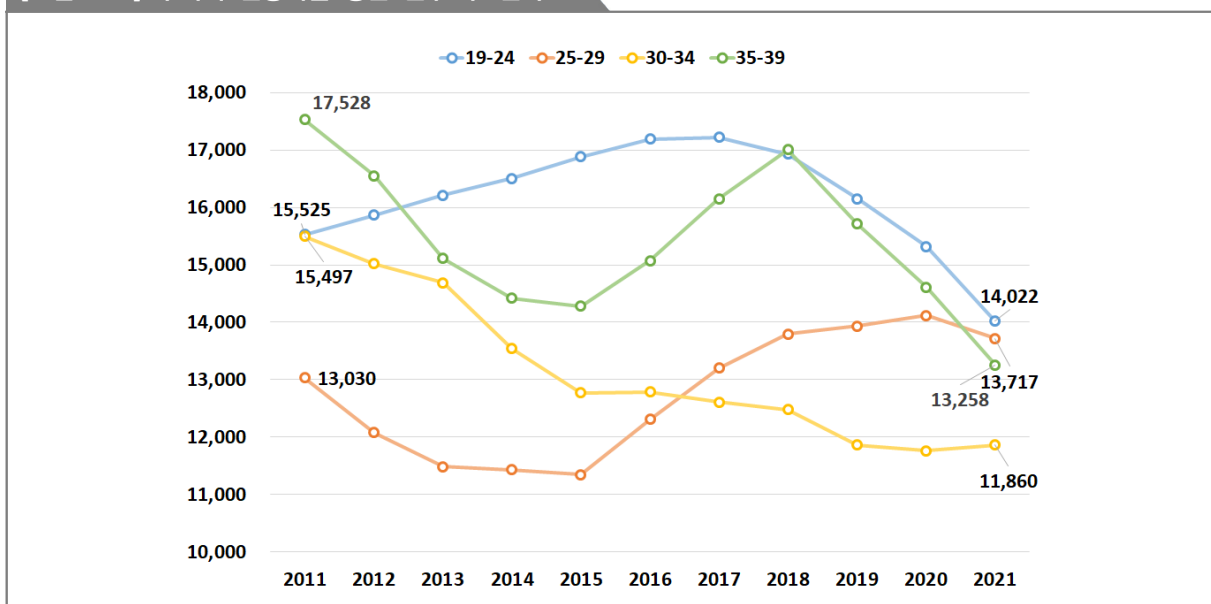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2.1.12. 검색).

주 : 2021년 12월 기준.

■ 구리시 연령대별 청년 인구수 및 비중 변화

- 구리시 청년 인구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약 8,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 청년 인구 중, 25~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는 2011년과 비교하여 수가 감소
 - 25~29세는 2011~2021년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로 2011년 13,030명에서 2021년 13,717명으로 소폭의 감소를 보임
 - 19~24세는 2011년 15,525명에서 증가하여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21년 14,022명으로 집계
 - 30~34세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11,860명으로 청년 인구가 가장 적은 연령대임
 - 35~39세는 2016년 갈매동으로의 인구가 유입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1년 13,258명으로 나타남

[그림 3-7] 구리시 연령대별 청년 인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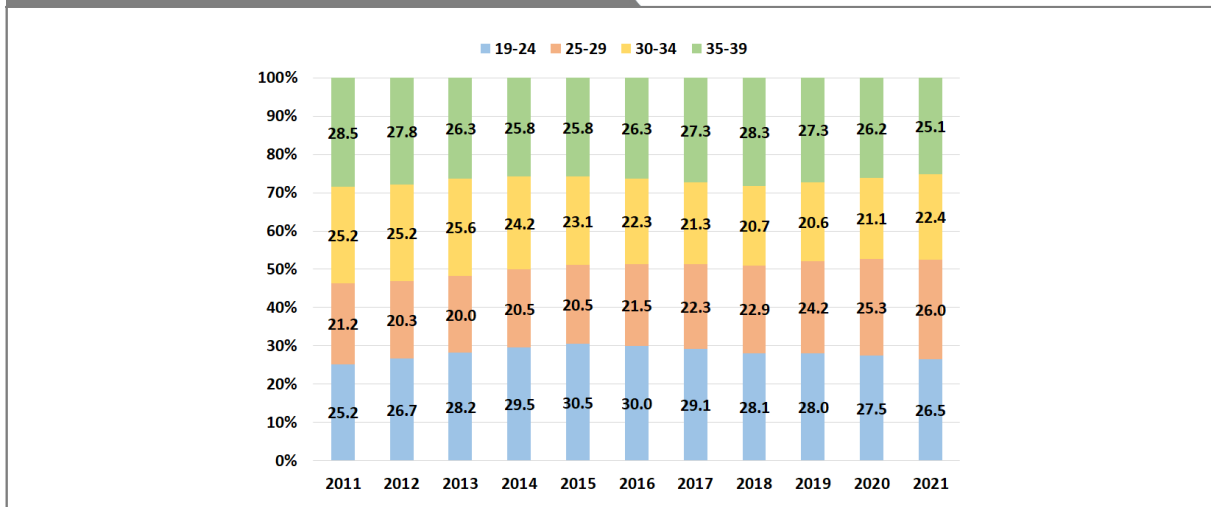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청년 인구에서 19~24세와 25~29세의 비중이 증가
 - 19~24세의 비중은 2011년 25.2%에서 2021년 26.5%로 1.3%p 증가, 25~29세는 2011년 21.2%에서 2021년 26.0%로 4.8%p 증가

- 35~39세는 해당 기간 동안 3.4%p가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를 보였으며, 30~34세도 2.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구리시 연령대별 청년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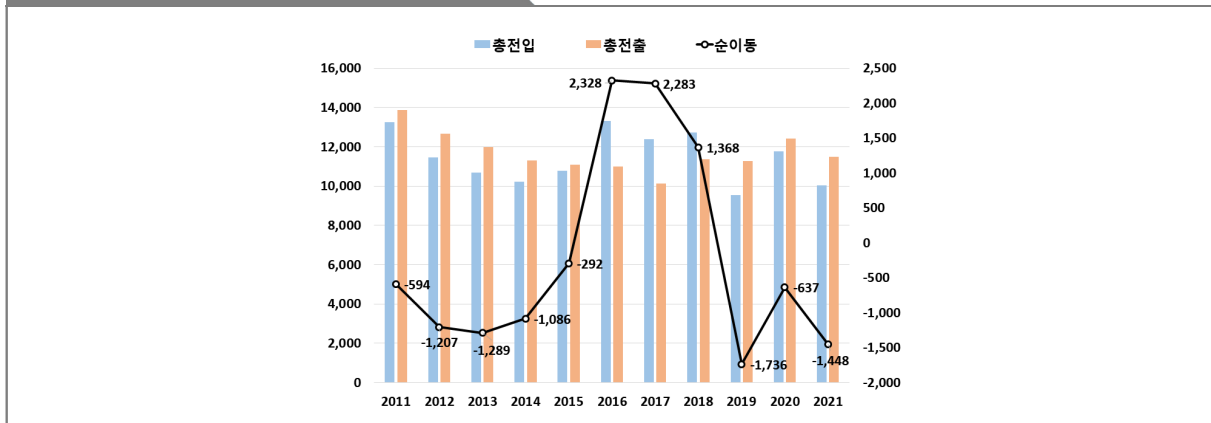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청년 인구 이동 변화

-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청년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순 이동자 수가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2011~2021년의 기간 동안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시기는 2016~2018년의 3년 동안이며, 나머지 시기에는 전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의 순 이동자 수가 가장 높은 시기는 2016년으로 전출인구에 비해 전입인구가 2,328명이 더 많았음
 - 갈매동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순 이동자 수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2017년에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이동자 수가 2,283명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2021년 기준 총 전입인구는 10,041명, 전출인구 11,489명으로 순 이동자는 -1,448명으로 나타남

[그림 3-9] 구리시 청년 인구 이동 추이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전출인구의 유형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시·군간 전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는 총 전출인구 13,864명에서 시·군간 전출(4,830명)이 34.8%, 시·도간 전출(4,676명) 33.7%로 큰 차이가 없음
 - 2021년 기준 시·도간 전출(31.7%)보다는 시·군간 전출(42.0%)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유입되는 청년 인구는 시·군간 이동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음
 - 2021년 기준 다른 시도에서 구리시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는 4,266명으로 42.5%이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는 청년 인구는 2,749명으로 27.4%임

〈표 3-7〉 구리시 지역별 청년 인구 이동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 이 동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2011	13,270	13,864	-594	4,358	3,488	4,830	5,424	4,676
2012	11,462	12,669	-1,207	3,624	3,266	4,548	4,572	4,497
2013	10,701	11,990	-1,289	3,629	2,937	4,159	4,135	4,202
2014	10,215	11,301	-1,086	3,321	2,814	4,094	4,080	3,886
2015	10,785	11,077	-292	3,617	2,779	3,836	4,389	3,624
2016	13,334	11,006	2,328	3,822	3,487	3,763	6,025	3,421
2017	12,401	10,118	2,283	3,144	3,415	3,280	5,842	3,694
2018	12,728	11,360	1,368	3,028	3,451	4,499	6,249	3,833
2019	9,532	11,268	-1,736	2,564	2,664	4,937	4,304	3,767
2020	11,782	12,419	-637	3,777	3,182	4,714	4,823	3,928
2021	10,041	11,489	-1,448	3,026	2,749	4,823	4,266	3,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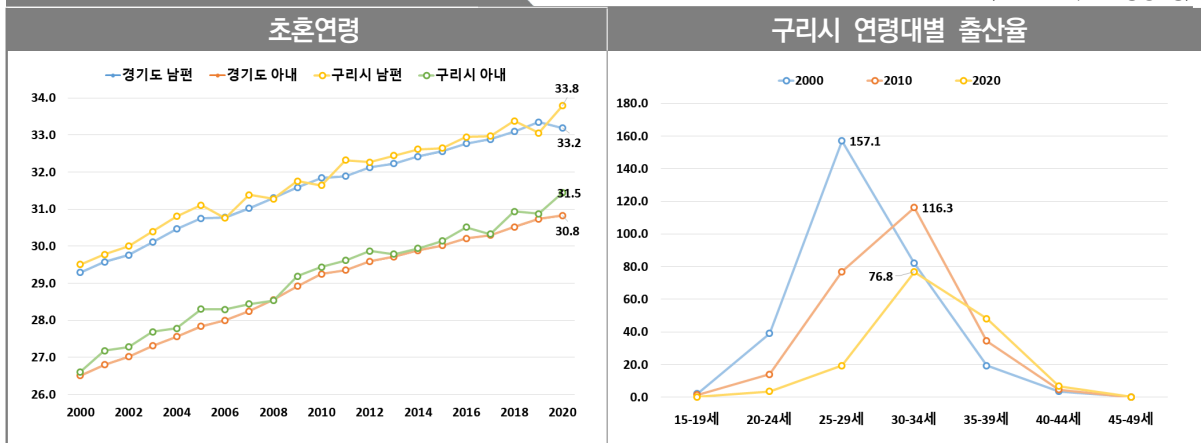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혼인 및 출산 수준

- 구리시 초혼연령은 경기도와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특히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짐
 - 2020년 기준 남자는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여 0.6세, 여자는 0.7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혼화 현상 확인 가능
- 구리시 연령대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출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발견
 - 그래프의 면적이 작아지는 것은 전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그래프 면적의 감소는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2000년에는 1.51명, 2010년 1.23명, 2020년 0.78명으로 줄어 들고 있음
 - 그래프의 정점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줌
 - 2000년에는 25~29세의 여자 천 명당 출생아 수가 157.1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대임
 - 2010년에는 출산을 하는 주 연령대가 30~34세(116.3명)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도 30~34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10] 초혼연령 및 출산율 변화

(단위 : 세,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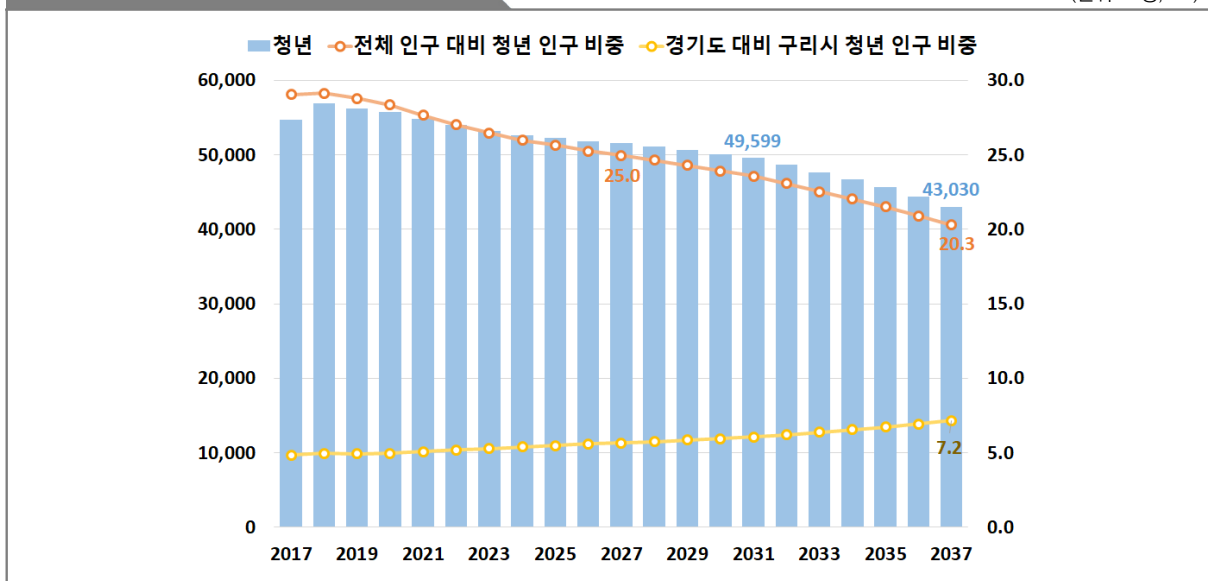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 구리시 청년 인구 추계

- 순이동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구리시 청년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예측 가능
 - 50,000명 이상을 유지했던 청년 인구는 2031년 이후 4만 명대로 떨어지고, 2037년에는 43,030명으로 예상
 - 구리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 25.0%, 2037년 2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 경기도 청년 인구 대비 구리시 청년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7년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1] 구리시 청년 인구 추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022.1.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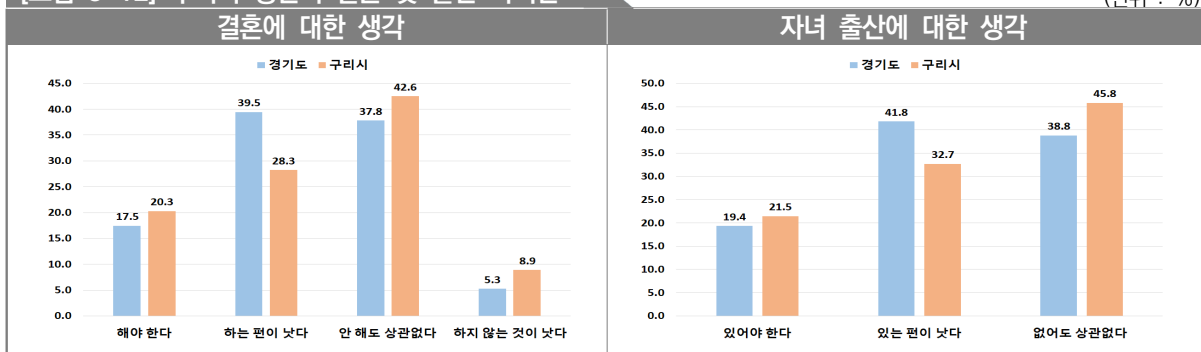
2) 구리시 청년의 삶의 질²¹⁾

■ 구리시 청년의 결혼/출산 가치관

- 구리시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구리시 청년 8.9%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 42.6%는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응답
 - － ‘하지 않는 것이 낫다’와 ‘안 해도 상관없다’를 합치면 전체의 51.5%로 과반수 이상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 － 경기도 전체 평균을 보면, 긍정적 의견(해야 한다+하는 편이 낫다)이 56.9%로 구리시 청년에 비해 8.4%p 높은 것으로 확인
 - 구리시 청년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낮은 편임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등의 순임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구리시 청년은 경기도 평균 대비 긍정적 의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21.5%, ‘있는 편이 낫다’ 32.7%로 둘을 합한 54.2%가 대체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45.8%로 경기도 평균(38.8%)에 비해 7.0%p 높음
 -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가평군, 성남시, 의왕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구리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3-12] 구리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단위 : %)



자료 : 경기연구원(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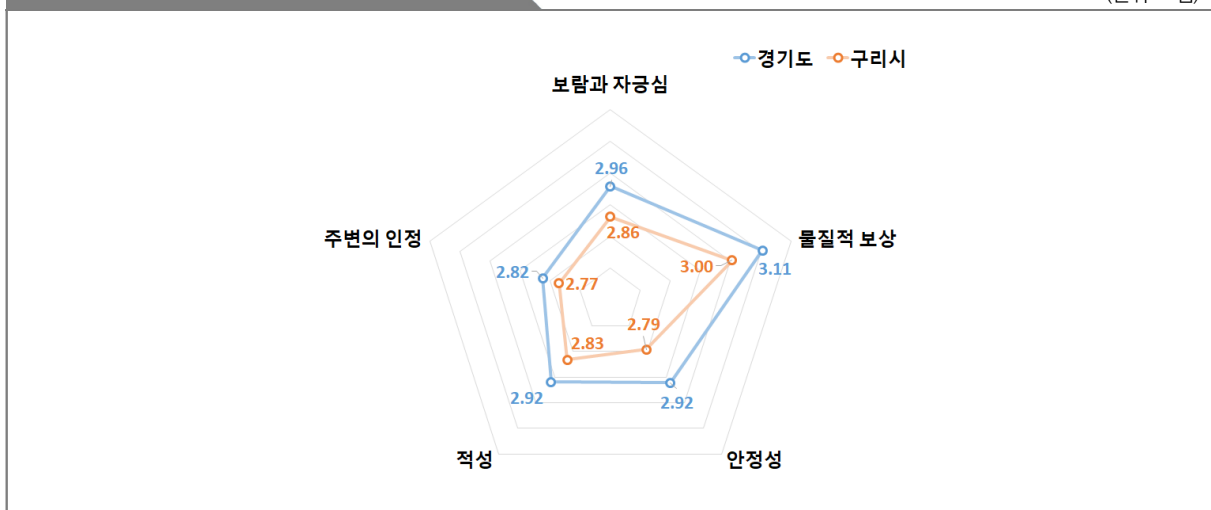
21)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 실시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구리시 청년이 인지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물질적 보상이 3.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람과 자긍심 2.86점, 적성 2.83점의 순임
 - － 주변의 인정(2.77점)과 안정성(2.79점)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 수준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격차가 제일 큰 항목은 ‘일자리 안정성’임
 - － 일자리 안정성은 경기도 2.92점, 구리시 2.79점으로 0.13점의 차이가 나타나며, 다음으로 물질적 보상 0.12점의 순임
 -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그림 3-13] 구리시 청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경기연구원(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주 : 4.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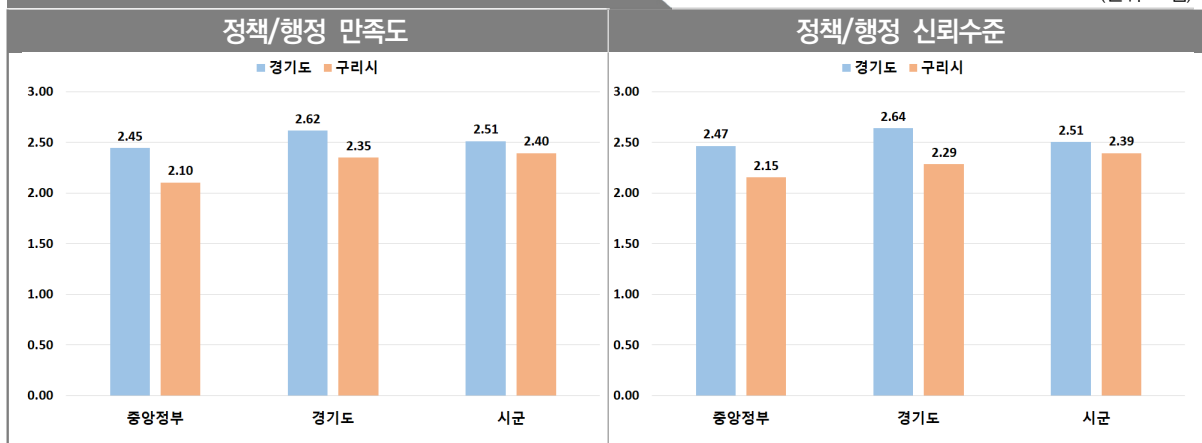
■ 구리시 청년의 행정 만족도 및 신뢰수준

- 구리시 청년이 인지하는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고, 특히 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평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이 인식하는 행정 만족도는 중앙정부 2.10점, 경기도 2.35점, 시·군 2.40점의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 중앙정부 2.45점, 경기도 2.62점, 시·군 2.51점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음
 -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 수준 차이가 0.35점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 0.27점, 해당 시·군에 대한 평가는 0.11점으로 격차가 가장 적은 편임
 -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31개 시·군 중 31위, 경기도 만족도 30위, 시·군 만족도 28위로 다른 시·군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신뢰수준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시·군에 대한 신뢰도가 2.3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 2.29점, 중앙정부 2.15점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도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신뢰수준은 경기도가 2.64점으로 가장 높고, 해당 시·군 2.51점, 중앙정부 2.47점의 순임
 - 경기도와 구리시 청년의 평균 차이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0.3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 0.32점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31개 시·군 중 30위, 경기도 신뢰수준 31위, 시·군 신뢰수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그림 3-14] 구리시 청년의 정책/행정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자료 : 경기연구원(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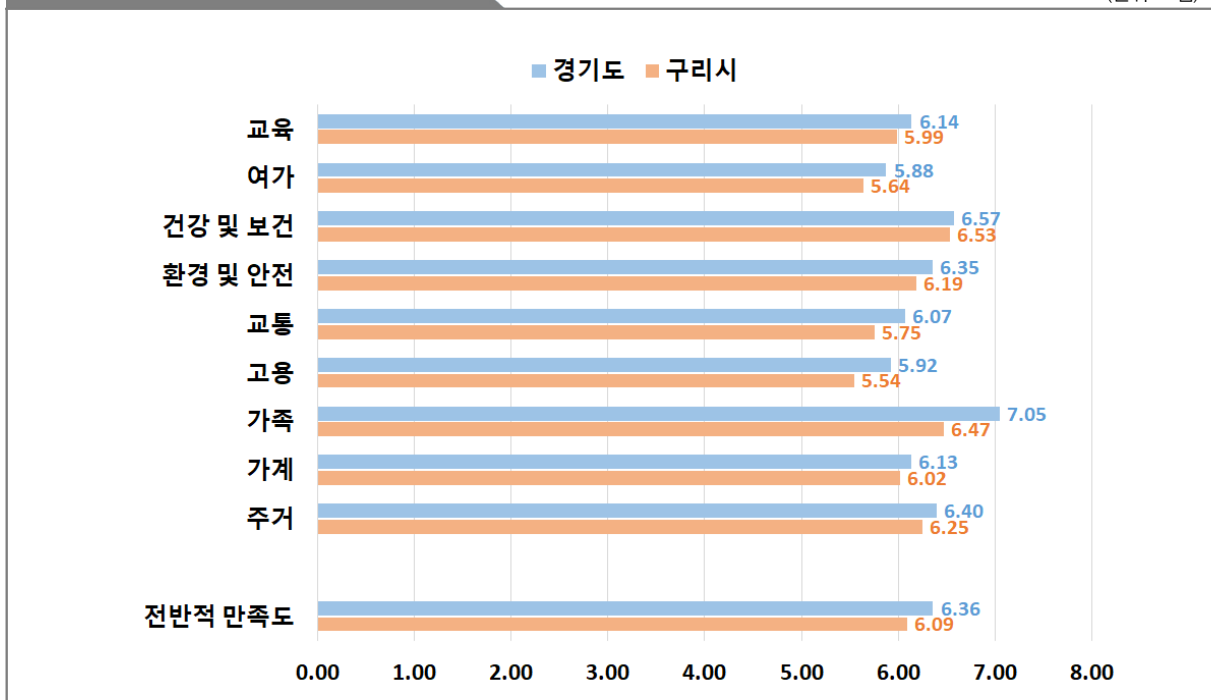
주 : 4.00점 만점.

■ 구리시 청년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

- 구리시 청년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며, 영역별 만족도도 대부분 낮은 수준임
 - 구리시 청년의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9점으로 경기도 평균 6.36점에 비해 약간 낮음
 - 경기도 평균과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가족(0.58점)이며, 다음으로 고용 0.38점, 교통 0.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03점으로 경기도 평균 6.31점에 비해 낮은 편이며, 31개 시·군 중에는 28순위로 집계됨
- 우울 정도는 3.96점으로 경기도 평균(3.9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군별 순위도 15위로 중간 수준임

[그림 3-15] 구리시 청년의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경기연구원(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주 : 10.00점 만점.

3.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²²⁾

■ 핵심 영역별 추진 과제

■ 참여·권리 분야 : 6개 사업

- 청년의 시정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구성을 통한 청년층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다양한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으로 청년 네트워크 강화
- 청년정책 통합 추진
 -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행정력 강화
 - 부서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에 국한된 청년정책의 확대 추진

■ 일자리(취업·창업) 분야 : 17개 사업

-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 복지·문화 분야 : 21개 사업

- 청년기본소득,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추구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여건 개선

■ 구리시 청년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와 일자리(취업, 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자리 분야에서 창업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창업 관련 지원 확대 필요
- 주거 분야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교육 분야는 역량 강화나 일자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22) 구리시(2021). 구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표 3-8〉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

분야	정책 과제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구리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날’ 기념 축제 운영 구리시 동별 청년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내 ‘청년정책코너’ 개설·운영
일자리 (취업,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사업(4유형) 일자리센터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3개과정)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2개과정) 구리시 청년 행복 인턴 사업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구리시 청년 취업사진 촬영 지원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마스터 셀러’ 교육 공원부지 등을 이용한 푸드트럭 설치 청년상인 아카데미(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회경제조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꿈꾸는 공작소 조성 및 운영(메이커스페이스) 기업체 특례보증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공유주방(공드린 주방) 운영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운영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신생아 출산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전검사/임신초기검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청소년 온라인 대학생 멘토 및 청소년 멘티 운영 지역예술인의 거리 예술 공연기획 확대 무료 야외결혼식장 대여 사업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카드 발송

자료 : 구리시(2021). “구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4. 시사점

■ 구리시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필요

- 구리시는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필요
-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지원을 늘리거나 유치하는 것이 필요
- 구리시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 필요
 - 특히, 2020년 상반기 실업률이 큰 폭으로 높아져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파악됨

■ 구리시 청년 인구 특성

- 구리시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 및 유소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5~29세를 제외한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52,000여 명을 기록
- 구리시 청년 인구의 이동 추이와 출산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3년 동안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순 이동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
 - 구리시는 2020년 기준 31개 시·군 중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파악하여 적절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031년 이후 4만 명대로 떨어지고, 2037년에는 43,03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리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37년 2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반면, 경기도 전체 청년 인구에서 구리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구리시 청년 인구와 관련된 정책 및 지원책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구리시 청년 인구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 구리시 청년 인구는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여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구리시 청년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마련 필요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구리시는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
 - 일자리 안정성은 구리시와 경기도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구리시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 구리시 청년의 만족도 및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구리시 청년의 생활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 경기도 전체와 가장 격차가 큰 가족, 고용, 교통 영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원인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 4 장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실태조사 분석
3. 시사점

제4장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 구리시 청년의 분야별 생활실태를 측정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분야별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함
 - 구리시 특성에 따른 청년의 분야별 실태와 생활 만족도, 정책 체감도 등을 파악
 - 구리시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을 살피기 위해 일반 현황을 포함하여 개인, 사회, 환경적 차원 등의 11개 영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 수행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설계 및 표본 특성
 - 모집단 : 구리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인구
 - 표본 추출 :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배분
 - 표본 크기 : 320명
 - 조사 방법 :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 조사(TAPI)
 -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1일 ~ 2월 16일

〈표 4-1〉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구리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조사 방법	•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 조사(TAPI)
표본 추출	•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유효 표본	• 320명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1일 ~ 2월 16일

〈표 4-2〉 조사 내용 및 문항

구 분	조사 문항	
가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및 육아 관련 필요 정책
고용 및 일자리(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 여부 종사상지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구직활동 어려움 구리시 중소기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재직기간 전공과 업무 일치도 이직 의향 및 이유 취업 희망 기업 유형 및 근로형태 고용 및 일자리 관련 필요 정책
가계 및 경제(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수입원 및 월 소득액 부담되는 지출 항목 차량 소유 여부 및 유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 부채 유무 및 발생 이유 경제 관련 필요 정책
주거 및 교통(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여부 및 주거비 마련 방법 주거 관련 어려움 통근/통학 여부 및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여부 및 불편한 점 주거 관련 필요 정책 교통비 및 통근/통학 소요시간
문화와 여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및 문화활동 관심도 문화 및 여가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및 문화활동 지역 문화 관련 필요 정책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활동 참여빈도 구리시 거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도움 여부 및 인원 수 구리시 거주 원하지 않는 이유
주관적 웰빙(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행복, 우울 및 자살생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만족도 및 영역별 만족도 가장 큰 고민 및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 상담이 필요한 주제
정책 체감도(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청년정책 대상 판별 기준 청년정책 관심 정도 청년 위한 우선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정책 만족도 선호하는 청년지원 방식 청년정책 수립 참여 의향 및 방법 청년정책 홍보 수단
청년 공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 공간 이용 경험 및 비이용 이유 청년 공간 이용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공간 이용 목적 청년 공간 위한 지원책
역량(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필요한 역량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개발 위해 필요한 정책 발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항목
창업(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관심도 창업 이유 구리시 창업지원 정보 획득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창업 형태 구리시 창업지원 인지도 창업 초기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2. 실태조사 분석

1) 응답자 현황

■ 응답자 일반 특성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응답자 320명 중 남자는 50.3%, 여자는 49.7%였으며, 연령분포는 만 19~24세 26.3%, 만 25~29세 25.6%, 만 30~34세 22.5%, 만 35~39세 25.6%로 집계됨

〈표 4-3〉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전체		(320)	100.0				
성별	남	(161)	50.3	주택형태	일반주택	(106)	33.1
	여	(159)	49.7		아파트	(194)	60.6
연령	만 19~24세	(84)	26.3		오피스텔 및 기타	(20)	6.3
	만 25~29세	(82)	25.6	소득	50만 원 미만	(28)	8.8
	만 30~34세	(72)	22.5		50~150만 원 미만	(63)	19.7
	만 35~39세	(82)	25.6		150~250만 원 미만	(74)	23.1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	22.2		250~350만 원 미만	(108)	33.8
	대학 재학	(63)	19.7		350~450만 원 미만	(37)	11.6
	대학 졸업	(181)	56.6		450만 원 이상	(10)	3.1
	대학원 이상	(5)	1.6	취업 여부	취업	(222)	69.4
혼인상태	미혼	(227)	70.9		미취업	(98)	30.6
	배우자 있음	(93)	29.1	구리시 거주기간	2년 미만	(49)	15.3
거주지	갈매동	(52)	16.3		2~5년 미만	(62)	19.4
	동구동	(63)	19.7		5~15년 미만	(89)	27.8
	인창동	(40)	12.5		15~25년 미만	(77)	24.1
	교문1동	(25)	7.8		25년 이상	(43)	13.4
	교문2동	(35)	10.9	독립 여부	독립	(140)	43.8
	수택1동	(26)	8.1		비독립	(180)	56.3
	수택2동	(43)	13.4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15.3
	수택3동	(36)	11.3		다인 가구	(271)	84.7

- 현재 학력은 대학 졸업이 56.6%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졸 이하 22.2%, 대학 재학 19.7%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은 1.6%로 소수를 차지
- 혼인상태는 미혼이 7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혼인상태를 보면 만 35~39세 18.3%, 만 30~34세의 70.8%는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동구동이 1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매동(16.3%), 수택2동(13.4%), 인창동(12.5%) 등의 순임
 - 갈매동은 만 35~39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구동과 교문2동은 만 19~24세, 수택1동은 만 25~29세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연령별 분포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음
- 월 소득은 250~350만 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150~250만 원 미만(23.1%), 50~150만 원 미만(19.7%)의 순이었으며, 월 소득 평균액은 약 231만 원임
-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 중인 청년이 69.4%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66.2%), 임시근로자(14.9%),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는 응답자는 140명으로 43.8%이며, 이 중 1인 가구의 형태로 혼자 사는 청년은 49명으로 나타남
- 구리시 거주기간은 5~15년 미만이 27.8%로 가장 많고, 15~25년 미만(24.1%), 2~5년 미만(19.4%)의 순이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1.9년임

2) 가족

■ 결혼에 대한 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63.1%, 중립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36.9%로 나타남
 - 긍정적 의견에는 ‘하는 편이 낫다’가 39.7%, ‘해야 한다’ 23.4%이며, 부정/중립 의견에는 ‘안 해도 상관없다’ 34.1%, ‘하지 않는 것이 낫다’ 2.8%임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여자(56.6%)에 비해 남자(69.6%)가 13.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낮은 연령일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감소
 - 만 19~24세는 46.4%, 만 25~29세 56.1%, 만 30~34세 65.3%, 만 35~39세 85.4%의 순임
- 현재 취업 중인 응답자(65.3%)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58.2%)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결혼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낮다	①+②	③ 안 해도 상관없다	④ 하지 않는 것이 낮다	③+④
전체		(320)	23.4	39.7	63.1	34.1	2.8	36.9
성별	남	(161)	26.1	43.5	69.6	28.6	1.9	30.4
	여	(159)	20.8	35.8	56.6	39.6	3.8	43.4
연령	만 19~24세	(84)	20.2	26.2	46.4	50.0	3.6	53.6
	만 25~29세	(82)	17.1	39.0	56.1	40.2	3.7	43.9
	만 30~34세	(72)	22.2	43.1	65.3	31.9	2.8	34.7
	만 35~39세	(82)	34.1	51.2	85.4	13.4	1.2	14.6
취업 여부	취업	(222)	22.5	42.8	65.3	32.4	2.3	34.7
	미취업	(98)	25.5	32.7	58.2	37.8	4.1	41.8

■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있어야 한다+있으면 좋겠다)은 59.1%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자(64.0%)가 여자(54.1%)에 비해 9.9%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만 35~39세에서 가장 높고, 만 19~24세가 가장 낮음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응답자로 한정하여 보면, 자가나 전세로 거주중인 청년들의 약 84.0%가 긍정적 의견을 지닌 반면, 월세는 58.3%가 긍정적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 4-5〉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있어야 한다	② 있으면 좋겠다	①+②	③ 없어도 상관없다	④ 자녀를 원치 않는다	③+④
전체		(320)	19.1	40.0	59.1	37.2	3.8	40.9
성별	남	(161)	19.3	44.7	64.0	32.9	3.1	36.0
	여	(159)	18.9	35.2	54.1	41.5	4.4	45.9
연령	만 19~24세	(84)	7.1	32.1	39.3	52.4	8.3	60.7
	만 25~29세	(82)	7.3	47.6	54.9	43.9	1.2	45.1
	만 30~34세	(72)	15.3	37.5	52.8	43.1	4.2	47.2
	만 35~39세	(82)	46.3	42.7	89.0	9.8	1.2	11.0
점유 형태	자가	(39)	43.6	41.0	84.6	12.8	2.6	15.4
	전세	(69)	36.2	47.8	84.1	13.0	2.9	15.9
	월세	(24)	12.5	45.8	58.3	62.5	4.2	66.7
	무상	(2)	0.0	0.0	0.0	100.0	0.0	100.0

주 : 점유형태는 부모님과 독립하여 살고 있다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 시급한 출산 및 육아 대책

- 가장 확대가 시급한 출산 및 육아 대책에 대해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고, ‘출산장려금 확대’ 16.6%,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14.4%의 순임
-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 다음으로 남자는 ‘출산장려금 확대’(19.9%)가 높았고, 여자는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15.1%)와 ‘방과후 서비스 및 아동수당 확대’(10.7%)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출산 및 육아 대책은 연령별 분포의 차이도 확인 가능한데, 만 19~24세는 ‘출산장려금 확대’라는 응답이 23.8%로 높게 나타났고, 만 25~29세는 ‘육아휴직 장려’(13.4%), 만 35~39세는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19.5%)와 ‘방과후 서비스 및 아동수당 확대’(13.4%)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미혼 응답자는 ‘출산장려금 확대’나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배우 응답자는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와 ‘방과 후 서비스 및 아동수당 확대’ 등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4-6〉 확대 시급한 출산 및 육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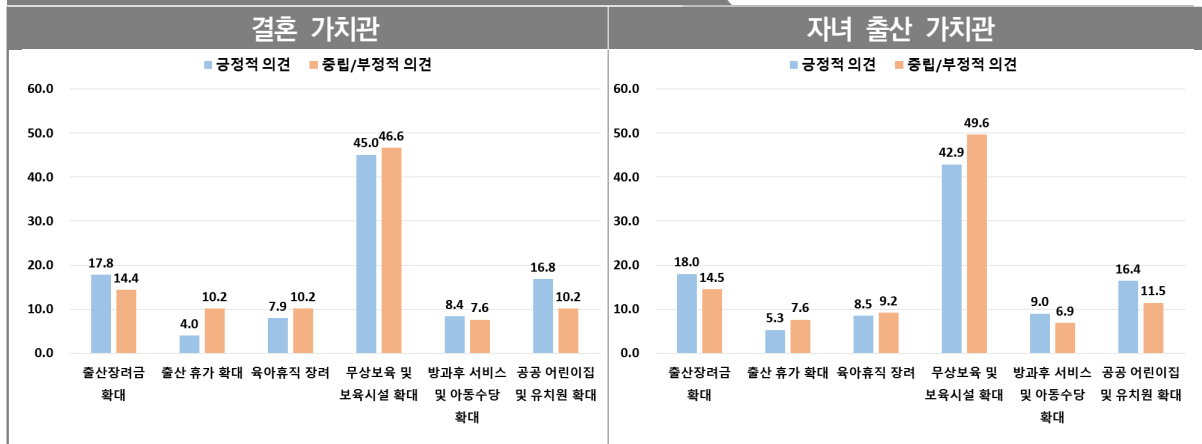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확대	육아 휴직 장려	무상 보육 및 보육 시설 확대	방과후 서비스 및 아동 수당 확대	공공 어린이 집 및 유치원 확대	기타	계
전체		(320)	16.6	6.3	8.8	45.6	8.1	14.4	0.3	100.0
성별	남	(161)	19.9	4.3	8.7	47.2	5.6	13.7	0.6	100.0
	여	(159)	13.2	8.2	8.8	44.0	10.7	15.1	0.0	100.0
연령	만 19~24세	(84)	23.8	3.6	8.3	45.2	7.1	10.7	1.2	100.0
	만 25~29세	(82)	18.3	8.5	13.4	46.3	1.2	12.2	0.0	100.0
	만 30~34세	(72)	13.9	9.7	4.2	45.8	11.1	15.3	0.0	100.0
	만 35~39세	(82)	9.8	3.7	8.5	45.1	13.4	19.5	0.0	100.0
혼인 상태	미혼	(227)	18.5	6.6	10.1	47.6	6.2	10.6	0.4	100.0
	배우자 있음	(93)	11.8	5.4	5.4	40.9	12.9	23.7	0.0	100.0

-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확대가 시급한 육아 및 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17.8%) 및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16.8%)라는 응답이 높고, 결혼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장려’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시급한 확대 정책의 응답 비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은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로 6.7%p이며, 다음으로 ‘출산 휴가 확대’ 6.2%p의 차이가 발견됨
- 출산에 대해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고, 긍정적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출산장려금 확대’와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 따라 확대가 시급한 정책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 6.8%p,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5.0%p임

[그림 4-1] 결혼/출산 가치관에 따른 출산 및 육아 대책

(단위 : %)



3) 고용 및 일자리

(1) 경제활동

■ 취업 여부

- 응답자의 69.4%가 지난 일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이라고 응답

〈표 4-7〉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계
전체		(320)	68.8	0.6	30.6	100.0
성별	남	(161)	65.4	0.0	34.6	100.0
	여	(159)	66.7	1.6	31.7	100.0
연령	만 19~24세	(84)	62.5	2.5	35.0	100.0
	만 25~29세	(82)	64.0	0.0	36.0	100.0
	만 30~34세	(72)	57.1	0.0	42.9	100.0
	만 35~39세	(82)	73.1	0.0	26.9	100.0
독립 여부	독립	(140)	88.4	0.0	11.6	100.0
	비독립	(180)	72.2	0.0	27.8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74.5	1.2	24.2	100.0
	다인 가구	(271)	62.9	0.0	37.1	100.0

- 취업 중인 남자는 75.8%로 여자(62.9%)보다 12.9%p 높고, 연령별로는 만 30~34세 88.9%, 만 25~29세 79.3% 등의 순임
-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거나 1인 가구의 형태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 경험 및 구직 활동하지 않은 이유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89.3%가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9.2%임

〈표 4-8〉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일자리를 구해보았고,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구해보았지만, 일자리가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	계
전체		(98)	9.2	1.0	89.8	100.0
성별	남	(39)	0.0	0.0	100.0	100.0
	여	(59)	25.0	0.0	75.0	100.0
연령	만 19~24세	(52)	14.3	7.1	78.6	100.0
	만 25~29세	(17)	0.0	0.0	100.0	100.0
	만 30~34세	(8)	6.7	0.0	93.3	100.0
	만 35~39세	(21)	0.0	0.0	100.0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3)	0.0	0.0	100.0	100.0
	대학 재학	(53)	10.0	0.0	90.0	100.0
	대학 졸업	(31)	10.3	2.6	87.2	100.0
	대학원 이상	(1)	8.5	0.0	91.5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6)	1.9	0.0	98.1	100.0
	50~150만 원 미만	(45)	35.3	5.9	58.8	100.0
	150~250만 원 미만	(4)	12.5	0.0	87.5	100.0
	250~350만 원 미만	(15)	4.8	0.0	95.2	100.0
	350~450만 원 미만	(7)	7.7	0.0	92.3	100.0
	450만 원 이상	(1)	1.9	1.9	96.2	100.0

-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만 25~29세가 3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 30~34세 12.5%의 순임
- 대학 졸업자가 22.6%로 가장 높았고,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응답자 15.4%로 높은 편임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 재학 및 학업 준비’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사,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30.7%의 순임
- 남자는 ‘학교 재학 및 학업 준비’가 88.2%, 여자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가 50%로 높은 비중 차지

■ 업무와 전공의 일치도

-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최종학교 전공(계열)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46.7%,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3%임

〈표 4-9〉 업무와 전공 일치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매우 불일치	② 약간 불일치	①+②	③ 약간 일치	④ 매우 일치	③+④	계
전체		(197)	15.7	37.6	53.3	29.9	16.8	46.7	100.0
성별	남	(108)	18.5	39.8	58.3	26.9	14.8	41.7	100.0
	여	(89)	12.4	34.8	47.2	33.7	19.1	52.8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	15.7	37.6	53.3	29.9	16.8	46.7	100.0
	대학 재학	(7)	71.4	28.6	100.0	0.0	0.0	0.0	100.0
	대학 졸업	(148)	14.9	27.0	41.9	36.5	21.6	58.1	100.0
	대학원 이상	(4)	0.0	25.0	25.0	50.0	25.0	75.0	100.0
혼인 상태	50~150만 원 미만	(14)	57.1	28.6	85.7	7.1	7.1	14.3	100.0
	150~250만 원 미만	(61)	9.8	55.7	65.6	26.2	8.2	34.4	100.0
	250~350만 원 미만	(85)	11.8	35.3	47.1	31.8	21.2	52.9	100.0
	350~450만 원 미만	(28)	14.3	21.4	35.7	42.9	21.4	64.3	100.0
	450만 원 이상	(9)	33.3	0.0	33.3	33.3	33.3	66.7	100.0

주 :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임.

- 일치한다는 응답에서는 ‘매우 일치한다’ 16.8%, ‘일치한다’ 29.9%로 나타났으며, 여자 52.8%로 남자(41.7%)에 비해 11.1%p 높음

- 일의 내용과 전공의 일치도는 대학 졸업 58.1%이며, 고졸 이하는 7.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450만 원 이상은 66.7%, 350~450만 원 미만 64.3%, 250~350만 원 미만 52.9%로 나타나며, 50~150만 원 미만에서는 14.3%로 매우 낮음

■ 현재 직장 만족도

- 현재 직장의 만족 수준에 대해 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75.2%로 가장 높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 46.4%로 가장 낮음
- ‘근로시간’(72.1%), ‘근로 환경’(70.3%)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또는 소득’(64.4%), ‘일자리 안정성’(62.2%) 등은 만족도가 낮은 항목임
- 교육수준에 따른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특히 대졸과 고졸 이하의 차이가 큰 편
 - 차이가 큰 항목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인데, 대학 졸업 59.3%, 고졸 이하 15.5%로 43.8%p 차이가 있음
 - 대졸-고졸 이하의 직장 만족도 차이는 ‘일자리 안정성’이 33.0%p로 가장 높고, ‘근로 환경’ 26.9%p, ‘임금 또는 소득’ 23.7%p 등의 순임

〈표 4-10〉 현재 직장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임금 또는 소득	일자리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주변의 인정
전체		(222)	64.4	62.2	75.2	70.3	72.1	46.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8)	48.3	39.7	65.5	51.7	69.0	15.5
	대학 재학	(10)	40.0	30.0	40.0	50.0	80.0	20.0
	대학 졸업	(150)	72.0	72.7	81.3	78.7	72.0	59.3
	대학원 이상	(4)	75.0	75.0	75.0	75.0	100.0	75.0

주 :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

(2) 희망하는 기업 유형 및 근로형태

■ 희망하는 취업 유형

- 현재 미취업자와 이직을 원하는 응답자들 희망 취업 유형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업’ 27.3%, ‘정부(중앙 및 지방 공기업)’ 14.1%의 순임
- 남자는 ‘대기업’이라는 응답이 39.3%로 높고, 여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43.1%로 상대적으로 높음
- 희망하는 기업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 층은 임금이나 소득, 고연령대는 안정적인 유형을 가장 많이 응답함
 - 만 19~24세는 ‘대기업’이라는 응답 44.4%, 만 30~34세와 만 35~39세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라는 응답이 각각 53.8%와 55.6%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둘 의향이 있는 취업자는 50.0%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대기업’ 26.7%가 주된 비중을 차지
- 미취업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34.7%, ‘대기업’ 27.6%의 순서는 취업자와 동일하지만 ‘중소기업’과 ‘정부’라는 응답도 각각 13.3%, ‘비영리기관’ 9.2%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

〈표 4-11〉 희망 기업 유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정부(중앙 및 지방 공기업)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계
전체		(128)	27.3	11.7	38.3	14.1	7.0	1.6	100.0
성별	남	(56)	39.3	12.5	32.1	12.5	3.6	0.0	100.0
	여	(72)	18.1	11.1	43.1	15.3	9.7	2.8	100.0
연령	만 19~24세	(63)	44.4	7.9	31.7	11.1	3.2	1.6	100.0
	만 25~29세	(25)	20.0	12.0	28.0	28.0	8.0	4.0	100.0
	만 30~34세	(13)	7.7	30.8	53.8	7.7	0.0	0.0	100.0
	만 35~39세	(27)	3.7	11.1	55.6	11.1	18.5	0.0	100.0
취업 여부	취업	(30)	26.7	6.7	50.0	16.7	0.0	0.0	100.0
	미취업	(98)	27.6	13.3	34.7	13.3	9.2	2.0	100.0

■ 희망하는 근로 형태

-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78.9%로 압도적으로 높고, ‘프리랜서’ 11.7%, ‘파트타임 임금근로자’ 9.4%의 순임
-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응답한 비율은 남자는 91.1%, 여자 69.4%로 남자가 더 높은 반면, ‘프리랜서’는 여자(18.1%)가 남자(3.6%)에 비해 높은 편임
- ‘프리랜서’를 원하는 응답은 만 35~39세, 유배우자, 미취업자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희망 근로 형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전일제 임금근로자	파트타임 임금근로자	프리랜서	계
전체		(128)	78.9	9.4	11.7	100.0
성별	남	(56)	91.1	5.4	3.6	100.0
	여	(72)	69.4	12.5	18.1	100.0
연령	만 19~24세	(63)	92.1	3.2	4.8	100.0
	만 25~29세	(25)	84.0	8.0	8.0	100.0
	만 30~34세	(13)	92.3	0.0	7.7	100.0
	만 35~39세	(27)	37.0	29.6	33.3	100.0
혼인 상태	미혼	(94)	90.4	4.3	5.3	100.0
	배우자 있음	(34)	47.1	23.5	29.4	100.0
취업 여부	취업	(30)	96.7	0.0	3.3	100.0
	미취업	(98)	73.5	12.2	14.3	100.0

(3)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가장 필요한 고용 정책으로 전체의 49.1%가 ‘일자리 정보 제공’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6.3%,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14.1%의 순임
- 남자와 여자 모두 ‘일자리 정보 제공’을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선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남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16.1%), 여자는 ‘적성 및 진로 상담 서비스’(11.3%)가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은 정책에 해당
- 고졸 이하에서는 ‘구직 활동 비용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이 14.1%로 대학 졸업(7.2%)에

비해 높은 편임

- 미취업자에서는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21.4%로 취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3〉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 활동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 그램	창업 환경 개선	직업 교육 프로 그램 제공	적성 및 진로 상담 서비스	계
전체		(320)	49.1	9.4	16.3	2.5	14.1	8.8	100.0
성별	남	(161)	47.2	9.3	17.4	3.7	16.1	6.2	100.0
	여	(159)	50.9	9.4	15.1	1.3	11.9	11.3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50.7	14.1	11.3	5.6	14.1	4.2	100.0
	대학 재학	(63)	46.0	9.5	19.0	0.0	17.5	7.9	100.0
	대학 졸업	(181)	50.3	7.2	17.1	1.7	13.3	10.5	100.0
	대학원 이상	(5)	20.0	20.0	20.0	20.0	0.0	20.0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50.5	9.0	14.0	3.6	14.9	8.1	100.0
	미취업	(98)	45.9	10.2	21.4	0.0	12.2	10.2	100.0

(4) 창업 관련

■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의향

-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5.6%이며, 성별로는 남자(42.2%)가 여자(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만 25~29세에서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 30~34세의 41.7%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
-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45.1%)가 대학 졸업(3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이 미취업 청년에 비해 관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하는 창업 형태는 프리랜서가 49.1%로 가장 높고, 소상공인 34.4%, 스타트업 10.6% 등의 순임

〈표 4-14〉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음	①+②	③ 어느 정도 관심 있음	④ 매우 관심 많음	③+④	계
전체		(320)	22.5	41.9	64.4	33.4	2.2	35.6	100.0
성별	남	(161)	17.4	40.4	57.8	39.1	3.1	42.2	100.0
	여	(159)	27.7	43.4	71.1	27.7	1.3	28.9	100.0
연령	만 19~24세	(84)	36.9	44.0	81.0	19.0	0.0	19.0	100.0
	만 25~29세	(82)	14.6	41.5	56.1	41.5	2.4	43.9	100.0
	만 30~34세	(72)	19.4	38.9	58.3	37.5	4.2	41.7	100.0
	만 35~39세	(82)	18.3	42.7	61.0	36.6	2.4	39.0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12.7	42.3	54.9	42.3	2.8	45.1	100.0
	대학 재학	(63)	46.0	36.5	82.5	17.5	0.0	17.5	100.0
	대학 졸업	(181)	18.2	43.6	61.9	35.9	2.2	38.1	100.0
	대학원 이상	(5)	20.0	40.0	60.0	20.0	20.0	40.0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19.4	38.7	58.1	38.7	3.2	41.9	100.0
	미취업	(98)	29.6	49.0	78.6	21.4	0.0	21.4	100.0

■ 창업을 하는 이유

- 추후 창업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7.5%,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15.0%로 나타남
- 남자, 만 35~39세는 ‘경제적 수입’, 여자와 만 19~24세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가 차이를 보임
-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은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서’라는 응답이 19.0%로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5〉 창업 고려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발전 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기발한 아이디 어를 사업화 시키 려고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 해서	주변 지인이 창업 하여 성공 하는 것을 보고	경기가 좋아 성공 가능성 이 높아서	자유 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계
전체		(320)	32.8	15.0	3.1	7.2	11.9	1.9	0.6	27.5	100.0
성별	남	(161)	38.5	12.4	3.1	8.1	13.7	1.2	1.2	21.7	100.0
	여	(159)	27.0	17.6	3.1	6.3	10.1	2.5	0.0	33.3	100.0
연령	만 19~24세	(84)	21.4	10.7	4.8	16.7	13.1	0.0	0.0	33.3	100.0
	만 25~29세	(82)	34.1	19.5	0.0	4.9	15.9	1.2	1.2	23.2	100.0
	만 30~34세	(72)	31.9	20.8	2.8	2.8	11.1	2.8	0.0	27.8	100.0
	만 35~39세	(82)	43.9	9.8	4.9	3.7	7.3	3.7	1.2	25.6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49.3	2.8	4.2	1.4	14.1	2.8	0.0	25.4	100.0
	대학 재학	(63)	15.9	11.1	4.8	22.2	19.0	0.0	0.0	27.0	100.0
	대학 졸업	(181)	31.5	21.5	2.2	3.3	8.8	2.2	1.1	29.3	100.0
	대학원 이상	(5)	60.0	0.0	0.0	40.0	0.0	0.0	0.0	0.0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39.6	15.3	1.8	4.5	10.4	2.3	0.9	25.2	100.0
	미취업	(98)	17.3	14.3	6.1	13.3	15.3	1.0	0.0	32.7	100.0

■ 창업 지원 인지도 및 획득 경로

- 구리시 창업 지원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6%, ‘들어본 적 있음’ 58.8%, ‘전혀 모른다’ 25.6%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아무도 없음
- 구리시 창업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갈매동’ 거주자가 4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택1동’ 46.2%, ‘교문2동’ 31.4% 등의 순임
- ‘모른다’는 응답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아짐
-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등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발견되지 않음

- 구리시 창업 지원 정보를 ‘지인’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리시 사이트’ 25.2%, ‘SNS’ 15.1%, ‘포스터’ 13.9%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 구리시 창업 지원 내용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른다	계
전체		(320)	15.6	58.8	25.6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11.5	40.4	48.1	100.0
	동구동	(63)	11.1	77.8	11.1	100.0
	인창동	(40)	5.0	65.0	30.0	100.0
	교문1동	(25)	20.0	60.0	20.0	100.0
	교문2동	(35)	22.9	45.7	31.4	100.0
	수택1동	(26)	7.7	46.2	46.2	100.0
	수택2동	(43)	23.3	65.1	11.6	100.0
	수택3동	(36)	27.8	58.3	13.9	100.0
성별	남	(161)	17.4	60.9	21.7	100.0
	여	(159)	13.8	56.6	29.6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8)	10.7	53.6	35.7	100.0
	50~150만 원 미만	(63)	12.7	54.0	33.3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12.2	64.9	23.0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20.4	59.3	20.4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16.2	64.9	18.9	100.0
	450만 원 이상	(10)	20.0	30.0	50.0	100.0

■ 필요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 필요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자금 지원’(42.9%)이 가장 높고,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21.0%), ‘기술개발 지원’(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0만 원 미만과 50~150만 원 미만은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6.7%와 11.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취업자는 ‘창업 자금 지원’(47.3%) 및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22.8%), 미취업자는 ‘기술 개발 지원’(22.5%)과 ‘교육, 컨설팅’(11.3%)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원하는 정책의 차이 존재

〈표 4-17〉 필요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창업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국내 외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지원	법률, 회계, 인증, 지식 재산권 확보 등 경영 지원	교육, 컨설팅	계
전체		(238)	21.0	42.9	16.4	3.4	5.5	5.5	5.5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18)	11.1	55.6	16.7	0.0	0.0	0.0	16.7	100.0
	50~150만 원 미만	(42)	14.3	33.3	23.8	0.0	4.8	11.9	11.9	100.0
	150~250만 원 미만	(57)	29.8	47.4	7.0	3.5	7.0	1.8	3.5	100.0
	250~350만 원 미만	(86)	19.8	40.7	20.9	2.3	7.0	7.0	2.3	100.0
	350~450만 원 미만	(30)	26.7	40.0	13.3	13.3	3.3	0.0	3.3	100.0
	450만 원 이상	(5)	0.0	80.0	0.0	0.0	0.0	20.0	0.0	100.0
취업 여부	취업	(167)	22.8	47.3	13.8	3.6	5.4	4.2	3.0	100.0
	미취업	(71)	16.9	32.4	22.5	2.8	5.6	8.5	11.3	100.0

4) 가계 및 경제

(1) 소득 및 지출액

■ 정기적 수입원 및 월 소득액

- 구리시 청년의 정기적 수입원은 근로소득 76.3%, 용돈 26.6%, 정부 및 외부 지원금 3.1%로 나타남
 -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주로 용돈, 경제활동 참가자는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며, 정기적 수입원으로 금융소득을 선택한 경우는 없음

- 월 소득액은 '250~350만 원 미만'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50~250만 원 미만' 23.1%, '50~150만 원 미만' 19.7% 등의 순이었음
- 대학 졸업자는 '250~350만 원 미만' 47.0%, '150~250만 원 미만' 19.9%이며, 고졸 이하는 '150~250만 원 미만' 52.1%, '250~350만 원 미만' 28.2%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월소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 4-18〉 월소득액

(단위 : 명, %)

구 분		빈도	50 만원 미만	50~ 150만 원 미만	150~ 250만 원 미만	250~ 350만 원 미만	350~ 450만 원 미만	450만 원 이상	계
전체		(238)	8.8	19.7	23.1	33.8	11.6	3.1	100.0
성별	남	(161)	7.5	20.5	19.9	35.4	13.0	3.7	100.0
	여	(159)	10.1	18.9	26.4	32.1	10.1	2.5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4.2	11.3	52.1	28.2	2.8	1.4	100.0
	대학 재학	(63)	27.0	68.3	1.6	3.2	0.0	0.0	100.0
	대학 졸업	(181)	4.4	6.1	19.9	47.0	17.7	5.0	100.0
	대학원 이상	(5)	0.0	20.0	0.0	20.0	60.0	0.0	100.0

(2) 부채 유무 및 이유

■ 정기적 수입원 및 월소득액

- 응답자의 26.9%가 현재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높아짐
- 만 35~39세는 56.1%, 만 30~34세 36.1%, 만 25~29세 14.6%의 순임
- 부채 유무는 소득수준과 대체로 비례관계를 보이는데, '450만 원 이상' 70.0%, '350만 원~450만 원' 43.2%가 현재 부채가 있다고 응답

〈표 4-19〉 부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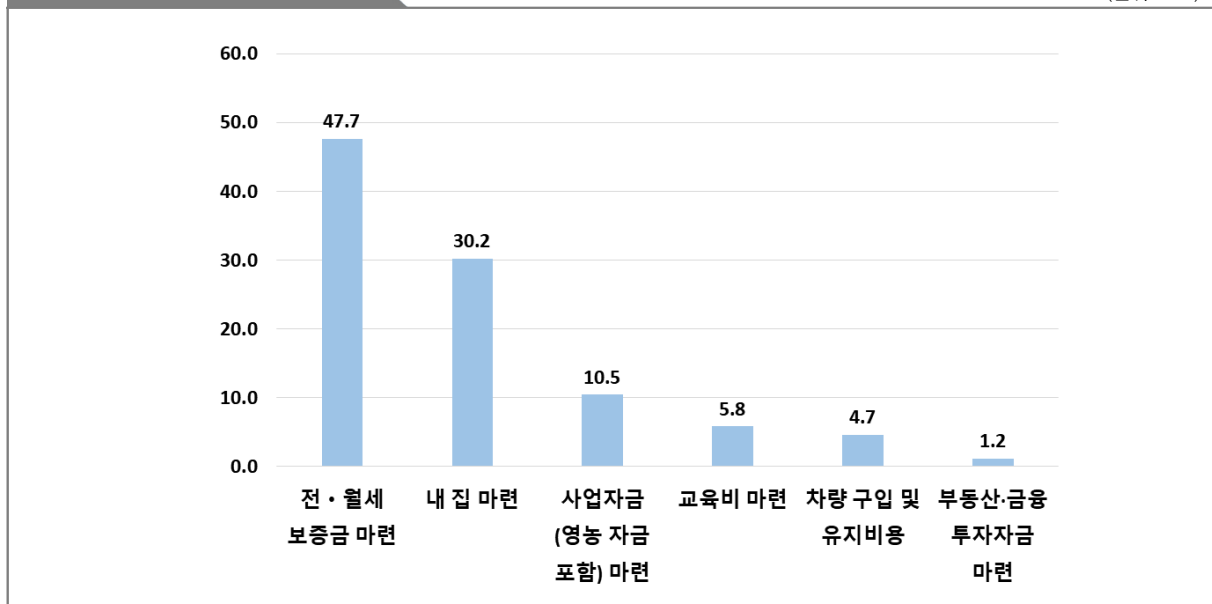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있다	없다	계
전체		(320)	26.9	73.1	100.0
연령	만 19~24세	(84)	2.4	97.6	100.0
	만 25~29세	(82)	14.6	85.4	100.0
	만 30~34세	(72)	36.1	63.9	100.0
	만 35~39세	(82)	56.1	43.9	100.0
	50만 원 미만	(28)	7.1	92.9	100.0
소득	50~150만 원 미만	(63)	14.3	85.7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12.2	87.8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39.8	60.2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43.2	56.8	100.0
	450만 원 이상	(10)	70.0	30.0	100.0

- 부채 발생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47.7%로 가장 높고, ‘내 집 마련’ 30.2%로 나타나 주로 주거와 관련된 이유로 부채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4-2]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



(3) 필요한 경제 정책

■ 가장 원하는 경제 정책

- 구리시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주거비용 지원정책’(45.3%)이 가장 높고, ‘교육비 지원사업’(23.1%),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지원’(10.6%) 등의 순임
- 남자와 여자 모두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여자는 ‘교육비 지원’(26.4%), 남자는 ‘창업비 지원’(11.2%)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19~24세는 ‘교육비 지원’(44.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만 35~39세의 경우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65.9%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0〉 경제 관련 필요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주거 비용 지원 정책	교육비 (학자금 대출 등) 지원 사업	긴급 대출 지원	창업비 지원	재테크 교육 컨설팅	문화 및 여가 활동 비용 지원	계
전체		(320)	45.3	23.1	5.0	8.8	7.2	10.6	100.0
성별	남	(161)	47.8	19.9	3.7	11.2	8.1	9.3	100.0
	여	(159)	42.8	26.4	6.3	6.3	6.3	11.9	100.0
연령	만 19~24세	(84)	23.8	44.0	2.4	7.1	7.1	15.5	100.0
	만 25~29세	(82)	43.9	22.0	3.7	8.5	11.0	11.0	100.0
	만 30~34세	(72)	48.6	15.3	8.3	12.5	6.9	8.3	100.0
	만 35~39세	(82)	65.9	9.8	6.1	7.3	3.7	7.3	100.0

5) 주거 및 교통

(1) 주거

■ 독립 여부 및 주거비 마련 방법

- 구리시 청년의 43.8%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고, 여자(50.3%)가 남자(37.3%)에 비해 독립하여 살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향이 발견되며, 혼인상태 등도 독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이 주거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스스로 마련’이 45.7%로 가장 높고, ‘대출 및 부채’ 25.7%, ‘부모님 지원과 스스로 마련’ 18.6%의 순임
- 주거비 마련은 연령, 혼인상태, 주택형태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고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반주택 거주자는 ‘부모님 지원’, 아파트 거주자는 ‘대출 및 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1〉 주거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부모님 지원	스스로 마련	부모님 지원+ 스스로 마련	대출 및 부채	무상 거주	기타	계
전체		(140)	5.7	45.7	18.6	25.7	0.7	3.6	100.0
연령	만 19~24세	(6)	50.0	33.3	16.7	0.0	0.0	0.0	100.0
	만 25~29세	(26)	7.7	38.5	30.8	23.1	0.0	0.0	100.0
	만 30~34세	(38)	2.6	42.1	15.8	31.6	2.6	5.3	100.0
	만 35~39세	(70)	2.9	51.4	15.7	25.7	0.0	4.3	100.0
주택 형태	일반주택	(41)	14.6	43.9	22.0	17.1	0.0	2.4	100.0
	아파트	(79)	1.3	40.5	16.5	35.4	1.3	5.1	100.0
	오피스텔 및 기타	(20)	5.0	70.0	20.0	5.0	0.0	0.0	100.0
취업 여부	취업	(111)	5.4	46.8	18.9	24.3	0.9	3.6	100.0
	미취업	(29)	6.9	41.4	17.2	31.0	0.0	3.4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12.2	51.0	18.4	12.2	2.0	4.1	100.0
	다인 가구	(91)	2.2	42.9	18.7	33.0	0.0	3.3	100.0

■ 1인 가구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 중, 혼자 사는 청년은 35.0%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수택1동’(54.5%), ‘수택3동’(45.0%), ‘수택2동’(42.9%) 등에서 높은 편
- 여자에 비해 혼자 사는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형태는 ‘오피스텔 및 기타’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혼자 사는 이유는 ‘직장 때문에(구직 포함)’가 7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24.5%, ‘학업 때문에’ 4.1%의 순이었음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가사 및 집안일 처리’ 38.8%, ‘식사 해결’ 28.6%,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 18.4%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식사 해결’(36.0%), 여자는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25.0%)와 ‘이사, 집 구하기’(16.7%) 등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2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식사해결	가사 및 집안 일 처리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	이사, 집(방) 구하기 등 주거활동	외로움	계
전체		(49)	28.6	38.8	18.4	10.2	4.1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8)	12.5	50.0	12.5	12.5	12.5	100.0
	동구동	(6)	0.0	66.7	0.0	33.3	0.0	100.0
	인창동	(6)	50.0	33.3	16.7	0.0	0.0	100.0
	교문1동	(4)	25.0	0.0	50.0	0.0	25.0	100.0
	교문2동	(4)	0.0	100.0	0.0	0.0	0.0	100.0
	수택1동	(6)	33.3	33.3	16.7	16.7	0.0	100.0
	수택2동	(6)	50.0	50.0	0.0	0.0	0.0	100.0
	수택3동	(9)	44.4	0.0	44.4	11.1	0.0	100.0
성별	남	(25)	36.0	44.0	12.0	4.0	4.0	100.0
	여	(24)	20.8	33.3	25.0	16.7	4.2	100.0

■ 주거 관련 어려움 및 필요 정책

-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편의시설 부족’ 37.8%, ‘주거비 부담’ 27.2%,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 12.5%의 순임
 - ‘주변 편의 시설 부족’은 동구동, 교문2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은 교문1동 거주 청년들이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오피스텔 거주 청년은 주거비 관련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은 50.0%, ‘주거관리비 부담’ 45.0%로 나타남

〈표 4-23〉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주거비 부담	주거 관리비 부담	주거 시설 및 환경 열악	치안 및 안전 미흡	주변 편의 시설 부족	주차 공간 및 시설 부족	기타	계
전체		(320)	27.2	12.2	12.5	1.9	37.8	5.9	2.5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19.2	19.2	11.5	1.9	36.5	9.6	1.9	100.0
	동구동	(63)	30.2	11.1	3.2	3.2	50.8	1.6	0.0	100.0
	인창동	(40)	45.0	2.5	10.0	0.0	37.5	5.0	0.0	100.0
	교문1동	(25)	4.0	24.0	24.0	4.0	36.0	8.0	0.0	100.0
	교문2동	(35)	22.9	8.6	14.3	2.9	42.9	8.6	0.0	100.0
	수택1동	(26)	46.2	15.4	7.7	0.0	23.1	7.7	0.0	100.0
	수택2동	(43)	20.9	7.0	23.3	2.3	25.6	4.7	16.3	100.0
	수택3동	(36)	27.8	13.9	13.9	0.0	38.9	5.6	0.0	100.0
주택 형태	일반주택	(106)	25.5	6.6	23.6	3.8	24.5	12.3	3.8	100.0
	아파트	(194)	25.8	11.9	7.7	1.0	48.5	3.1	2.1	100.0
	오피스텔 및 기타	(20)	50.0	45.0	0.0	0.0	5.0	0.0	0.0	100.0
거주 기간	2년 미만	(49)	44.9	14.3	8.2	2.0	28.6	0.0	2.0	100.0
	2~5년 미만	(62)	25.8	17.7	11.3	3.2	35.5	4.8	1.6	100.0
	5~15년 미만	(89)	31.5	11.2	11.2	1.1	32.6	11.2	1.1	100.0
	15~25년 미만	(77)	13.0	9.1	15.6	1.3	49.4	6.5	5.2	100.0
	25년 이상	(43)	25.6	9.3	16.3	2.3	41.9	2.3	2.3	100.0

- 구리시에 오래 거주한 청년일수록 ‘주변 편의시설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15~25년 미만 49.4%, 25년 이상 41.9%가 ‘주변 편의시설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선택했으며,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을 선택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정책은 ‘청년주택 공급’(40.9%),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26.9%), ‘주거 관련 정보 및 서비스’(17.8%) 등의 순임
- 남자는 ‘청년주택 공급’(45.3%), 여자는 ‘주거 관련 정보 및 서비스’(20.8%)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25~29세는 ‘청년주택 공급’(48.8%), 만 30~34세는 ‘주거 관련 정보 및 서비스’(25.0%), 만 35~39세는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35.4%)이 높게 나타남
- 부모님과 독립하여 지내는 청년은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 비독립 청년은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4〉 주거 관련 필요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청년 주택 공급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	주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임차인 권리 보장 및 상담 프로 그램	월세 지원	주변 환경 안전 관리 및 치안 강화	계
전체		(320)	40.9	26.9	17.8	4.4	1.6	8.4	100.0
성별	남	(161)	45.3	26.1	14.9	4.3	1.9	7.5	100.0
	여	(159)	36.5	27.7	20.8	4.4	1.3	9.4	100.0
연령	만 19~24세	(84)	44.0	23.8	19.0	1.2	1.2	10.7	100.0
	만 25~29세	(82)	48.8	28.0	7.3	4.9	0.0	11.0	100.0
	만 30~34세	(72)	43.1	19.4	25.0	4.2	2.8	5.6	100.0
	만 35~39세	(82)	28.0	35.4	20.7	7.3	2.4	6.1	100.0
독립 여부	독립	(140)	36.4	32.1	21.4	5.0	2.1	2.9	100.0
	비독립	(180)	44.4	22.8	15.0	3.9	1.1	1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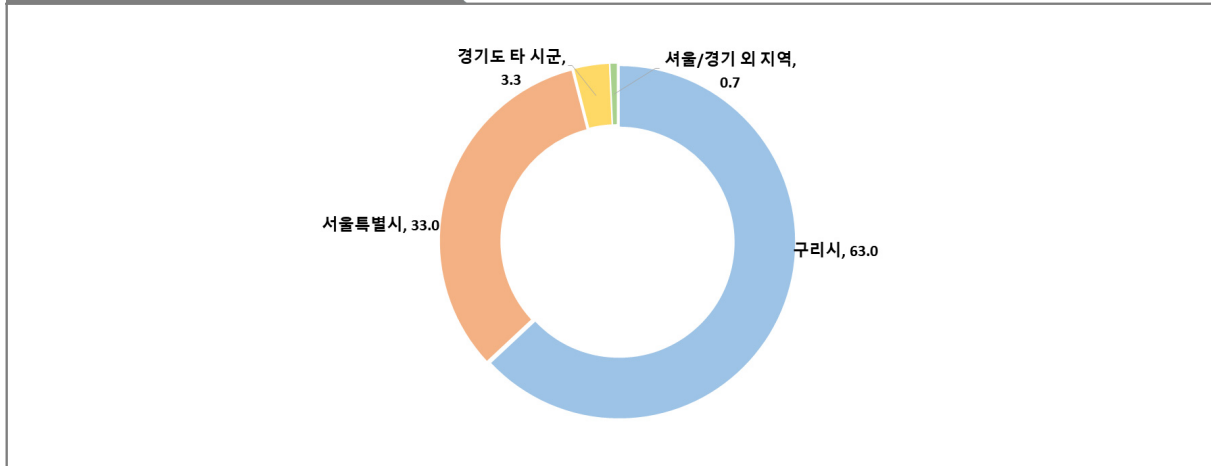
(2) 교통

■ 교통비 및 통근/통학 시간

- 현재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는 청년의 63.0%는 ‘구리시’에 직장 또는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33.0%)의 순이었음

[그림 4-3] 학교 또는 직장 위치

(단위 : %)



- 통근/통학자의 월평균 교통비는 13.8만 원으로 '5~10만 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고, '15~30만 원 미만' 23.2%, '10~15만 원 미만' 18.8%의 순임
- 연령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통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월 평균 통근/통학 교통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0원	5만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평균 금액
전체		(276)	4.3	8.3	32.6	18.8	23.2	12.7	13.8
연령	만 19~24세	(78)	5.1	10.3	43.6	21.8	14.1	5.1	10.1
	만 25~29세	(74)	5.4	6.8	33.8	18.9	24.3	10.8	13.3
	만 30~34세	(63)	3.2	6.3	23.8	17.5	33.3	15.9	16.2
	만 35~39세	(61)	3.3	9.8	26.2	16.4	23.0	21.3	16.8

6) 문화와 여가

■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도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이 있다(어느 정도 관심 있음+매우 관심 있음)는 응답은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이 9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 85.3%, '취미, 자기 계발 활동' 81.9%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 여자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19~24세의 관심도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과 ‘사회 및 기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표 4-26〉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도

(단위 : 명, %)

구 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등산, 산책 등 포함)	관광활동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사회 및 기타활동	취미, 자기 계발 활동
전체		85.3	73.1	74.7	95.9	52.5	81.9
성별	남	80.7	85.7	73.3	96.9	48.4	78.3
	여	89.9	60.4	76.1	95.0	56.6	85.5
연령	만 19~24세	94.0	75.0	73.8	97.6	60.7	86.9
	만 25~29세	85.4	69.5	76.8	93.9	48.8	85.4
	만 30~34세	83.3	76.4	72.2	98.6	54.2	79.2
	만 35~39세	78.0	72.0	75.6	93.9	46.3	75.6

■ 문화활동 향유 지역

- 구리시 청년들이 여가 및 문화활동을 주로 즐기는 지역은 ‘구리시’라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고, ‘서울시’ 29.4%로 나타남
- 인창동 거주 청년은 ‘구리시’에서 즐긴다는 응답이 높고, ‘갈매동’(38.5%)과 ‘교문1동’(40.0%) 거주자는 서울시에 주로 즐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시에서 주로 문화활동을 즐긴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문화활동을 주로 하는 지역의 차이가 있음

〈표 4-27〉 문화활동 향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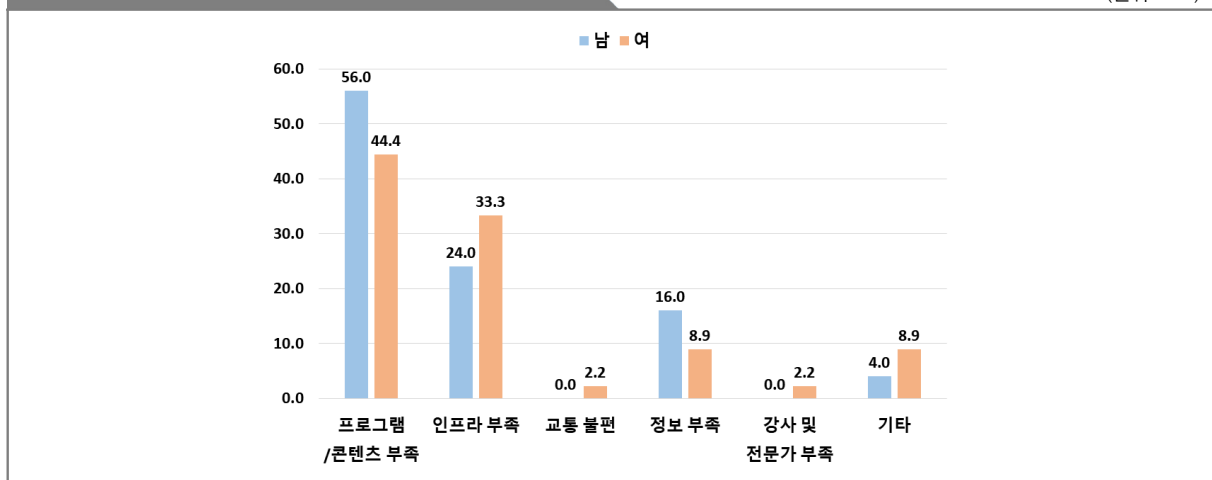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구리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타 시군	계
전체		(320)	70.3	29.4	0.3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61.5	38.5	0.0	100.0
	동구동	(63)	73.0	25.4	1.6	100.0
	인창동	(40)	82.5	17.5	0.0	100.0
	교문1동	(25)	60.0	40.0	0.0	100.0
	교문2동	(35)	62.9	37.1	0.0	100.0
	수택1동	(26)	73.1	26.9	0.0	100.0
	수택2동	(43)	79.1	20.9	0.0	100.0
	수택3동	(36)	66.7	33.3	0.0	100.0
연령	만 19~24세	(84)	63.1	35.7	1.2	100.0
	만 25~29세	(82)	63.4	36.6	0.0	100.0
	만 30~34세	(72)	73.6	26.4	0.0	100.0
	만 35~39세	(82)	81.7	18.3	0.0	100.0

- 구리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콘텐츠 부족’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프라 부족’ 28.4%, ‘정보 부족’ 12.6%의 순임

[그림 4-4] 구리에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남자는 ‘프로그램/콘텐츠 부족’(56.0%), 여자는 ‘인프라 부족’(33.3%)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 구리시의 전반적인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는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52.2%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47.8%에 비해 약간 높은 편
- 거주지역별로 교문2동(77.1%), 수택3동(63.9%), 수택1동(61.5%) 거주자의 ‘불만족’ 수준이 높은 편이며, ‘교문1동’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72.0%로 높은 지역

〈표 4-28〉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①+②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③+④	계
전체		(320)	2.8	49.4	52.2	46.6	1.3	47.8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3.8	51.9	55.8	42.3	1.9	44.2	100.0
	동구동	(63)	0.0	50.8	50.8	49.2	0.0	49.2	100.0
	인창동	(40)	0.0	42.5	42.5	55.0	2.5	57.5	100.0
	교문1동	(25)	0.0	28.0	28.0	72.0	0.0	72.0	100.0
	교문2동	(35)	8.6	68.6	77.1	17.1	5.7	22.9	100.0
	수택1동	(26)	15.4	46.2	61.5	38.5	0.0	38.5	100.0
	수택2동	(43)	0.0	37.2	37.2	62.8	0.0	62.8	100.0
	수택3동	(36)	0.0	63.9	63.9	36.1	0.0	36.1	100.0

■ 필요 문화정책

- 청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 공간 마련’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29.7%, ‘여가활동비 지원’ 16.9%의 순으로 나타남
- 동구동과 인창동에 거주하는 청년은 ‘문화 공간 마련’, 수택1동과 수택2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25~29세 청년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임
-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녔거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은 ‘여가활동비 지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4-29〉 문화 관련 필요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문화 예술 프로 그램 개설	문화 공간 마련	여가 활동비 지원	동아리/ 소모임 지원	정보 공유 사이트 마련	청년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계
전체		(320)	29.7	40.0	16.9	2.8	6.3	4.4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32.7	36.5	9.6	7.7	3.8	9.6	100.0
	동구동	(63)	15.9	58.7	9.5	4.8	9.5	1.6	100.0
	인창동	(40)	10.0	57.5	20.0	2.5	0.0	10.0	100.0
	교문1동	(25)	28.0	32.0	24.0	0.0	8.0	8.0	100.0
	교문2동	(35)	17.1	48.6	28.6	0.0	5.7	0.0	100.0
	수택1동	(26)	61.5	11.5	19.2	0.0	7.7	0.0	100.0
	수택2동	(43)	58.1	20.9	11.6	0.0	4.7	4.7	100.0
	수택3동	(36)	27.8	33.3	25.0	2.8	11.1	0.0	100.0
연령	만 19~24세	(84)	27.4	34.5	21.4	2.4	9.5	4.8	100.0
	만 25~29세	(82)	40.2	41.5	13.4	0.0	1.2	3.7	100.0
	만 30~34세	(72)	22.2	43.1	19.4	2.8	9.7	2.8	100.0
	만 35~39세	(82)	28.0	41.5	13.4	6.1	4.9	6.1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31.0	35.2	22.5	4.2	2.8	4.2	100.0
	대학 재학	(63)	31.7	31.7	19.0	1.6	9.5	6.3	100.0
	대학 졸업	(181)	27.6	45.3	13.8	2.8	6.6	3.9	100.0
	대학원 이상	(5)	60.0	20.0	20.0	0.0	0.0	0.0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8)	14.3	42.9	21.4	0.0	10.7	10.7	100.0
	50~150만 원 미만	(63)	34.9	25.4	20.6	3.2	11.1	4.8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29.7	50.0	14.9	4.1	0.0	1.4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28.7	42.6	15.7	3.7	5.6	3.7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37.8	32.4	16.2	0.0	5.4	8.1	100.0
	450만 원 이상	(10)	20.0	50.0	10.0	0.0	20.0	0.0	100.0

7)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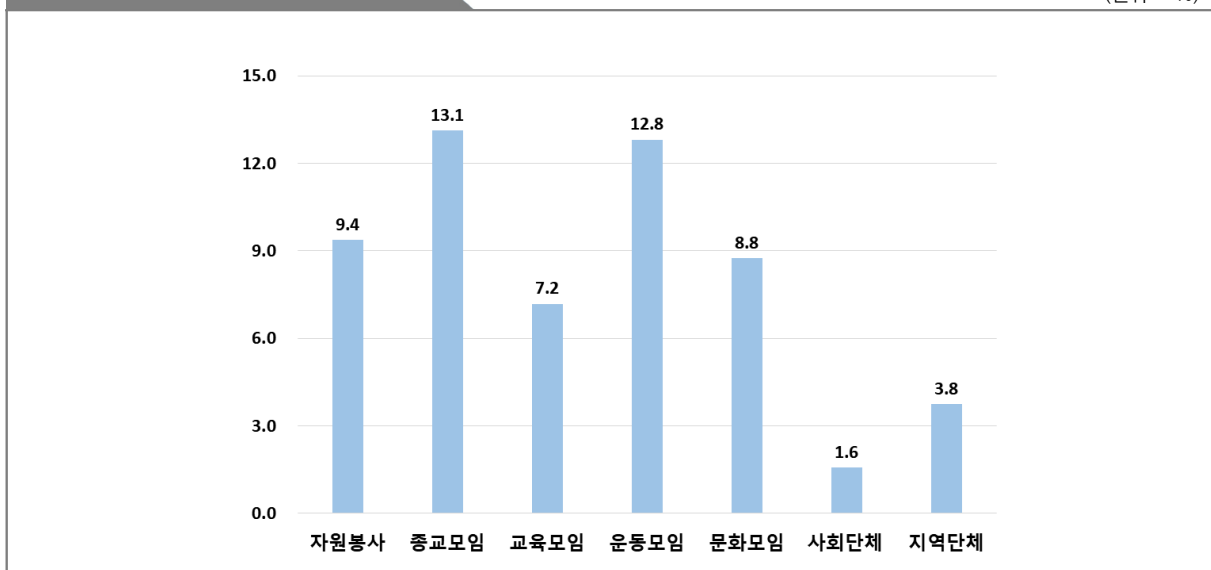
(1) 사회활동 참여

■ 사회활동 참여 여부

- 구리시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종교모임활동'이며, 다음으로 '운동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의 순임
- 일 년에 한/두 번 이상이라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종교모임활동'(13.1%), '운동모임'(12.8%), '자원봉사활동'(9.4%) 등으로 나타남

[그림 4-5] 사회활동 종류별 참여

(단위 : %)



- 지난 1년 동안 7개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3%로 절반을 넘음
- 만 25~29세의 참여율이 30.5%로 낮은 편이며, 고졸 이하가 28.2%로 대졸(37.6%)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현재 취업 중이거나 1인 가구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4-30〉 사회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전혀 참여하지 않음	1개 이상 참여	계
전체		(320)	61.3	38.8	100.0
연령	만 19~24세	(84)	63.1	36.9	100.0
	만 25~29세	(82)	69.5	30.5	100.0
	만 30~34세	(72)	61.1	38.9	100.0
	만 35~39세	(82)	51.2	48.8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71.8	28.2	100.0
	대학 재학	(63)	50.8	49.2	100.0
	대학 졸업	(181)	62.4	37.6	100.0
	대학원 이상	(5)	0.0	100.0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66.7	33.3	100.0
	미취업	(98)	49.0	51.0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71.4	28.6	100.0
	다인 가구	(271)	59.4	40.6	100.0

■ 사회적 도움 여부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 '3~4명'의 순이었음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남
-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만 19~24세에서 20.2%, 만 25~29세 17.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도움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음

〈표 4-31〉 경제적 도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없다	1-2명	3-4명	5-9명	계
전체		(320)	14.4	67.8	16.6	1.3	100.0
연령	만 19~24세	(84)	20.2	65.5	11.9	2.4	100.0
	만 25~29세	(82)	17.1	67.1	14.6	1.2	100.0
	만 30~34세	(72)	11.1	72.2	16.7	0.0	100.0
	만 35~39세	(82)	8.5	67.1	23.2	1.2	100.0

- 신체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49.1%, '3~4명' 40.0%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은 5.3%로 낮은 편
-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에서 1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형태로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22.4%가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

〈표 4-32〉 신체적 도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없다	1~2명	3~4명	5~9명	계
전체		(320)	14.4	67.8	16.6	1.3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12.7	46.5	38.0	2.8	100.0
	대학 재학	(63)	0.0	52.4	39.7	7.9	100.0
	대학 졸업	(181)	4.4	50.3	40.3	5.0	100.0
	대학원 이상	(5)	0.0	0.0	60.0	40.0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22.4	40.8	30.6	6.1	100.0
	다인 가구	(271)	2.2	50.6	41.7	5.5	100.0

- 정서적 도움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청년은 도움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4명'이 52.2%로 가장 많았고, '1~2'명 25.6%, '5~9명' 21.6%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정주의식

■ 구리시 거주 의향

- 청년의 절반을 넘는 54.1%는 3년 후에도 구리시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 37.5%, '거주할 생각이 없다' 8.4%의 순임
- '거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인창동(62.5%)과 수택2동(69.8%)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갈매동(17.3%)과 교문1동(17.1%)에서 높게 나타났음
- '450만 원 이상'(70.0%)과 '350~450만 원 미만'(64.9%)의 고소득 집단에서 구리시 거주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자(11.3%)는 남자(5.6%)에 비해 구리시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17.5%)인 청년의 비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4-33〉 구리시 거주 의향

(단위 : 명, %)

구 분		빈도	거주할 생각이 있다	거주할 생각이 없다	모르겠다	계
전체		(320)	54.1	8.4	37.5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52)	50.0	17.3	32.7	100.0
	동구동	(63)	55.6	3.2	41.3	100.0
	인창동	(40)	62.5	5.0	32.5	100.0
	교문1동	(25)	52.0	12.0	36.0	100.0
	교문2동	(35)	42.9	17.1	40.0	100.0
	수택1동	(26)	50.0	3.8	46.2	100.0
	수택2동	(43)	69.8	2.3	27.9	100.0
	수택3동	(36)	44.4	8.3	47.2	100.0
성별	남	(161)	56.5	5.6	37.9	100.0
	여	(159)	51.6	11.3	37.1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45.1	7.0	47.9	100.0
	대학 재학	(63)	47.6	17.5	34.9	100.0
	대학 졸업	(181)	60.8	4.4	34.8	100.0
	대학원 이상	(5)	20.0	60.0	20.0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8)	50.0	10.7	39.3	100.0
	50~150만 원 미만	(63)	50.8	12.7	36.5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47.3	6.8	45.9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56.5	5.6	38.0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64.9	8.1	27.0	100.0
	450만 원 이상	(10)	70.0	20.0	10.0	100.0

■ 거주 및 비거주 이유

- 구리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학교 및 직장 위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 및 지인이 있어서' 31.8%, '연고지, 생활터전' 12.7%의 순이었음
- 인창동과 수택2동 거주 청년은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학교 및 직장 위치'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48.0%, 50.0%로 높은 편임

- 교문2동은 ‘주거비가 저렴해서’(20.0%), 수택1동은 ‘교통 편리’(15.4%)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4〉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학교 및 직장 위치	주거비 가 저렴 해서	교육 여건이 좋아서	문화 및 여가 인프라 구축	자연 환경 (공원, 녹지)	교통 편리	연고지 생활 터전	가족 및 지인이 있어서	계
전체	(173)	35.8	9.8	0.6	1.7	4.0	3.5	12.7	31.8	100.0
거주 지역	갈매동	(26)	26.9	11.5	0.0	0.0	11.5	0.0	26.9	100.0
	동구동	(35)	25.7	11.4	0.0	0.0	2.9	2.9	20.0	100.0
	인창동	(25)	48.0	4.0	4.0	8.0	0.0	4.0	0.0	100.0
	교문1동	(13)	38.5	7.7	0.0	0.0	7.7	0.0	23.1	100.0
	교문2동	(15)	33.3	20.0	0.0	0.0	6.7	0.0	6.7	100.0
	수택1동	(13)	46.2	15.4	0.0	0.0	0.0	15.4	7.7	100.0
	수택2동	(30)	50.0	6.7	0.0	3.3	0.0	3.3	6.7	100.0
	수택3동	(16)	18.8	6.3	0.0	0.0	6.3	6.3	56.3	100.0

- 구리시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문화 및 여가 여건 미흡’이 40.7%로 가장 높고, ‘일자리 부족’ 25.9%, ‘자녀 교육 여건 미흡’ 14.8% 등의 순임

8)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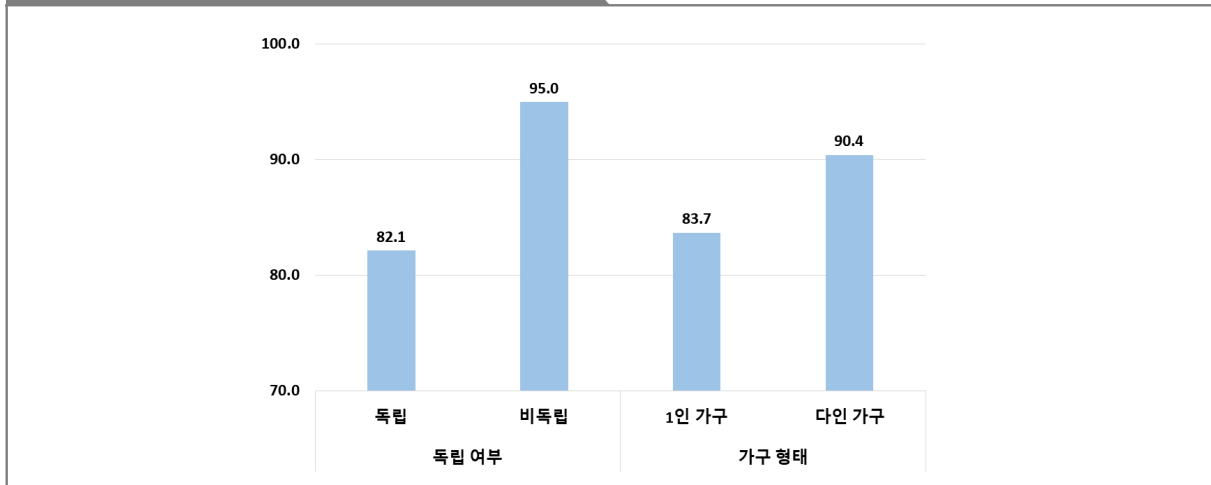
(1)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구리시 청년은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건강함+매우 건강함)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4%임
-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82.1%)과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83.7%)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독립여부 및 가구형태에 따른 건강상태

(단위 : %)



■ 스트레스 및 우울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67.8%는 스트레스를 받는 편(약간 받음+매우 받음)이라고 응답
 - 여자(62.3%)와 비교하여 남자(73.3%)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5~39세 74.4%, 만 30~34세 73.6% 등의 순임

〈표 4-35〉 일상생활 스트레스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② 약간 불만족	①+②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③+④	계
전체		(320)	32.2	32.2	64.4	3.4	67.8	100.0
성별	남	(161)	26.7	26.7	68.9	4.3	73.3	100.0
	여	(159)	37.7	37.7	59.7	2.5	62.3	100.0
연령	만 19~24세	(84)	45.2	45.2	54.8	0.0	54.8	100.0
	만 25~29세	(82)	30.5	30.5	65.9	3.7	69.5	100.0
	만 30~34세	(72)	26.4	26.4	66.7	6.9	73.6	100.0
	만 35~39세	(82)	25.6	25.6	70.7	3.7	74.4	100.0

- 지난 1주일 동안 우울했는지에 대해 전체의 75.0%가 ‘우울하지 않았다’를 선택했으며, ‘우울했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남
- ‘우울했다’는 응답은 만 30~34세에서 13.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자(12.2%)가 높은 편임
- 또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우울 경험이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형태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 4-36〉 지난 1주일 우울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우울하지 않았음	보통	우울했음	계
전체		(320)	75.0	15.9	9.1	100.0
연령	만 19~24세	(84)	76.2	20.2	3.6	100.0
	만 25~29세	(82)	75.6	15.9	8.5	100.0
	만 30~34세	(72)	70.8	15.3	13.9	100.0
	만 35~39세	(82)	76.8	12.2	11.0	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1)	60.6	31.0	8.5	100.0
	대학 재학	(63)	85.7	12.7	1.6	100.0
	대학 졸업	(181)	76.2	11.6	12.2	100.0
	대학원 이상	(5)	100.0	0.0	0.0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67.3	20.4	12.2	100.0
	다인 가구	(271)	76.4	15.1	8.5	100.0

주 : 우울하지 않았음은 ‘0~4’, 보통은 ‘5’, 우울했음은 ‘6~10’의 응답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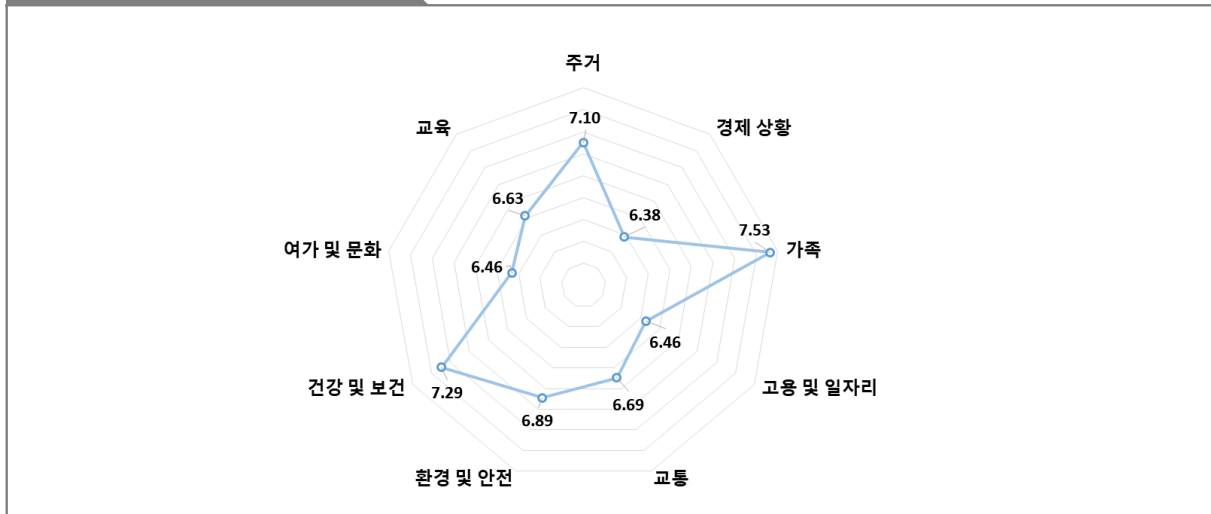
(2) 생활만족도

■ 만족도

- 구리시 청년은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에 6.86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88.4%로 높은 편
-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으로 7.53점이며, 다음으로 ‘건강 및 보건’ 7.29점, ‘주거’ 7.10점의 순임
- 반면, ‘경제 상황’(6.38점), ‘고용 및 일자리’(6.46점), ‘여가 및 문화’(6.46점)는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해당

[그림 4-7] 영역별 만족도

(단위 : 점)



주 : 10.00점 만점.

- 전체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경제 상황이며, 다음으로 주거, 교육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경제상황과 주거 등은 청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해당되며, 환경/안전과 건강/보건, 경제상황과 고용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관련이 깊은 영역들의 만족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4-37〉 전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상관관계

구 분	전체	주거	경제 상황	가족	고용 및 일자리	교통	환경 및 안전	건강 및 보건	여가 및 문화	교육
전체	1.00	0.47	0.50	0.38	0.36	0.27	0.38	0.32	0.35	0.40
주거		1.00	0.39	0.32	0.18	0.23	0.32	0.28	0.30	0.29
경제 상황			1.00	0.18	0.61	0.41	0.30	0.23	0.36	0.34
가족				1.00	0.18	0.26	0.45	0.49	0.34	0.43
고용 및 일자리					1.00	0.41	0.30	0.26	0.38	0.41
교통						1.00	0.57	0.49	0.52	0.56
환경 및 안전							1.00	0.63	0.58	0.59
건강 및 보건								1.00	0.51	0.55
여가 및 문화									1.00	0.68
교육										1.00

■ 행복수준

- 구리시 청년은 지난 1주일 동안의 행복수준에 대해 10점 만점에 6.67점으로 나타났으며, 83.4%는 ‘행복한 편’(10점 만점에 6~10점 합계)이라고 응답
- 행복 수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가구형태별로 1인 가구 거주자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4-38〉 지난 1주일 행복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행복하지 않았음	보통	행복했음	계
전체		(320)	2.2	14.4	83.4	10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2.0	18.4	79.6	100.0
	다인 가구	(271)	2.2	13.7	84.1	100.0

주 : 행복하지 않았음은 ‘0~4’, 보통은 ‘5’, 행복했음은 ‘6~10’의 응답을 합한 수치임.

(3) 삶의 질

■ 현재 고민 및 원하는 상담 주제

- 구리시 청년은 ‘직장 안정성’(32.2%)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진로’(15.9%), ‘출산 및 육아’(12.8%), ‘결혼 및 연애’(11.3%) 등의 순임
- 성별이나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의 고민거리는 차이를 보여주는데, 주로 일자리와 결혼/출산을 주된 고민 사항으로 뽑을 수 있음
 - 남자는 ‘직장 안정성’, ‘진로’, ‘결혼 및 연애’가 고민이라는 응답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출산 및 육아’가 주된 고민거리 중 하나임
 - 만 19~24세는 ‘진로’가 가장 고민이라는 응답이 44.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는 ‘직장 안정성’(47.6%)을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음
 - 만 30~34세는 ‘직장 안정성’(33.3%)과 ‘결혼 및 연애’(27.6%)를 고민으로 꼽아 직장 및 결혼문제 모두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만 35~39세는 ‘출산 및 연애’(34.15)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9〉 현재 가장 큰 고민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진로	공부 (성적)	직장 안정성	결혼 및 연애	출산 및 육아	주거	기타	고민 없음	계
전체		(320)	15.9	5.3	32.2	11.3	12.8	7.2	11.9	3.4	100.0
성별	남	(161)	19.9	3.7	36.6	14.3	5.0	7.5	11.2	1.9	100.0
	여	(159)	11.9	6.9	27.7	8.2	20.8	6.9	12.6	5.0	100.0
연령	만 19~24세	(84)	44.0	19.0	22.6	0.0	0.0	1.2	11.9	1.2	100.0
	만 25~29세	(82)	15.9	1.2	47.6	11.0	1.2	8.5	11.0	3.7	100.0
	만 30~34세	(72)	1.4	0.0	33.3	27.8	16.7	8.3	8.3	4.2	100.0
	만 35~39세	(82)	0.0	0.0	25.6	8.5	34.1	11.0	15.9	4.9	100.0

주 : 기타는 '학비 및 생활비 마련', '여가생활', '건강', '사회적 지위', '친구 관계', '외모', '기타'를 합한 값임.

- 전문 상담 기회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고 싶은 주제는 '재무 및 재테크'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및 적성'(25.6%), '취업 및 창업'(15.9%) 등의 순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 및 재테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만 19~24세는 '진로 및 적성'(56.0%), 만 25~29세는 '취업 및 창업'(25.6%)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30~34세는 '재무 및 재테크' 이외에도 '연애 및 결혼'(11.1%)과 '심리 및 정신건강'(11.1%)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4-40〉 상담 필요한 주제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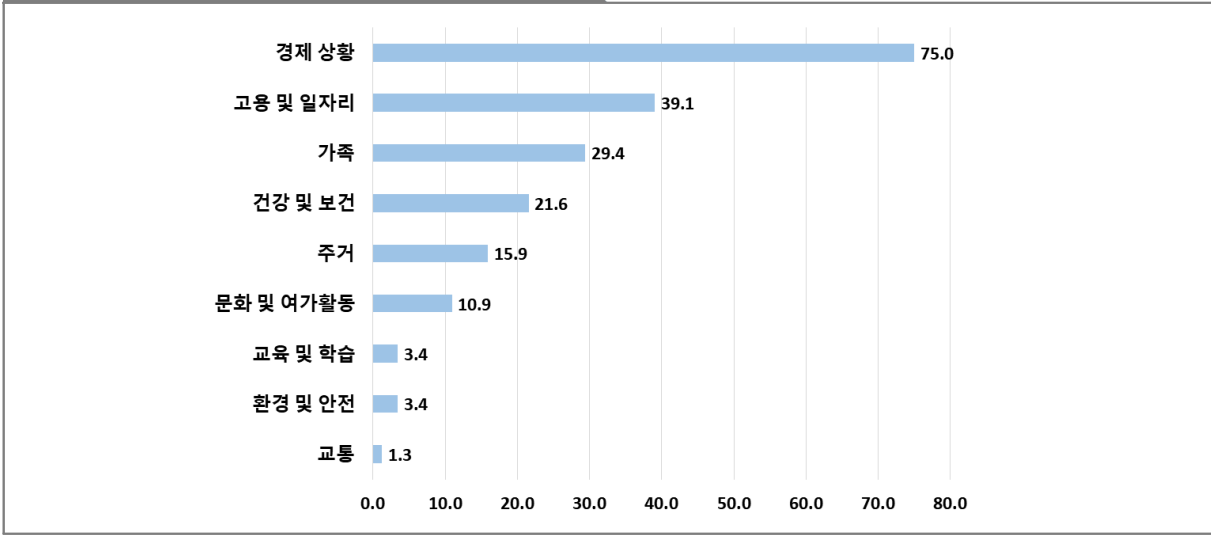
구 분		빈도	재무 및 재테크	연애 및 결혼	심리 및 정신 건강	진로 및 적성	취업 및 창업	대인 관계	가정 문제	계
전체		(320)	42.5	5.9	6.6	25.6	15.9	2.8	0.6	100.0
연령	만 19~24세	(84)	19.0	0.0	4.8	56.0	14.3	4.8	1.2	100.0
	만 25~29세	(82)	35.4	6.1	2.4	28.0	25.6	2.4	0.0	100.0
	만 30~34세	(72)	54.2	11.1	11.1	9.7	9.7	2.8	1.4	100.0
	만 35~39세	(82)	63.4	7.3	8.5	6.1	13.4	1.2	0.0	100.0

■ 삶의 질 영향 요인

- 구리시 청년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상황’임
- 중복 응답을 고려할 때 전체 응답자의 75.0%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 상황’을 꼽았으며, ‘고용 및 일자리’(39.1%), ‘가족’(29.4%), ‘건강 및 보건’(21.6%)의 순임

[그림 4-8] 삶의 질 영향 요인(1순위+2순위)

(단위 : %)



〈표 4-41〉 삶의 질 영향 요인(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주거	경제 상황	가족	고용 및 일자리	교통	환경 및 안전	건강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육 및 학습
전체		(320)	15.9	75.0	29.4	39.1	1.3	3.4	21.6	10.9	3.4
성별	남	(161)	18.6	73.9	23.6	46.0	0.6	3.1	21.1	8.1	5.0
	여	(159)	13.2	76.1	35.2	32.1	1.9	3.8	22.0	13.8	1.9
연령	만 19~24세	(84)	9.5	65.5	22.6	46.4	0.0	2.4	21.4	20.2	11.9
	만 25~29세	(82)	22.0	75.6	23.2	45.1	2.4	4.9	14.6	11.0	1.2
	만 30~34세	(72)	11.1	80.6	30.6	37.5	2.8	1.4	30.6	5.6	0.0
	만 35~39세	(82)	20.7	79.3	41.5	26.8	0.0	4.9	20.7	6.1	0.0

- 반면, 교통(1.3%)과 환경 및 안전(3.4%), 교육 및 학습(3.4%)은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남자는 ‘주거’(18.6%), ‘고용 및 일자리’(46.0%), 여자는 ‘가족’(35.2%)과 ‘문화 및 여가활동’(13.8%)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제 상황’ 다음으로 만 19~34세는 ‘고용 및 일자리’, 만 35~39세는 ‘가족’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음

9) 정책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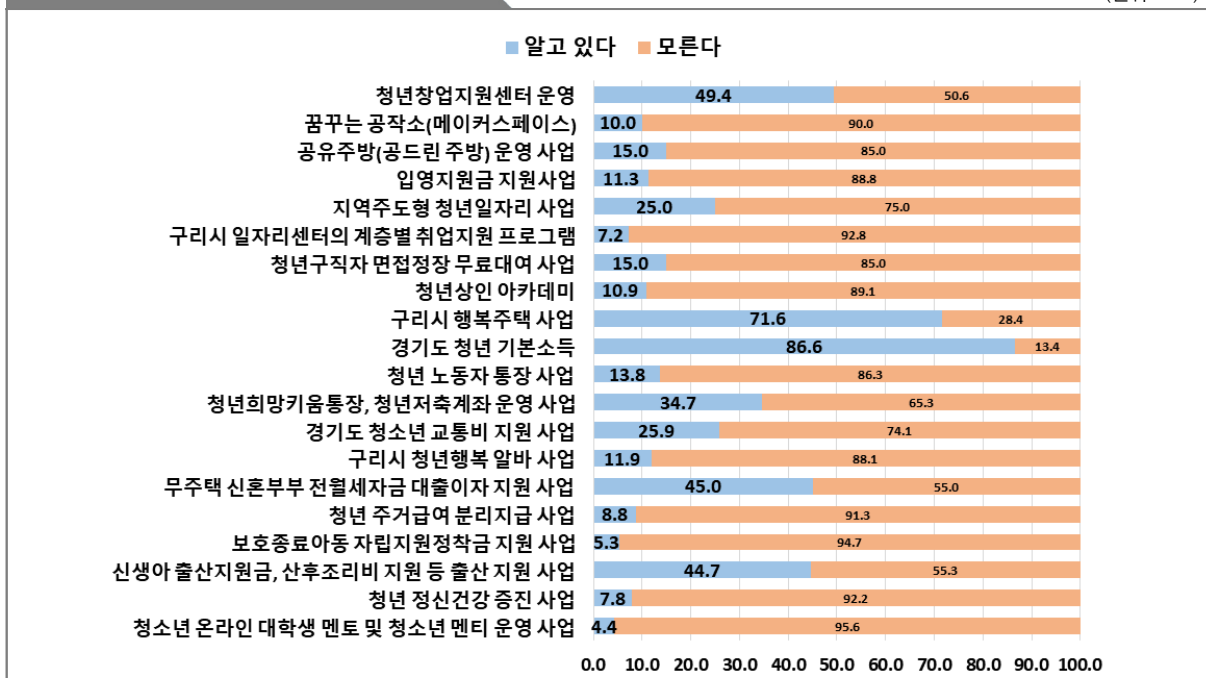
(1) 구리시 청년지원 정책

■ 정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 구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86.6%로 가장 높고, ‘구리시 행복 주택사업’(71.6%), ‘청년창업지원센터’(49.4%)의 순임

[그림 4-9] 구리시 청년정책 인지도

(단위 : %)



-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의 참여 경험이 가장 높은 정책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9.3%)이며, ‘신생아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지원 사업’(18.9%),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14.4%)의 순임

■ 청년정책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

- 구리시 청년들은 청년정책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여건’(30.9%), ‘취업 여부’(21.9%) 등의 순임
- 만 19~24세, 만 30~34세, 만 35~39세에서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 25~29세는 ‘경제적 여건’(40.2%)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편

〈표 4-42〉 청년 대상 판별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취업 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적 고립 여부	신체적 어려움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계
전체		(320)	21.9	30.9	11.9	2.5	32.8	100.0
성별	남	(161)	23.0	29.8	15.5	1.2	30.4	100.0
	여	(159)	20.8	32.1	8.2	3.8	35.2	100.0
연령	만 19~24세	(84)	23.8	25.0	9.5	2.4	39.3	100.0
	만 25~29세	(82)	23.2	40.2	7.3	1.2	28.0	100.0
	만 30~34세	(72)	19.4	26.4	22.2	4.2	27.8	100.0
	만 35~39세	(82)	20.7	31.7	9.8	2.4	35.4	100.0

■ 청년정책 실효성

- 구리시 청년의 75.3%는 공공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정책 홍보 부족’ 56.4%, ‘정책 설계 실패’ 14.1%, ‘산업구조의 변화’ 13.3%를 선택함
- 성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정책 홍보 부족’으로 남자 51.6%, 여자 60.9%였으며, ‘개인의 의지 부족’도 남자(14.8%)와 여자(7.6%)의 응답 차이가 큰 편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효과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높아짐

〈표 4-43〉 청년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산업구조의 변화	제도권 교육	정책 설계 실패	정책 홍보 부족	개인의 의지 부족	계
전체		(241)	13.3	5.0	14.1	56.4	11.2	100.0
성별	남	(122)	14.8	5.7	13.1	51.6	14.8	100.0
	여	(119)	11.8	4.2	15.1	61.3	7.6	100.0
연령	만 19~24세	(64)	9.4	7.8	14.1	60.9	7.8	100.0
	만 25~29세	(59)	11.9	6.8	10.2	54.2	16.9	100.0
	만 30~34세	(57)	15.8	1.8	15.8	57.9	8.8	100.0
	만 35~39세	(61)	16.4	3.3	16.4	52.5	11.5	100.0

■ 청년정책 관심도 및 참여 의향

-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어느 정도 관심 있음+매우 관심 많음)는 응답은 64.7%로 ‘관심 없다’(전혀 관심 없음+별로 관심 없음) 35.3%에 비해 높은 편임

〈표 4-44〉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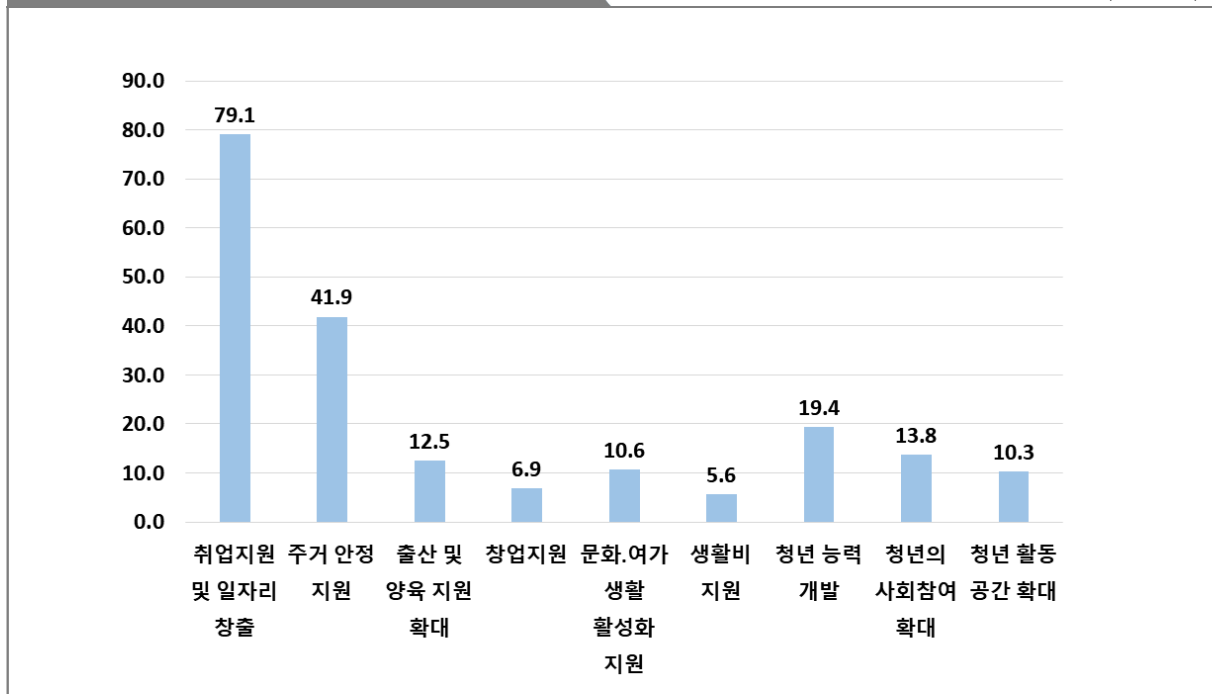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도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음	①+②	③ 어느 정도 관심 있음	④ 매우 관심 많음	③+④	계
전체		(320)	3.8	31.6	35.3	61.9	2.8	64.7	100.0
성별	남	(161)	2.5	31.7	34.2	63.4	2.5	65.8	100.0
	여	(159)	5.0	31.4	36.5	60.4	3.1	63.5	100.0
연령	만 19~24세	(84)	3.6	28.6	32.1	63.1	4.8	67.9	100.0
	만 25~29세	(82)	2.4	25.6	28.0	69.5	2.4	72.0	100.0
	만 30~34세	(72)	5.6	31.9	37.5	61.1	1.4	62.5	100.0
	만 35~39세	(82)	3.7	40.2	43.9	53.7	2.4	56.1	100.0
혼인 상태	미혼	(227)	4.0	27.3	31.3	66.1	2.6	68.7	100.0
	배우자 있음	(93)	3.2	41.9	45.2	51.6	3.2	54.8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4.1	30.6	34.7	61.7	3.6	65.3	100.0
	미취업	(98)	3.1	33.7	36.7	62.2	1.0	63.3	100.0

- 성별,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따른 관심도 차이는 크지 않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관심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 25~29세 청년의 관심도가 7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11.3%만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 25~29세에서 18.3%로 높게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참여 방법은 'SNS상의 의견 개진'이 55.6%, '이메일 수신'(30.6%), '공청회 참여'(11.1%) 등의 순서로 나타나 비대면 참여를 원하는 청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구리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 구리시 청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의 1순위와 2순위를 더하여 보면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79.1%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 안정 지원'(41.9%), '청년 능력 개발'(19.4%) 등의 순이었음

[그림 4-10] 선호하는 청년정책(1순위+2순위)

(단위 : %)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 만 35~39세, 유배우자는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능력 개발’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5〉 선호하는 청년정책(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창업 지원	문화·여가 생활 활성화 지원	생활비 지원	청년 능력 개발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 활동 공간 확대
전체		(320)	79.1	41.9	12.5	6.9	10.6	5.6	19.4	13.8	10.3
성별	남	(161)	78.3	41.0	8.7	8.1	10.6	5.6	21.7	14.3	11.8
	여	(159)	79.9	42.8	16.4	5.7	10.7	5.7	17.0	13.2	8.8
연령	만 19~24세	(84)	85.7	33.3	2.4	2.4	15.5	6.0	25.0	17.9	11.9
	만 25~29세	(82)	73.2	41.5	7.3	9.8	14.6	8.5	23.2	14.6	7.3
	만 30~34세	(72)	83.3	44.4	11.1	11.1	6.9	4.2	15.3	12.5	11.1
	만 35~39세	(82)	74.4	48.8	29.3	4.9	4.9	3.7	13.4	9.8	11.0
혼인 상태	미혼	(227)	81.1	38.3	5.3	7.9	13.2	5.7	22.5	15.4	10.6
	배우자 있음	(93)	74.2	50.5	30.1	4.3	4.3	5.4	11.8	9.7	9.7
취업 여부	취업	(222)	77.0	45.0	13.1	9.0	9.5	6.8	17.1	12.6	9.9
	미취업	(98)	83.7	34.7	11.2	2.0	13.3	3.1	24.5	16.3	11.2

■ 효과적 홍보 수단

- 구리시 청년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SNS’(54.1%), ‘문자메시지’(22.2%), ‘시청 홈페이지’(5.3%) 등의 순서로 선택
- 연령이 낮을수록 ‘SNS’, 높아질수록 ‘문자메시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10) 청년 공간

■ 청년 공간 이용 경험 및 비이용 이유

- 구리시 청년 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전체의 3.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9.0%로 가장 높았고, '관심이 없어서'(29.5%)의 순이었음
- '몰라서'라는 응답도 25.3%로 나타나 4명 중 1명은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만 19~24세 39.5%, 만 25~29세 26.0%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잘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음
 - 50~150만 원 미만 44.1%, 50만 원 미만 30.8%로 저소득 집단에서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6〉 청년 공간 비이용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몰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관심이 없어서	같이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계
전체		(308)	25.3	39.0	29.5	6.2	100.0
연령	만 19~24세	(81)	39.5	27.2	27.2	6.2	100.0
	만 25~29세	(77)	26.0	35.1	28.6	10.4	100.0
	만 30~34세	(69)	20.3	44.9	30.4	4.3	100.0
	만 35~39세	(81)	14.8	49.4	32.1	3.7	100.0
	50만 원 미만	(26)	30.8	26.9	34.6	7.7	100.0
소득	50~150만 원 미만	(59)	44.1	23.7	25.4	6.8	100.0
	150~250만 원 미만	(72)	26.4	33.3	29.2	11.1	100.0
	250~350만 원 미만	(106)	15.1	46.2	34.0	4.7	100.0
	350~450만 원 미만	(36)	19.4	58.3	22.2	0.0	100.0
	450만 원 이상	(9)	22.2	55.6	22.2	0.0	100.0

■ 청년 공간을 통한 지원 항목

- 구리시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은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36.6%),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27.2%),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19.4%)의 순임
- 만 19~24세, 고졸 이하,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청년은 '진로 상담 및 취업 알선'에 대한 선호가 높음
- 만 30~34세, 대학 졸업, 고소득 청년은 청년 공간을 통해 소통과 참여 기회를 제공 받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47〉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진로 상담 및 취업 알선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	심리와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건강 검진	문화 프로 그램 활성화	동아리 활동 지원	계
전체		(320)	36.6	27.2	9.7	4.7	19.4	2.5	100.0
연령	만 19~24세	(84)	53.6	23.8	6.0	2.4	11.9	2.4	100.0
	만 25~29세	(82)	36.6	26.8	9.8	2.4	23.2	1.2	100.0
	만 30~34세	(72)	27.8	33.3	11.1	2.8	20.8	4.2	100.0
	만 35~39세	(82)	26.8	25.6	12.2	11.0	22.0	2.4	100.0
	만 40~44세	(80)	27.5	26.3	12.5	12.5	21.3	2.4	100.0
	고졸 이하	(71)	47.9	23.9	9.9	2.8	12.7	2.8	100.0
	대학 재학	(63)	52.4	20.6	6.3	3.2	17.5	0.0	100.0
	대학 졸업	(181)	27.6	31.5	11.0	6.1	21.5	2.2	100.0
	대학원 이상	(5)	0.0	0.0	0.0	0.0	60.0	40.0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8)	50.0	17.9	3.6	7.1	21.4	0.0	100.0
	50~150만 원 미만	(63)	60.3	19.0	3.2	4.8	12.7	0.0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41.9	23.0	13.5	0.0	17.6	4.1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21.3	35.2	13.0	6.5	22.2	1.9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18.9	35.1	10.8	5.4	21.6	8.1	100.0
	450만 원 이상	(10)	40.0	20.0	0.0	10.0	30.0	0.0	100.0

11) 역량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으로 '재무관리/재테크'를 선택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고, '직무 능력' 20.9%, '자신감' 12.8%, '외국어 능력' 12.5%의 순으로 나타남
- '재무관리/재테크' 다음으로 남자는 '직무능력', 여자는 '자신감'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만 19~24세에서는 '외국어 능력' 27.4%, '자신감' 20.2%로 다른 연령대와 차별적인 경향이 나타남
- 취업자는 '재무관리/재테크'와 '직무 능력'을 필요한 역량으로 선택한 반면, 미취업자는 '자신감'을 뽑은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48〉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직무 능력	재무 관리/ 재테크	외국어 능력	의사 소통	IT 역량	종합 교양	자신감	계
전체		(320)	20.9	37.2	12.5	5.0	7.8	3.8	12.8	100.0
성별	남	(161)	24.2	38.5	12.4	2.5	9.9	4.3	8.1	100.0
	여	(159)	17.6	35.8	12.6	7.5	5.7	3.1	17.6	100.0
연령	만 19~24세	(84)	16.7	10.7	27.4	7.1	11.9	6.0	20.2	100.0
	만 25~29세	(82)	23.2	31.7	14.6	8.5	8.5	3.7	9.8	100.0
	만 30~34세	(72)	26.4	52.8	5.6	2.8	4.2	1.4	6.9	100.0
	만 35~39세	(82)	18.3	56.1	1.2	1.2	6.1	3.7	13.4	100.0
취업 여부	취업	(222)	22.5	43.7	8.1	6.8	7.2	4.5	7.2	100.0
	미취업	(98)	17.3	22.4	22.4	1.0	9.2	2.0	25.5	100.0

■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및 필요한 사람

-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진로지도 및 멘토링' 36.3%로 가장 높고, '학원비 지원' 20.0%, '직업경험(인턴)' 19.7% 등의 순임
- 만 19~24세는 '학자금 지원'을 만 25세 이상의 청년은 '진로지도 및 멘토링'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표 4-49〉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학자금 지원	도서비 지원	학원비 지원	진로지도 및 멘토링	심리 상담	직업경험 (인턴)	계
전체		(320)	13.4	4.1	20.0	36.3	6.6	19.7	100.0
연령	만 19~24세	(84)	31.0	2.4	22.6	29.8	3.6	10.7	100.0
	만 25~29세	(82)	8.5	3.7	18.3	42.7	2.4	24.4	100.0
	만 30~34세	(72)	4.2	6.9	20.8	40.3	12.5	15.3	100.0
	만 35~39세	(82)	8.5	3.7	18.3	32.9	8.5	28.0	100.0

- 발전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가’가 45.3%로 가장 높았고, ‘실무 활동가’ 32.8%, ‘인생 멘토’ 15.0%의 순으로 나타남
- 만 19~29세는 ‘포레 청년’, 만 25~29세는 ‘인생 멘토’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대 이상에서는 ‘전문 상담가’를 선택한 비율이 과반을 차지함

〈표 4-50〉 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포래 청년(들)	실무 활동가	인생 멘토	전문 상담가	이성친구 및 배우자	계
전체		(320)	5.0	32.8	15.0	45.3	1.9	100.0
연령	만 19~24세	(84)	11.9	33.3	11.9	40.5	2.4	100.0
	만 25~29세	(82)	6.1	34.1	19.5	39.0	1.2	100.0
	만 30~34세	(72)	1.4	33.3	13.9	51.4	0.0	100.0
	만 35~39세	(82)	0.0	30.5	14.6	51.2	3.7	100.0

■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

- 구리시 청년이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자격증 취득’이 3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36.3%), ‘문화 및 교양’(32.8%), ‘직무관련 교육’(32.2%) 등으로 나타남
- 남자는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40.4%)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자는 ‘자격증 취득’(38.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음

- 만 19~24세는 '자격증 취득'(50.0%), 만 30~34세는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55.6%), 만 35~39세는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과 '문화 및 교양'을 선택한 비율이 46.3%로 높음
- 취업자는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44.1%)과 '직무관련 교육'(39.6%), 미취업자는 '자격증 취득'(41.8%)과 '어학 공부'(40.8%)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음

〈표 4-51〉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학위과정 (전공 공부)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교육	신체단련 을 위한 운동	문화 및 교양	없음
전체		(320)	13.4	22.2	38.1	32.2	36.3	32.8	25.0
성별	남	(161)	15.5	18.6	37.9	36.6	40.4	28.6	22.4
	여	(159)	11.3	25.8	38.4	27.7	32.1	37.1	27.7
연령	만 19~24세	(84)	35.7	34.5	50.0	21.4	14.3	26.2	17.9
	만 25~29세	(82)	9.8	28.0	42.7	40.2	31.7	25.6	22.0
	만 30~34세	(72)	4.2	13.9	33.3	29.2	55.6	33.3	30.6
	만 35~39세	(82)	2.4	11.0	25.6	37.8	46.3	46.3	30.5
취업 여부	취업	(222)	6.8	14.0	36.5	39.6	44.1	32.9	26.1
	미취업	(98)	28.6	40.8	41.8	15.3	18.4	32.7	22.4

■ 원하는 만큼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 자기 개발을 위해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이 각각 39.1%로 가장 높고, 다음 '정보 부족' 18.8%임
 - 만 19~24세와 만 25~29세는 '비용 부담'(50.0%, 45.1%), 만 30~34세와 만 35~39세는 '시간 부족'(50.0%, 56.1%)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 부족'의 응답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 19~24세는 26.2%, 만 25~29세는 20.7%가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
 -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아짐

〈표 4-52〉 자기 개발 투자 못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정보 부족	건강상 이유	교육기관 부재	계
전체		(320)	39.1	39.1	18.8	1.3	1.9	100.0
연령	만 19~24세	(84)	50.0	20.2	26.2	1.2	2.4	100.0
	만 25~29세	(82)	45.1	31.7	20.7	1.2	1.2	100.0
	만 30~34세	(72)	30.6	50.0	15.3	2.8	1.4	100.0
	만 35~39세	(82)	29.3	56.1	12.2	0.0	2.4	100.0
소득	50만 원 미만	(28)	60.7	7.1	32.1	0.0	0.0	100.0
	50~150만 원 미만	(63)	63.5	11.1	22.2	0.0	3.2	100.0
	150~250만 원 미만	(74)	41.9	44.6	9.5	2.7	1.4	100.0
	250~350만 원 미만	(108)	26.9	49.1	22.2	0.9	0.9	100.0
	350~450만 원 미만	(37)	18.9	64.9	13.5	0.0	2.7	100.0
	450만 원 이상	(10)	10.0	60.0	10.0	10.0	10.0	100.0

3. 시사점

1) 구리시에 바라는 점

- 구리시 청년들은 각 구리시에 바라는 내용을 토대로 항목별로 정리한 결과, 가장 원하는 건의 사항은 ‘일자리 창출 및 제공’임
- 건의 사항에 응답을 한 173명 중,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대한 의견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활동 지원 및 공간 확대’(21명), ‘주거 안정 지원’(20명), ‘홍보 강화’(17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지원’을 원한다는 내용이나 ‘창업 지원 및 관리’, ‘교육 및 양육 환경 개선’ 등도 확인할 수 있음

〈표 4-53〉 구리시에 바라는 점 및 건의 사항

(단위 : 명, %)

항목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만 35~39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일자리 창출 및 제공	12	24.5	5	11.4	2	5.6	9	20.5
• 문화활동 지원 및 공간 확대	7	14.3	8	18.2	3	8.3	3	6.8
• 주거 안정 지원	2	4.1	6	13.6	6	16.7	6	13.6
• 홍보 강화	5	10.2	7	15.9	3	8.3	2	4.5
•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 불편 해소	5	10.2	2	4.5	5	13.9	3	6.8
• 꾸준한 관리 및 지원	2	4.1	5	11.4	4	11.1	3	6.8
• 창업 지원 및 관리	6	12.2	0	-	4	11.1	2	4.5
• 교육 및 양육 환경 개선	1	2.0	1	2.3	2	5.6	6	13.6
• 주거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1	2.0	2	4.5	0	-	2	4.5
• 소상공인 지원	2	4.1	0	-	1	2.8	2	4.5
• 청년정책 대상 확대	2	4.1	0	-	1	2.8	1	2.3
•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0	-	2	4.5	1	2.8	0	-
• 소외계층 지원	1	2.0	1	2.3	0	-	1	2.3
• 일자리 정보 제공 활성화	0	-	0	-	0	-	2	4.5
• 청년 의견 반영한 다양한 정책 집행	1	2.0	1	2.3	0	-	0	-
• 기타	2	4.1	4	9.1	4	11.1	2	4.5
합계	49	100.0	44	100.0	36	100.0	44	100.0

■ 구리시에 바라는 점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여줌

- 만 19~24세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 ‘문화활동 지원 및 공간 확대’, ‘창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만 25~29세는 ‘문화활동 지원 및 공간 확대’와 ‘정책 홍보 강화’를 주요 건의 사항으로 응답
- 만 30~34세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과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 불편 해소’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 불편 해소에는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만 35~39세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 다음으로 ‘주거 안정 지원’과 ‘교육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선택했음
 - 어린이집과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

2) 핵심 영역별 시사점

〈표 4-54〉 일자리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핵심 영역	관련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연계 방안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과 일자리 • 창업 •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일자리 정보 제공’을 선택 • 전체 응답자의 35.6%는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 •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진로지도 및 멘토링’이 가장 높음 • 발전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 상담가’가 가장 높았고, ‘실무 활동가’의 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필요 •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필요 •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창업자금 지원으로 실질적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필요 • 교육에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 취업과 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멘토링제도 활용

〈표 4-55〉 복지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핵심 영역	관련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연계 방안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 주거 및 교통 •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관련하여 부채를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높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서도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꼽음 • 스트레스 정도를 물어본 결과, '받음'이라는 응답이 67.8%로 '받지 않음'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음 • 전반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8.4%임 •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의 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및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 •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은 중앙정부, 광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수행 • 청년의 높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필요 •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건강검진서비스 적용 검토 • 청년의 고민 해결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제도 운영 필요

〈표 4-56〉 문화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핵심 영역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연계 방안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에서 문화/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콘텐츠 부족'을 꼽았고, '인프라 부족'이 뒤를 이음 • 문화 관련 필요 정책으로 '문화공간 마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여가활동비 지원'의 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편 • 구리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높음 •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현황 파악 필요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마련과 바우처 지급을 통한 참여도 제고 필요 •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가능

〈표 4-57〉 참여/권리 영역 시사점 및 연계 방안

핵심 영역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연계 방안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체감도 청년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구리시 행복주택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순임 청년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정책 홍보 부족’을 꼽음 청년정책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64.7%로 과반수를 넘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SNS’가 가장 높았고, ‘문자메시지’의 순임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으로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등의 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에게 구리시의 정책이나 방향을 알리고 더욱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인과 교육이 동시에 필요 효과적 홍보를 위해 청년포털 구축과 문자 알림 서비스 제안 행복꾸러미 제공을 통한 소속감과 참여도 제고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청년 공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필요 유희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진로상담, 청년 소통,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 필요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마련과 바우처 지급을 통한 참여도 제고 필요

제 5 장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및 과제

제5장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1. 기본방향

■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2017.12.13.)

-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구성과 청년 학습권 보장,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주거안정 지원, 금융생활 지원,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권리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016.8.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6.11.4.)

-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2019.7.12.)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거주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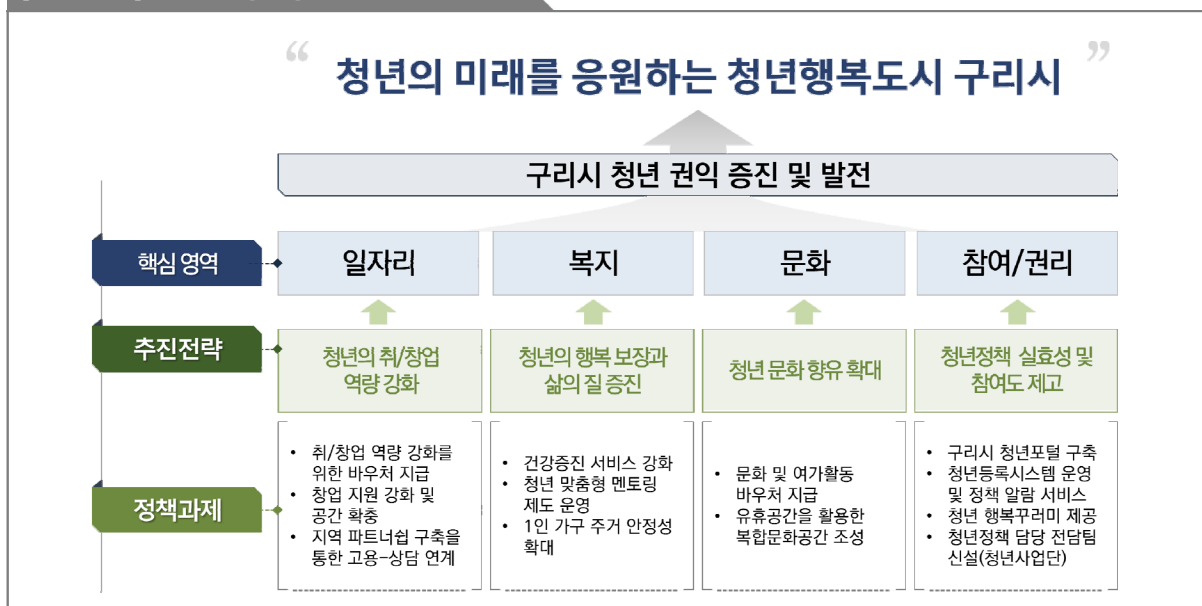
■ 「구리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21.9.17.)

- 민간전문가 3명, 당연직 5명,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 11명으로 구성
-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을 심의

■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과 효과적 수행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도출

- 구리시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멘토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정책 필요
 - 멘토링 제도와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현재 진행되는 관련 정책을 잘 유지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구리시 청년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해 추진전략 제시
 -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청년 문화 향유 확대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의 4대 추진전략 제시

[그림 5-1] 구리시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2. 추진전략 및 과제

1) 추진전략 1 : (일자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도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격차가 제일 큰 항목은 일자리 안정성임
- 청년 개인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창업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정책과제 1.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 필요성
 -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
 - 청년의 특성별로 원하는 교육과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바우처 지급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거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미취업 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취업 또는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자기 계발의 기회가 필요
 - 취업 청년의 경우에도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기 계발의 측면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추진 내용
 -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구리시 내의 학원이나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준비 필요
 - 취/창업 활동비로 최대 1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 4개월)의 바우처 지원, 취업 청년의 경우 50만 원(월 최대 25만 원 * 2개월)
 - 자격시험 응시료,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관련 서적의 구입 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 지원
 -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 참여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하는 청년 대상

■ 기대 효과

- 구리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구리시에서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입에 대한 축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수업을 통해 개인의 소질을 발전시키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책과제 2. 창업 지원 강화 및 공간 확충

- 창업 관련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응답에서 ‘창업자금 지원’(42.9%)이 가장 높고,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21.0%), ‘기술개발 지원’(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필요성

-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 및 자원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
-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임
-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충분히 검증되고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대다수 청년에게는 창업자금 지원보다는 창업과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일방향적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서 유경험자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고,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함

■ 추진 내용

- 구리시 내의 유휴공간을 공공의 영역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준비나 모임, 실험 및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에서 유휴 공간을 대여)
- 청년 멘티와 창업 멘토를 연결시켜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
-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청년이 취/창업 관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창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 멘토링(청년 멘티와 창업 멘토를 연결시켜 지원하는 것)’을 대표로 하여 창업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며, 스타트업 등에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책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을 실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창업 역량 제고
-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의 아이디어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함

■ 기대 효과

- 구리시 청년들의 창업과 관련된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창업가들이 발굴될 가능성을 높임
- 구리시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지원하거나 모종의 사업아이템을 중심으로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리시에서 창업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

■ 정책과제 3.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용-상담 연계 강화

- 가장 필요한 고용 정책으로 전체의 49.1%가 ‘일자리 정보 제공’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6.3%,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14.1%의 순임

■ 필요성

-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진로 탐색, 직업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사회의 인구 유지나 재정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 청년들의 대다수가 지역 사회에 일자리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를 희망함
-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일자리를 만드는 묘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 사회 내 민관협력을 통하여 고용,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추진 내용

- 청년들의 입장에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정주 환경도 좋은 편이어서 구리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 기존의 지역 사회 일자리는 접근하기 어렵고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현실임
- 구리시 내에 있는 기업들과 청년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구리시의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청년들이 구리시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기업체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상담 서비스의 강화된 모델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분위기나 문화, 바라는 인재상, 업무 환경 등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시해주고, 청년들을 매치시켜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방향임

■ 기대 효과

-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은 중소기업이거나 영세한 자영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원하는 인재상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짐
- 가장 저변의 기업에서부터 고용-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취업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구리시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간 win-win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지역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판단

2) 추진전략 2 : (복지)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 구리시는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두고 있는 만큼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은 중요한 목표
- 구리시 청년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며, 영역별 만족도도 대부분 낮은 수준임
- 구리시 청년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03점으로 경기도 평균 6.31점에 비해 낮은 편이며, 31개 시·군 중에는 28순위로 집계됨

■ 정책과제 1.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리적, 신체적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한편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보건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전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의 기초적인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청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신체적 건강증진 사업 : 영양 상태, 비만도, 관절(어깨, 목, 허리 등)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 건강 영역에 대한 무료 검진 및 운동/식사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심리적 건강증진 사업 :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힐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리적 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오프라인을 비롯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건강 관련 교육 사업 : 청년의 건강과 관련된 기본 소양 교육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원인, 특징, 신호 등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상담 제공 실시

■ 기대 효과

- 취업 등의 경쟁 심화로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에 청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비교적 젊은 나이 때부터 자기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 의료서비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는 향후 구리시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청년이 살기 좋은 구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청년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통해 삶의 질 제고

■ 정책과제 2. 청년 맞춤형 멘토링 제도 운영(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진로지도 및 멘토링' 36.3%로 가장 높음
- 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문 상담가', '실무 활동가', '인생 멘토' 등을 꼽음

- 청년은 재무 및 재테크, 진로, 결혼 등과 같은 고민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상황
- 대학생(멘토)-청소년(멘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은 없음
- 필요성
 - 많은 청년들이 일상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배울만한 곳이 없고, 대부분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얻는 지식임
 - 직장생활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재테크까지 현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거나 물어볼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움
 - 기존에는 가구 내에서 이러한 교육적 기능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이 필요
- 추진 내용
 - 청년과 관련하여 ‘멘토’라는 용어는 사회생활이나 취/창업에 한정된 기능으로 인식되어 졌으나, 구리시 청년 멘토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의 역할을 함
 -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급하게 새 집을 구해야 하거나, 목돈 마련 및 관리 등의 여러 일들에서 경험 있는 멘토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음
 - 구리시의 청년 멘토는 청년의 일상을 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사 사업의 청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공식적인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원까지로 기능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은 청년 맞춤형 멘토링 제도를 신청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멘토를 육성하여 멘토 1명에 4~5명 정도의 멘티를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
 -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멘토를 섭외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고, 동일한 목표와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주제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운영
- 기대 효과
 -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강연회가 아닌 요구와 주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

-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일상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멘티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지역 사회 정착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사가 공공형 일자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 직업군을 창출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음

■ 정책과제 3. 1인 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안심주거 지원)

■ 필요성

-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여러 영역에 취약한 계층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 바로 주거의 불안정성임
- 청년은 사회적으로 독립을 요구받는 시기이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돈 벌 기회가 많은 구조적인 환경은 주거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많은 청년들이 좁고 습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어려움에 처한 바,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함

■ 추진 내용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확보하거나 금융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보다 주변적인 차원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공공에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명 ‘착한부동산’을 지정하여 청년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거나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업임
- 또한 청년 1인 여성 가구에 있어서 주거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어락, 방충망, 방범창 등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물품 또는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의미가 있음
-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사 용달을 지원해주는 ‘이사지원 서비스’도 고려 필요

- 구리시에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등을 실시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사례
 -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 안심 홈 10종 세트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영등포구 거주 여성 1인 가구(1인가구 단독 세대주 20~59세),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원 이하
 - 제공내용 :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안심홈 10종 세트 지원
- 기대 효과
 - 청년 1인 가구의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
 - 청년의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의 안심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
 - 1인 가구의 이사지원을 통해서 독거하는 청년의 현실 비용을 낮춰주고, 심리적 안정감 도모
 - 청년을 비롯하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1인 가구 친화적인 구리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3) 추진전략 3 : (문화) 청년 문화 향유 확대

- 구리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음
- 특히 지역별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구리시 전반적으로 문화·여가 관련한 프로그램과 인프라의 현황조사 및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 필요
- 정책과제 1. 문화 및 여가활동 바우처 지급
 - 필요성
 - 구리에서 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콘텐츠 부족’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음
 -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녔거나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은 ‘여가활동비 지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문화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 지역화폐 등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 원하는 문화 및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 관람이나 전시회 이외에도 체험활동(공방, 원데이클래스 등)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

■ 정책 사례

- 국내바우처 제공 사업
 - 문화누리카드 :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여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강서구 청소년 꿈-IN 카드', '부산 방과 후 행복카드'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
- 이탈리아의 18app.it
 - 만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500유로(한화 64만 원) 상당의 문화패스 지급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1년 동안 공연장, 유적지 방문 및 도서 구매에 사용 가능
- 프랑스의 Le Pass Culture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패스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연장, 박물관, 축구경기, BMX 참여, 영화관 등에서 사용 가능

■ 차별성

- 기존의 바우처 사업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의 제한이 있거나 경제적 여건 등의 지원 기준이 있어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연관람, 체육활동 등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 문화예술가의 전시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가능

■ 기대 효과

-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통해 삶의 활력소 증진
- 개인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 향유 가능

- 문화 활동 참여 확대와 예술인의 소득 보장 효과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기대
-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 가능

■ 정책과제 2.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필요성

- 청년을 위해 필요한 문화 정책으로 ‘문화 공간 마련’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음
- 구리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인프라 부족’ 28.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 추진 내용

- 현실성을 고려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청년 관련 센터에 문화 활동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 활동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가능하도록 운영
-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이용
- ‘공드린주방’, ‘꿈꾸는 공작소’와 같은 구리시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청년의 이용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가능
- 장기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리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 안양시는 청년을 위한 활동공간인 ‘범계역 청년출구’를 범계역 광장 내에 마련하여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우수 정책 사례

- 제주지역 청년다락
 - 제주도에 청년활동 복합공간 ‘청년다락’ 5개 지점(본점 1개, 분점 4개)을 운영하며, 모든 청년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공간을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광명시 청년 복합문화 공간 청년동
 -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되었으며, 2021년 10월 개소

-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코워킹스페이스, 휴게실, 밴드실, 녹음실, 문화홀, 개인 연습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청년 공간으로 구성
- 양평 청년 공간 오름, 양서면 청년 공간 탄탄회관
 - ‘양평 청년 공간 오름’은 외식 창업프로그램과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활동, 맞춤형 강연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
 - 탄탄회관은 공유오피스(윗판), 다목적실(아래판), 공유부엌 및 창고(간판)를 운영
- 기대 효과
 - 청년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청년 문화 활성화
 -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 청년의 지역 활동을 촉진
 -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만족도 고취
 - 청년의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로 고립과 외로움 방지

4) 추진전략 4 : (참여/권리)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꾸준한 관심 필요
- 정책과제 1.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구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인지 부족에 대한 의견이 제시
 - 구리시 청년정책의 홍보 및 인지 부족으로 청년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 있음
 - 청년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또 빠르게 바뀌므로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포털 필요
 - 구리시 홈페이지 내 청년 정보 페이지에서는 청년정책의 개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행할 수 없음
 - 청년정책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과 신청 창구 통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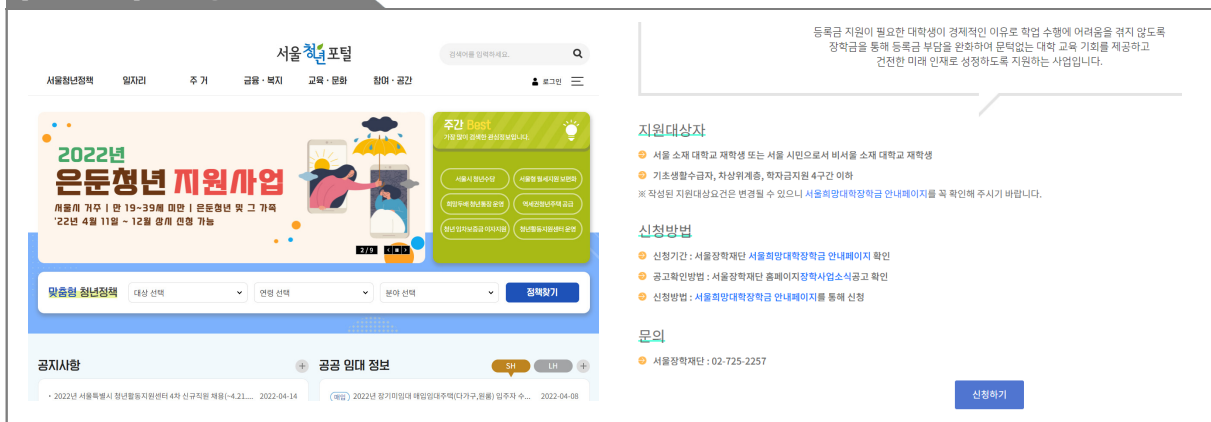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구리시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리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축
- 구리시 정책을 포함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청년 분야별 정책 정보 제공 및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 구축
 -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교육, 문화, 참여, 공간 등
-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가칭)’ 구축

■ 우수 정책 사례

- 서울시의 <서울 청년 포털>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개요 및 분야별 세부 사업 정보 제공, 사업별 신청 혹은 참여 링크 구축, 공간 대관 및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가능

[그림 5-2] 서울청년포털



자료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youth.seoul.go.kr” (2022.4.21. 검색).

- 경기도 <경기청년포털>은 청년의 정책 참여 기구, 청년정책 정보, 소통 공간 및 마음상담소 연결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 캘린더>를 통해 날짜별로 시행 혹은 신청 중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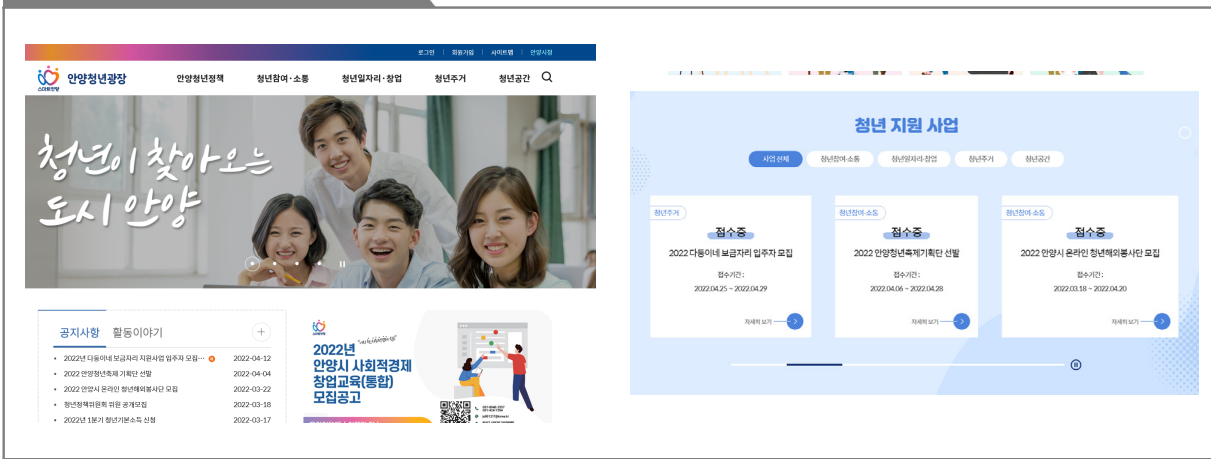
[그림 5-3] 경기청년포털



자료 : 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youth.gg.go.kr” (2022.4.21. 검색).

-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청년광장>은 청년정책, 청년·참여 소통, 청년일자리·창업, 청년주거, 청년 공간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 확인 가능

[그림 5-4] 안양청년광장



자료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https://www.anyang.go.kr/youth/index.do” (2022.4.21. 검색).

- 기대 효과
 - 청년정책 정보 검색의 편리성 개선을 통해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
 - 구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피드백 수렴 및 의견 반영을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 정책 홍보·신청 창구 단일화 및 청년등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
- 구리시 청년들의 낮은 정책 참여도나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과제 2. 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정책 알람 서비스

■ 필요성

- 구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부족하여 청년정책 효과성 향상에 제약
- 청년들의 다양해지는 정책적 관심 및 복지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거주 청년들의 관심 분야와 지원 영역에 관한 데이터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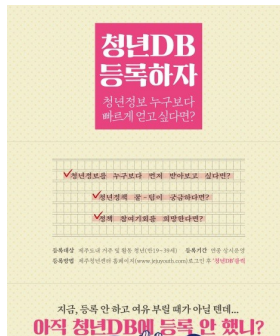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청년등록시스템 운영
 - 구리시 청년DB(가칭)에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심 정책 분야를 설정
- 정책 알람 서비스 제공
 - 청년DB에 등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맞는 정책 정보를 문자 및 메일로 제공

■ 국내 우수 사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 제주도 거주 청년들의 관심 분야 및 커뮤니티 등 청년 활동 파악
- 맞춤형 청년 정보 메시지 및 청년 꿀팁 이메일 뉴스레터 정기 제공
- 관심사가 비슷한 청년 간의 네트워킹 지원 및 청년 권익을 위한 각종 위원회 후보 추천

[그림 5-5] 제주 <청년DB> 관련 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에게 관심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청년정보 메시지 청년데이터베이스(DB) 알림톡을 올해 총 185 회·12만 건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략) 청년DB 알림톡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5%)이 '제공되는 청년정보가 유용하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략) 청년정보의 관심 분야는 활동·자립·소득의 3개 분야이며, 받아보기 원하는 정보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략) 현재 청년등록시스템에는 도내 1,586명의 청년이 등록했으며,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제주, 청년정보 '한눈에' 10명 중 9명 '정보 유용'", 아시아투데이(2021.12.19.).

■ 기대 효과

- 청년의 소속감 증진 및 정책 인지도 향상을 통해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 청년들의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반영
-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수혜 대상 확대

■ 정책과제 3. 청년 행복꾸러미 제공

■ 필요성

- 구리시 거주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으므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구리시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들에게 정책 안내 책자와 필수물품이 담긴 행복꾸러미 제공

■ 추진 내용

- 만 19~39세 청년 중 청년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복꾸러미를 신청한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안내 키트 및 유형별 생활 물품 제공(예산에 맞춰 규모 조정 가능)
- 행복꾸러미 유형: 밀키트,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 중 직접 선택

■ 우수 정책 사례

- 부산청년행복박스는(2021년 기준)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4,000명에게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가 제작한 행복푸드박스(밀키트)와 청년정책 지원사업 홍보지 제공

-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는 만 19~29세 청년 중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3,600명에게 청년정책 안내 책자, 청년 공간 및 서울 주요 명소 안내지도 리플릿, 생활물품(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중 택1) 제공

[그림 5-6] 청년 행복박스 및 웰컴박스 예시



자료 : “부산시 ‘힘내라 부산 청년’... 청년행복박스 2차 배송”, CCTV뉴스(2021.6.28.).
 “드디어 도착! 서울시 1인가구 웰컴박스 열어보니...”, 내손안에서서울(2022.3.29.).

■ 기대 효과

- 행복꾸러미 물품 구성 시 구리시 청년 창업기업(공방, 식당 등)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 구리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향상
- 구리시 청년정책 안내 책자 배포를 통해 정책 인지도 향상 및 실효성 제고
- 구리시에 대한 신뢰도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고, 행복 증진과 삶의 질 제고 가능

■ 정책과제 4.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청년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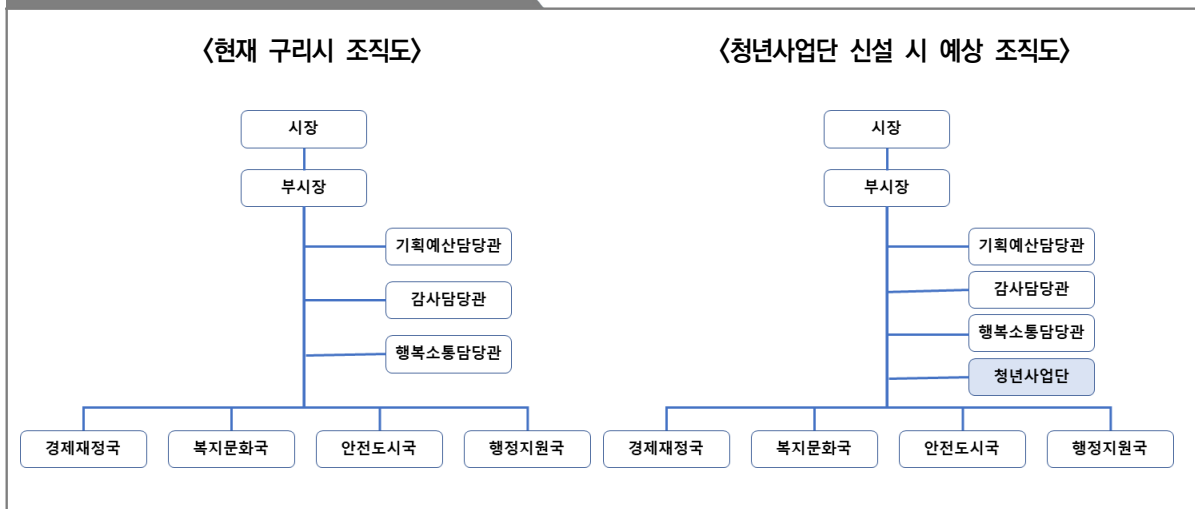
■ 필요성

-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전담 부서 부재
- 현재 구리시 청년정책은 행복소통담당관이 담당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한계
- 여러 영역의 청년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주거·금융 등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정책 실행 어려움

■ 추진 내용

- 국 단위 경계를 넘어서는 부시장 직속 ‘청년사업단’을 신설
- 현재 행복소통담당관 및 경제재정국 소속 일자리경제과, 복지문화국 소속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및 조정

[그림 5-7] 청년사업단 신설 예상 조직도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6개 시가 청년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부서 및 담당 인원은 아래와 같음
 - 고양시 청년담당관(14명), 과천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4명), 군포시 생애복지국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3명), 수원시 청년정책관(13명), 시흥시 청년청소년과(17명), 안산시 청년정책과(13명), 용인시 청년담당관(11명)

■ 기대 효과

- 청년정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청년정책 정보가 산재해 있는 한계 극복
- 정책별로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 가능
- 실무부서가 분산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청년정책의 추진력 향상
-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책 피드백 기능 활성화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1. 결론

-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을 정책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 및 경제구조 고착화로 이행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년을 정책과 지원 필요 대상으로 인식 시작
 - 청년 세대는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일자리와 고용 중심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청년정책 체계화,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제시 및 추진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리시 현황 분석'과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구리시 청년은 전체 인구 중 27.7%를 차지하며, 지역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지역 청년 현실 이해, 다양한 유형의 청년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추진 필요
- 구리시 인구 및 환경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구리시 청년 인구 이동 추이와 출산수준 등을 감안할 때, 청년 및 유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경기도 전체 청년 인구에서 구리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구리시는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취/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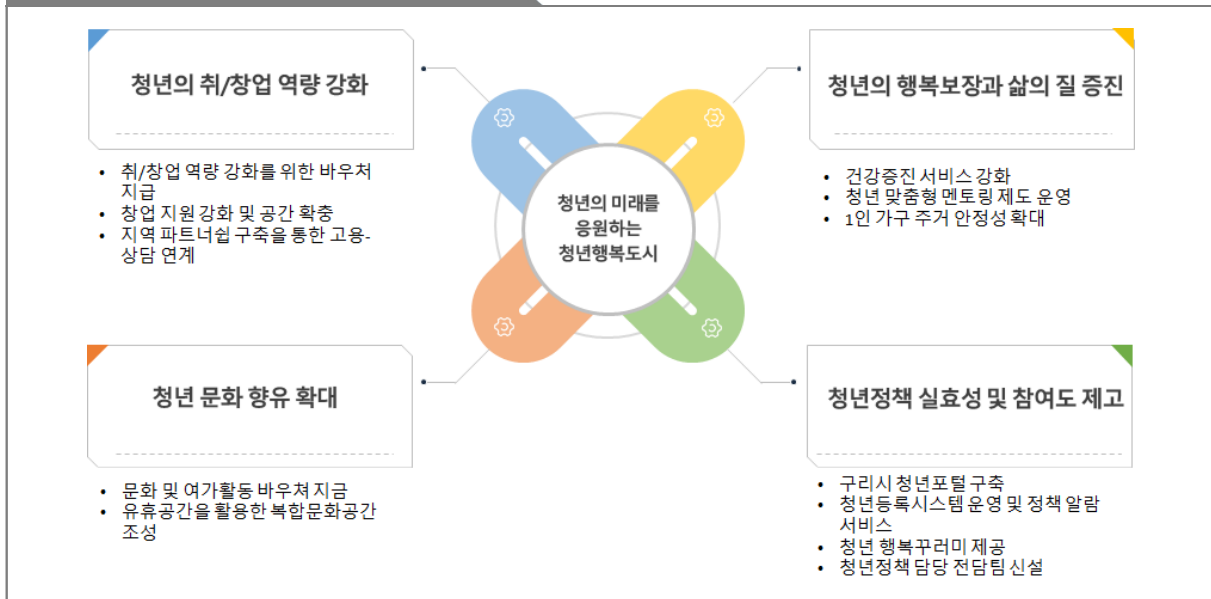
- 구리시 청년 만족도 및 행복 수준은 다른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교육과 주거 분야 정책 보완 및 확대, 구리시 청년 생활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파악을 통한 정책적 접근 필요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핵심 영역별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의견 다수
 - 구리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필요
 -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필요
 -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창업자금 지원으로 실질적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필요
 - 교육에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 취업과 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멘토링제도 활용
- 복지 영역에는 건강, 주거, 주관적 웰빙 등을 포함하여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존재
 -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및 주거지원 서비스와 주거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한 계약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서비스 지원 필요
 - 청년의 높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이 필요하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건강검진 서비스 적용 검토
 - 청년의 고민 해결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제도 운영 필요
- 구리시 청년은 문화 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콘텐츠가 모두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과 개선 필요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편이며, 구리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높음
 -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현황 파악 필요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마련과 바우처 지급을 통한 참여도 제고 필요
-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위해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 구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로 홍보 부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 수단으로는 SNS라는 응답이 높음
- 청년들에게 구리시의 정책이나 방향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인과 교육이 동시에 필요
-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공간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유희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구리시 환경 특성과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구리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청년정책 개선 및 발전을 위한 4가지 추진전략과 12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함
- 구리시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구리시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영역(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권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전략 1 : (일자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정책과제 1.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 정책과제 2. 청년 멘티와 창업 멘토를 연결시켜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
- 정책과제 3. 구리시 내에 있는 기업들과 청년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청년들이 구리시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기업체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상담 서비스의 강화

[그림 6-1]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 전략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추진전략 2 : (복지)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 정책과제 1. 신체적 건강증진 사업, 심리적 건강증진 사업, 건강 관련 교육 사업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 정책과제 2.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멘토를 섭외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동일한 목표와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주제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운영
- 정책과제 3. 청년들의 거주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 미달의 주거지에 안심주거 지원 서비스와 이사 준비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이사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 3 : (문화) 청년 문화 향유 확대

- 정책과제 1. 청년에게 바우처 형태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원하고, 바우처 사용처에 관내 청년 예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청년예술인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과제 2.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 활동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가능하도록 운영

■ 추진전략 4: (참여/관리)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 정책과제 1. 구리시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리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개설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가칭) 구축
- 정책과제 2.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심 정책 분야를 설정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DB에 등록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맞는 정책 정보를 문자 및 메일로 전송하는 정책 알람서비스 제공
- 정책과제 3. 만 19~39세 청년 중 청년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복꾸러미를 신청한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안내 키트 및 유형별 생활물품 제공
- 정책과제 4.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인 ‘청년사업단’을 신설 제안

2. 정책 제언

■ 정책과제는 자원 상황 및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적용 필요

- 중요도, 시급성, 차별성, 파급 효과 등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1인 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집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표 6-1〉 정책과제 우선순위

추진전략	정책과제	중요도	시급성	차별성	파급 효과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고	중	중	중
	• 창업 지원 강화 및 공간 확충	고	저	중	중
	•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용-상담 연계 강화	중	중	중	중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중	중	저	저
	• 청년 맞춤형 멘토링 제도 운영(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중	저	저	저
	• 1인 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	고	고	저	중
청년 문화 향유 확대	• 문화 및 여가활동 바우처 지급	중	저	중	중
	•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고	중	중	중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고	고	저	고
	• 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정책 알람 서비스	고	중	저	고
	• 청년 행복꾸러미 제공	중	저	중	중
	•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청년사업단)	고	고	중	고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청년사업단 신설과 홈페이지 구축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필요
 - 제시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의 확충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건임

- 청년들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립의 의지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라는 관점보다 정책참여자라는 관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 필요
- 청년 전담 부서는 구리시 청년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기획과 실행, 평가나 모니터링에서도 청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과 시청 내 담당 부서의 충분한 파트너십 구축 필요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등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
 -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리시청 홈페이지와 경기청년포털의 콘텐츠와 관련 내용들을 새로운 페이지로 구축
 - 홈페이지 구축 후, 현재 구리시통합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이관한 후,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
-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역 내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청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기존 민관협력은 공무원과 청년당사자 차원의 협력이었다면, 구리시 내 공간을 빌리거나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자원 동원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용-상담 연계 강화’나 ‘청년 맞춤형 멘토링 제도’, ‘바우처 활용’ ‘유희공간 활용’ 등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도움과 지원이 중요
 -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고, 청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활동들을 발굴 지원하는 방식이나 지역 내 시민단체의 청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
 - 지역 내 시민단체나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청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구리시에서 이를 지원하고, 한편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가능하다면 지역 내 교육시설이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인프라 등의 다각적인 검토 필요
-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정책과제 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문화바우처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내 문화 활동 전이나 활동에 사용하게 되고, 이는 지역 상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화바우처는 청년 예술인이 운영하는 공방이나 체험활동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의 소득 보장 효과와 창업 역량 강화 제고
 -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와 멘토링제도의 인력풀을 공유함으로써 맞춤형 상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청년정책과 관련된 지표 측정 및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 필요
 - 지표화가 가능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청년정책의 전략과 정책과제에서 적절한 몇 가지를 뽑아서 지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방향 필요
 - 성과지표는 청년의 수요와 욕구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이 연구는 구리시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조사’와 ‘구리시 청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리시 청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전략과 정책 등이 실현된다면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통해 모범 사례로 활용 가능
- 반면, 구리시 청년 내에서도 거주지역(동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수요와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21.4).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 경기도(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경기도일자리재단(2021). “2021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 경기연구원(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 “광명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집중, ‘청년들이 만들어 온 광명시 청년정책’”, 브릿지경제(2022.2.17.).
- 구리시(2021). “구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 국제연합(2019). 『청소년2030 : UN 청소년전략 한국어판 (이지향,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김명중(2016).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pp.91-111.
- 노수경 외(2021). 『청년문화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창언(2021). “취약계층 청년 발굴과 청년센터의 역할-청년도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1 청년정책 포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청년허브.
- 배효정(2016).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 서울청년센터 오랑(2020). 『서울청년센터 오랑 안내서』.
- 손동영(2021).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 『Global Youth & Now』, 21-S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스페인 시골 공공근로 사업... '청년실업과 인구감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BS 뉴스(2021.5.11.).
- “스페인 정부의 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2022.1.25.).
- “[스페인]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1월)”, 해외문화홍보원(2022.1.15.).
- 신동훈 외(2021).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산시(2022.1). “2022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안양산업진흥원 『청년오피스』 2022년 라운지 멤버십 모집 공고”, (재)안양산업진흥원 공고 2022-13(2022.1.11.).
- “우리의 해, 우리의 목소리”-세계 청소년의 해(2010-2011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식(2010.9.6.).
- 이윤주 외(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천광역시(202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임유진(2020).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과 「청년기본법」”,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청년지원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9.3.).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6기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고(2022.1.19.).

“제주, 청년정보 ‘한눈에’ 10명중 9명 ‘정보 유용’”, 아시아투데이(2021.12.19.).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참여팀 모집 공고”, 경기도 공고(2022.1).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2.3.6.).

“청년센터 설립과 청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프랑스 파리市)”,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 506호(2021.7.9.).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 그 ‘첫 주춧돌’ 놓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3.30.).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거주안정계획’ 시행 (중국 광둥省)”,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508호 (2021.9.15.).

“청년정책조정위 중심으로 청년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기구·인력 보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9.1.).

최은정(2020). “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하예 외(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2(3):77-99.

Isabelle Le Mouillour(2021).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9(12):19-29.

“National Gallery turns to TikTok and Snapchat to attract younger audience”, The Telegraph(2021.4.29.).

Sandra Gracia Lopez(2021). “코로나19 시기의 니트(NEET) 문제: 스페인 청년보장제도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 경기도 공고(2020.12).

“2022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2차모집”, 안양시 공고(2022.2.8.).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 “<http://www.ggdorm.or.kr/>”.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광명시 청년동 홈페이지. “<https://www.gmyouthzone.org>”.

구리시 홈페이지. “<https://www.guri.go.kr>”.

부산광역시 청년G대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young/culture05>”.

서울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orang/>”.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수원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http://www.swyouthpolicy.kr/>”.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ca.or.kr/>”.

잡 카드 홈페이지. “https://jobcard.mhlw.go.jp/job_card.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www.1jeune1solution.gouv.f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Implementation Plan for Youth Policy in Guri City

As interest in young people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youth policies grew, young people began to be recognized as targets of policies and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y and development plan for Guri City Youth Policy through a survey of the youth of Guri City. Based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Guri City and the results of the 'Guri City Youth Status Survey', we derived four promotion strategies and 12 policy task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Guri City youth policy. The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youth policy in Guri City were composed of four core areas (jobs, welfare, culture, participation/rights) with the goal of promoting and develop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young people in Guri City. Four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reinforcement of young people's employment/startup capabilities, second, Ensure happines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third, expand youth enjoyment of culture, fourth, improvement of Youth Policy Effectiveness and Particip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motion strategy, we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policy priority selection and task linkag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portal system with a youth business group should be preemptively carried out. Finally, it will be important to steadily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Keyword Guri City, Guri City Youth Policy, Empowerment, Mentoring, Participation

파
라

부록 1. 구리시 청년실태조사 조사표

구리시 청년 실태조사		ID			
<p>안녕하십니까?</p> <p>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리시에서는 청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구리시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본 설문조사는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p> <p>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월</p>					
조사주관	경기연구원	조사기관	(주)칸타코리아		

조 사 일 시	2022년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분 동안)			
DQ1. 거주지(행정동)	① 갈매동 ⑤ 교문2동	② 동구동 ⑥ 수택1동	③ 인창동 ⑦ 수택2동	④ 교문1동 ⑧ 수택3동
DQ2.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영업겸용 단독포함)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오피스텔(주상복합) ⑦ 기타()			
DQ3. 점 유 형 태	① 자가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② 전세 ⑤ 무상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⑥ 기타()	

DQ4. 성별	DQ5. 연령	DQ6. 혼인상태	DQ7. 현재 학력	DQ8. 구리시 거주 기간
① 남 ② 여	① 만19-24세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④ 만35-39세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____년 ____개월

A. 가족

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낫다 |
| ③ 안 해도 상관없다 | ④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2. 귀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있어야 한다 | ② 있으면 좋겠다 |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④ 자녀를 원치 않는다 |

3. 출산, 육아 대책 중 가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확대 |
| ③ 육아휴직 장려 | ④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 |
| ⑤ 방과후 서비스 및 아동수당 확대 | ⑥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
| ⑦ 기타() | |

B. 고용 및 일자리

1.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에 해당

- | | |
|--------------|----------|
| ① 일을 하였음 | → 문2로 이동 |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 문2로 이동 |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

1-1.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일자리를 구해보셨습니까?

- | | |
|---|------------|
| ① 일자리를 구해보았고,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 문10으로 이동 |
| ② 일자리를 구해보았지만, 일자리가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 문10으로 이동 |
| ③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 | |

1-2.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②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 |
| ③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 ④ 가사,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
| ⑤ 학교 재학 및 학업 준비 | ⑥ 기타 () |
| → ① 응답자는 문11로 이동 | |
| →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는 문10으로 이동 | |

2. 귀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 ④ 서비스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 ⑩ 군인 | ⑪ 기타 () | |

3. 현재 직장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
|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4.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12개월 미만 ③ 1~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5.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1) 근로일수 주 일
2) 근로시간 주 시간

6.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은 최종학교 전공(계열)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약간 일치	매우 일치	해당 없음 (전공 없음 포함)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직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2) 일자리 안정성	①	②	③	④
3)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4) 근로 환경	①	②	③	④
5) 근로 시간	①	②	③	④
6)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①	②	③	④

8.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그만둘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문13으로 이동

9. 이직이나 전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보수 및 복지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근무환경(장소, 출퇴근 시간 등) 불만족 ④ 안정적이지 않아서
⑤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위해 ⑥ 육아 및 가사 부담
⑦ 직장 내 갈등 ⑧ 발전가능성이 낮아서
⑨ 계약기간이 끝나서 ⑩ 기타()

10.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양질의 일자리 부족 ② 취업·창업 정보 부족
③ 경력·학력·기술이 맞지 않음 ④ 근무조건(임금, 환경 등)의 차이
⑤ 학력, 외모, 성별과 같은 사회적 차별 ⑥ 취업 준비 비용 부담
⑦ 육아 및 가사 부담 ⑧ 기타()
⑨ 구직활동 경험이 없다

1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④ 정부(중앙 및 지방 공기업) ⑤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 기업 ⑥ 스타트업
⑦ 기타()

12. 귀하가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전일제 임금근로자 ② 파트타임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프리랜서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13. 귀하는 구리시 내에서 취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몇 개 알고 계십니까?

- ① 없음 ② 1-2개 ③ 3-4개 ④ 5-9개 ⑤ 10개 이상

14.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일자리 정보 제공 ② 구직 활동 비용 지원
③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④ 창업 환경 개선
⑤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⑥ 적성 및 진로 상담 서비스
⑦ 기타()

C. 가계 및 경제

1. 귀하가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원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1) 근로소득 (주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포함)	①	②
2) 금융소득	①	②
3) 용돈 (부모님 및 가족)	①	②
4) 정부 및 외부 지원금	①	②
5) 기타 ()	①	②

1-1. 귀하가 앞의 문1에서 선택해주신 항목 전체를 합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 원 미만
③ 100-150만 원 미만 ④ 150-200만 원 미만
⑤ 200-250만 원 미만 ⑥ 250-300만 원 미만
⑦ 300-350만 원 미만 ⑧ 350-400만 원 미만
⑨ 400-450만 원 미만 ⑩ 450-500만 원 미만
⑪ 500만 원 이상

2. 귀하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① 50만 원 미만 ② 50-100만 원 미만
③ 100-150만 원 미만 ④ 150-200만 원 미만
⑤ 200-250만 원 미만 ⑥ 250-300만 원 미만
⑦ 300-350만 원 미만 ⑧ 350-400만 원 미만
⑨ 400만 원 이상

3. 귀하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주거비 ② 식비 ③ 교육/취업 준비 비용
④ 교통비 ⑤ 차량유지비 ⑥ 의류비
⑦ 문화 및 여가활동비 ⑧ 자녀 양육비 ⑨ 부모님 생활비
⑩ 부채상환 비용 ⑪ 보험/의료비 ⑫ 통신비
⑬ 기타()

4. 귀하는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5로 이동

4-1. 부채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 집 마련

③ 부동산·금융 투자자금 마련

⑤ 교육비 마련

⑦ 의료비 마련

⑨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⑪ 기타 ()

② 전·월세 보증금 마련

④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

⑥ 결혼자금 마련

⑧ 생활비(의식주) 마련

⑩ 자녀 양육비

5. 귀하는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6으로 이동

5-1. 귀하가 차량 유지비용으로 한 달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차량 할부금액, 보험료, 정비 비용 등을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① 25만원 미만

② 25-50만원 미만

③ 50-75만원 미만

④ 75-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6. 귀하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거비용 지원 정책

②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지원 사업

③ 긴급 대출 지원

④ 창업비 지원

⑤ 재테크 교육 컨설팅

⑥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지원

⑦ 기타 ()

D. 주거 및 교통

1. 귀하가 구리시에 전입하기 직전에 거주하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태어나면서부터 구리시에 계속 거주 → 문2로 이동

② _____시/도

1-1. 구리시로 이사 온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업 또는 직장

② 학업

③ 거주 여건

④ 경제 여건

⑤ 기타()

2.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5로 이동

3. 귀하는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① 부모님 지원

② 스스로 마련

③ 부모님 지원+스스로 마련

④ 대출 및 부채

⑤ 무상 거주

⑥ 기타()

4.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까?

① 例

② 아니오

→ 문5로 이동

4-1. 귀하가 혼자 살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때문에(구직 포함) ② 학업 때문에
③ 건강상의 문제로(요양 포함) ④ 가족 간 불화로
⑤ 독립을 위해서 ⑥ 기타()

4-2. 귀하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식사해결 ② 가사 및 집안 일 처리
③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 ④ 이사, 집(방) 구하기 등 주거활동
⑤ 문화·여가활동 ⑥ 공공업무(관공서, 은행 업무 등) 처리
⑦ 외로움 ⑧ 기타()

5. 귀하가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주거비: 대출상환액 및 임차료 포함/주거관리비 제외

※ 주거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 제외)

① 주거비 부담 ② 주거관리비 부담
③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 ④ 치안 및 안전 미흡
⑤ 주변 편의 시설 부족 ⑥ 주차 공간 및 시설 부족
⑦ 기타()

6. 귀하는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① 청년 주택 공급 ②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
③ 주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④ 임차인 권리 보장 및 상담 프로그램
⑤ 월세 지원 ⑥ 주변 환경 안전 관리 및 치안 강화
⑦ 기타()

7. 귀하께서는 평소 직장이나 학교로 통근/통학을 하고 계십니까?

※ 통근/통학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8. 귀하의 현재 학교 혹은 직장은 어디입니까?

① 구리시 ② 서울특별시
③ 경기도 타 시군(시군) ④ 서울/경기 외 지역

9. 귀하가 학교 혹은 일터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
④ 택시 ⑤ 자전거 ⑥ 통근/통학버스
⑦ 전동 모빌리티 ⑧ 오토바이 ⑨ 기타()

10. 귀하는 평소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교통비로 얼마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 금액은 '왕복'을 기준을 응답)

(※ 승용차는 통근/통학에 필요한 기름값과 주차비, 통행요금만 반영)

1천 원 만 원

11. 귀하가 평소 통근이나 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왕복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왕복 분

E. 문화와 여가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많음
1)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2)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등산, 산책 등 포함)	①	②	③	④
3) 관광활동	①	②	③	④
4)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①	②	③	④
5) 사회 및 기타활동	①	②	③	④
6) 취미, 자기계발 활동	①	②	③	④

2. 귀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을 주로 어느 지역에서 즐기십니까?

- ① 구리시
- 문3으로 이동
- ② 서울특별시
- ③ 경기도 타 시군(시군)
- ④ 서울/경기 외 지역

2-1. 구리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콘텐츠 부족
- ② 인프라 부족
- ③ 교통 불편
- ④ 정보 부족
- ⑤ 강사 및 전문가 부족
- ⑥ 기타()

3. 귀하는 구리시의 전반적인 문화 및 여가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4. 귀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문화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 ② 문화 공간 마련
- ③ 여가활동비 지원
- ④ 동아리/소모임 지원
- ⑤ 정보 공유 사이트 마련
- ⑥ 청년 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 ⑦ 기타()

F.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이나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항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 년에 한/두 번	전혀 가지 않음
1)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2) 종교모임활동 (교회, 성당, 사찰 등)	①	②	③	④
3) 교육모임활동 (학부모모임 등)	①	②	③	④
4) 운동모임활동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①	②	③	④
5) 문화모임활동 (독서모임, 예술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6) 사회단체활동 (환경, 인권단체 등)	①	②	③	④
7) 지역단체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주민단체, 지역협동조합 등)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항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향후 3년 후에도 구리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거주할 생각이 있다 → 문3-1로 이동
 ② 거주할 생각이 없다 → 문3-2로 이동
 ③ 모르겠다 → G. 주관적 웰빙으로 이동

3-1. 구리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및 직장 위치 ② 주거비가 저렴해서 ③ 교육 여건이 좋아서
 ④ 문화 및 여가 인프라 구축 ⑤ 자연환경(공원, 녹지) ⑥ 교통 편리
 ⑦ 연고지, 생활터전 ⑧ 가족 및 지인이 있어서 ⑨ 기타()

3-2. 구리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 부족 ② 주거비 부담 ③ 자녀 교육 여건 미흡
 ④ 문화 및 여가 여건 미흡 ⑤ 육아 환경 열악 ⑥ 교통 불편
 ⑦ 치안 및 안전 불안 ⑧ 가족과 거주하기 위해 ⑨ 기타()

G. 주관적 웰빙

1. 귀하는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매우 건강함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매우 받음
①	②	③	④

3. 귀하는 다음의 삶의 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1) 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경제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고용 및 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교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환경 및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건강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여가 및 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의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음			← 보통				→ 매우 행복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음			← 보통				→ 매우 우울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귀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진로 | ② 공부(성적) | ③ 직장 안정성 |
| ④ 결혼 및 연애 | ⑤ 학비 및 생활비 마련 | ⑥ 여가생활 |
| ⑦ 주거 | ⑧ 건강 | ⑨ 사회적 지위 |
| ⑩ 친구 관계 | ⑪ 외모 | ⑫ 출산 및 육아 |
| ⑬ 고민 없음 | ⑭ 기타() | |

8. 귀하가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부의 축적 | ② 일과 삶의 균형 | ③ 인간관계 형성 |
| ④ 가족 | ⑤ 사회 기여 | ⑥ 자아 실현 |
| ⑦ 명성·명예 | ⑧ 기타() | |

9. 귀하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주거 | ② 경제 상황 | ③ 가족 |
| ④ 고용 및 일자리 | ⑤ 교통 | ⑥ 환경 및 안전 |
| ⑦ 건강 및 보건 | ⑧ 문화 및 여가활동 | ⑨ 교육 및 학습 |
| ⑩ 기타() | | |

10. 귀하에게 전문 상담 기회가 생긴다면 필요한 상담 주제는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재무 및 재테크 | ② 연애 및 결혼 | ③ 심리 및 정신건강 | ④ 진로 및 적성 |
| ⑤ 취업 및 창업 | ⑥ 대인관계 | ⑦ 가정문제 | ⑧ 기타() |

H. 정책 체감도

1. 구리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지원 정책 중 알고 있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고, 정책의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도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참여 경험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1) 인지도		2) 참여 경험 (수혜 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있음	없음
1)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청년(예비) 창업가들을 위해 입주시설 지원, 교육, 맞춤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①	②	①	②
2) 꿈꾸는 공작소(메이커스페이스) - 구리시 인창도서관에 운영중인 창업과 관련된 체험중심의 메이커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3) 공유주방(공드린 주방) 운영 사업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초보자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	①	②	①	②
4)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구직 청년과 지역 기업의 매칭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①	②	①	②
6)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온라인 AI 면접 컨설팅, 슈퍼루키 청년뉴딜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7)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①	②	①	②
8) 청년상인 아카데미	①	②	①	②
9) 구리시 행복주택 사업	①	②	①	②
1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①	②	①	②
11)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①	②	①	②
1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운영 사업	①	②	①	②
1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14) 구리시 청년행복 알바 사업	①	②	①	②
15)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1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①	②	①	②
17)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18) 신생아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19)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①	②	①	②
20) 청소년 온라인 대학생 멘토 및 청소년 멘티 운영 사업	①	②	①	②

2. 귀하는 공공에서 청년 정책의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업 여부 ② 경제적 여건 ③ 사회적 고립 여부
④ 신체적 어려움 ⑤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 ⑥ 기타()

3. 귀하는 공공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4로 이동 ② 아니오

3-1. 귀하는 공공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산업구조의 변화 ② 제도권 교육 ③ 정책 설계 실패
④ 정책 홍보 부족 ⑤ 개인의 의지 부족 ⑥ 기타()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많음
①	②	③	④

3. 귀하가 이용한 구리시 청년공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4. 귀하가 구리시 청년공간을 통해 지원을 받고 싶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 | ②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 |
| ③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 ④ 건강 검진 |
| ⑤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⑥ 동아리 활동 지원 |
| ⑦ 기타() | |

J. 역량

1.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직무 능력 | ② 재무 관리/재테크 | ③ 외국어 능력 |
| ④ 의사소통 | ⑤ IT 역량 | ⑥ 종합 교양 |
| ⑦ 자신감 | ⑧ 기타() | |

2. 귀하의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학자금 지원 | ② 도서비 지원 | ③ 학원비 지원 |
| ④ 진로지도 및 멘토링 | ⑤ 심리 상담 | ⑥ 직업경험(인턴) |
| ⑦ 기타() | | |

3. 귀하의 발전을 위해 누구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또래 청년(들) | ② 실무 활동가 | ③ 인생 멘토 |
| ④ 전문 상담가 | ⑤ 이성친구 및 배우자 | ⑥ 기타() |

4. 귀하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학위과정(전공 공부) | ② 어학 공부 | ③ 자격증 취득 |
| ④ 직무관련 교육 | ⑤ 신체단련을 위한 운동 | ⑥ 문화 및 교양 |
| ⑦ 기타() | ⑧ 없음 | |

5. 귀하가 원하는 만큼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비용 부담 | ② 시간 부족 | ③ 정보 부족 |
| ④ 건강상 이유 | ⑤ 교육기관 부재 | ⑥ 기타() |

K. 창업

1. 귀하는 평소 창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많음
①	②	③	④

2. 귀하가 추후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창업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프리랜서
- ② 소상공인
- ③ 에이전시
- ④ 스타트업
- ⑤ 기타()

3. 귀하가 추후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 ②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 ③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④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려고
- ⑤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서
- ⑥ 주변 지인이 창업하여 성공하는 것을 보고
- ⑦ 경기가 좋아 성공가능성이 높아서
- ⑧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4. 귀하는 구리시 창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 ④번 응답 시, 문7로 이동

5. 귀하는 구리시 창업지원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 ① 구리시 사이트
- ② 포스터
- ③ 지인
- ④ SNS
- ⑤ 기타()
- ⑥ 정보를 찾을 수 없다

6. 귀하가 추후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창업 초기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 ② 창업자금지원
- ③ 기술개발 지원
- ④ 국내 외 판로개척
- ⑤ 인력확보 지원
- ⑥ 법률, 회계,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영지원
- ⑦ 교육, 컨설팅
- ⑧ 기타()

7. 구리시에 바라는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향후 구리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여쭙기 위한 심층면접이나 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귀하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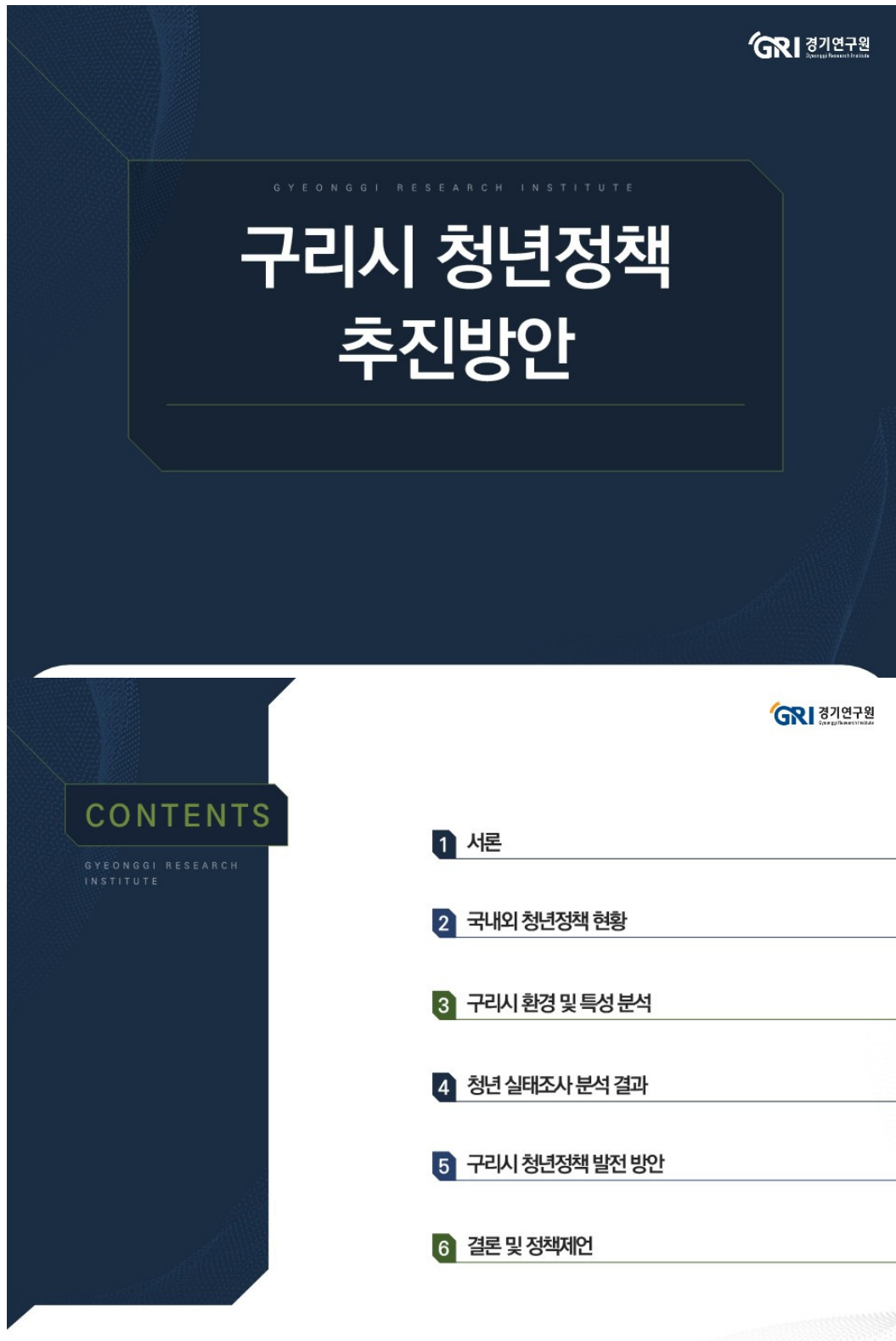
- ① 있다
- ② 없다

면접후기록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요약보고서





I.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구리시 청년(19~39세), 구리시 전체 인구 중 27.7%를 차지(약 5.4만 명)하면서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지역 청년 현실 이해, 다양한 유형의 청년 욕구 등 파악 등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추진 필요

구리시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구리시 청년 특성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연구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구리시 전역	시간적 범위	2021년, 2022년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특성 검토 : 구리시 현황 및 차별적 특성 파악 국내·외 청년정책 분석 : 국내외 청년정책 추진 여건 및 사례 분석 실태조사 : 구리시 청년 현황,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 다양한 청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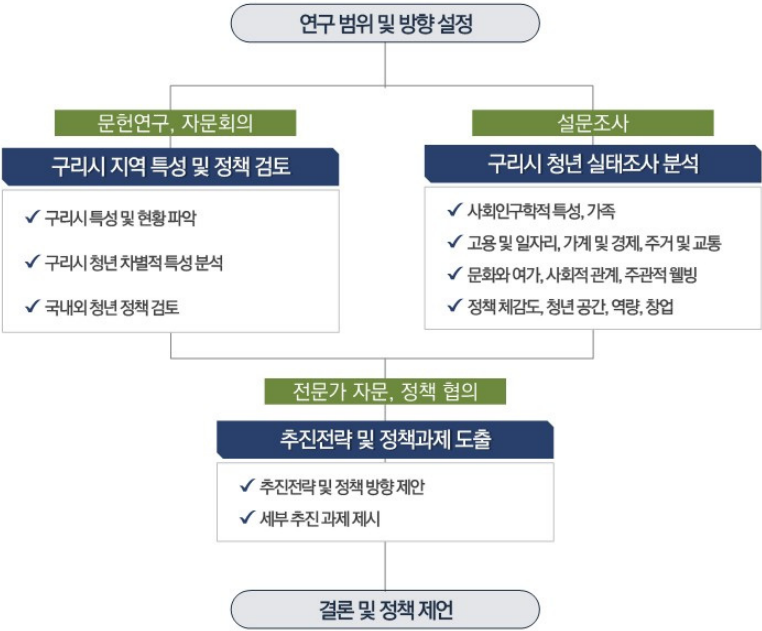
연구 방법

통계분석	▪ 구리시 청년 관련 기초 통계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정책의 의의 및 한계 평가를 통한 정책방향 도출
설문조사	▪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수요 발굴 ▪ 구리시 지역 청년센터 및 유관기관 종사자 인터뷰 및 자문
연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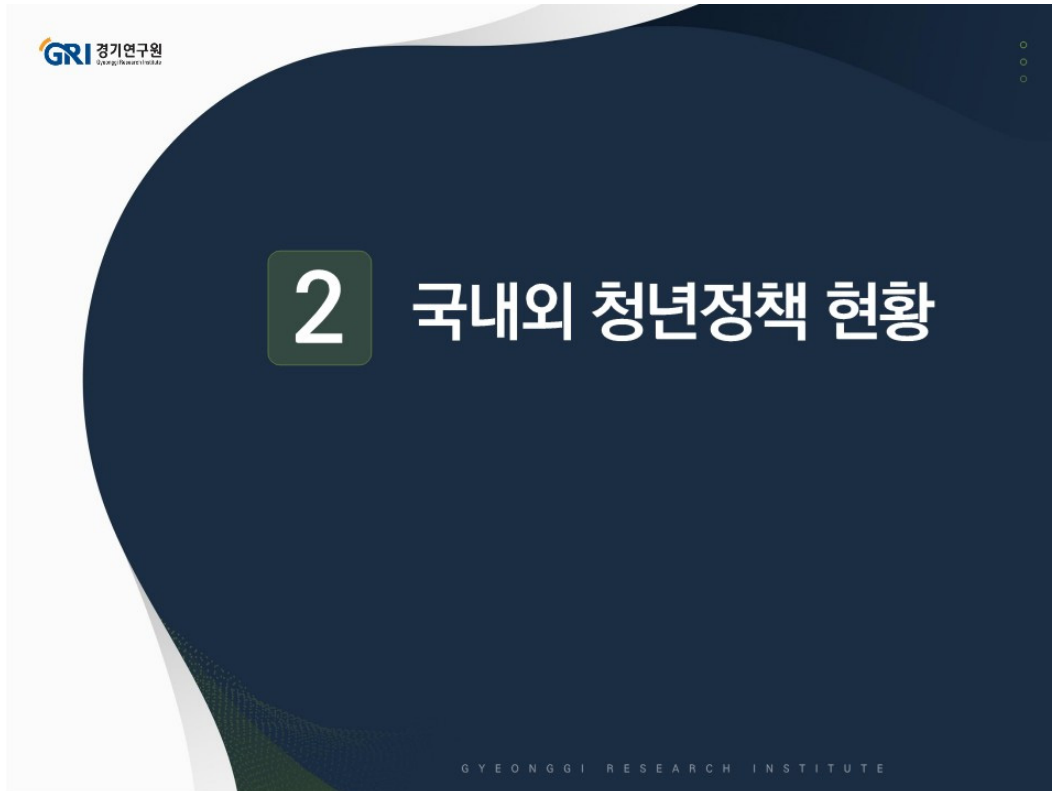


5

연구 추진 체계



6



II.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 국내 청년정책

01 중앙정부

▶ 청년정책 필요성 및 흐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대상 정책 중요성 증대

- ✓ 청년, 생애주기상 청소년과 성인을 잇는 이행기의 특성을 가진 세대로 인식되었지만 돌봄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사회경제적 위기와 구조 고착화로 이행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년을 정책과 지원 필요 대상으로 인식 시작
- ✓ 청년 세대는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년 실업 대책' 위주의 정책 추진 시작

- ✓ 역대 정부, 청년 실업문제 대응을 위하여 법 제정, 위원회 구성(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등 추진

일자리와 고용 중심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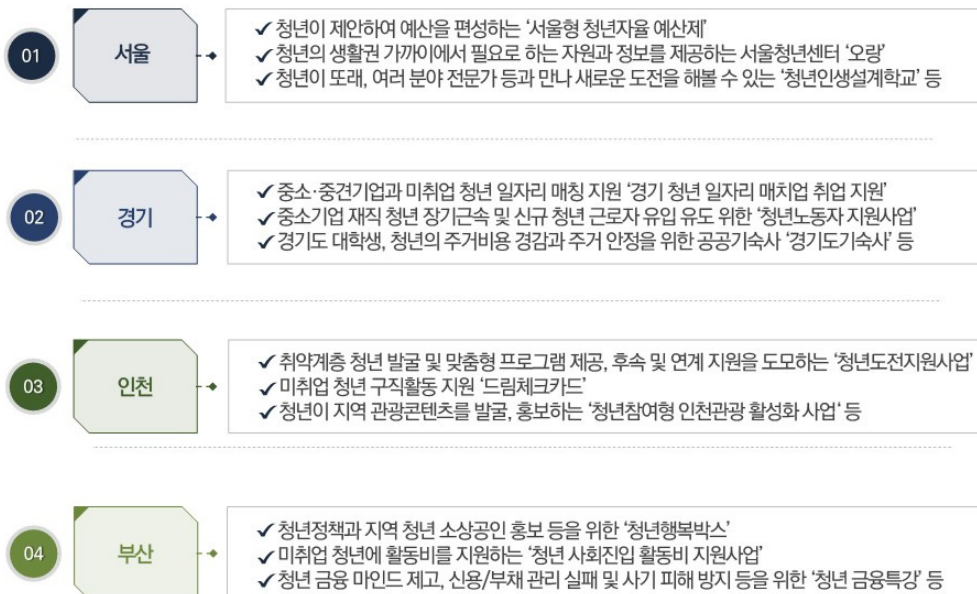
- ✓ 「청년기본법」 제정(2020.3) 이후 청년의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 확대 추진
-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청년정책 체계화,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제시 및 추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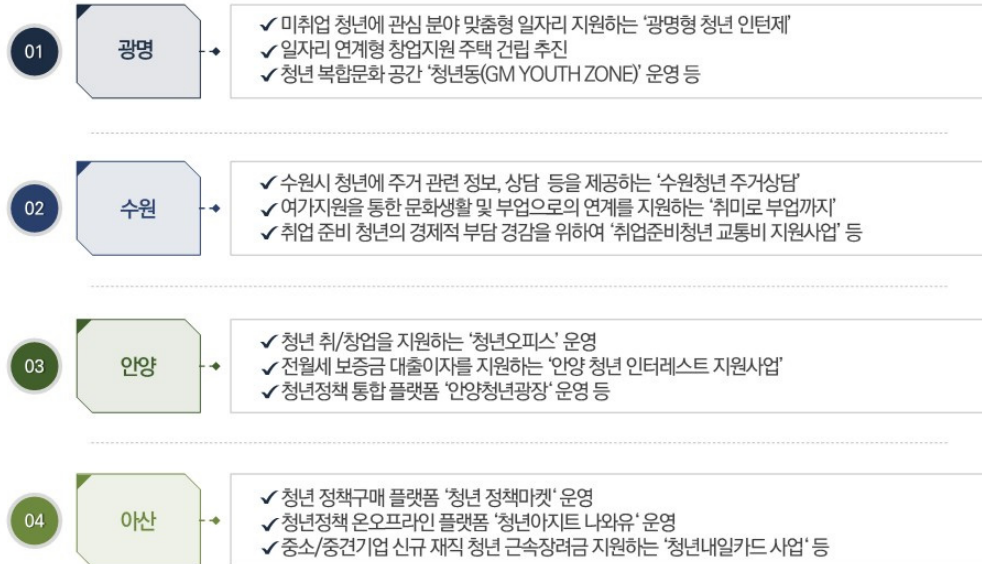
9

02 광역자치단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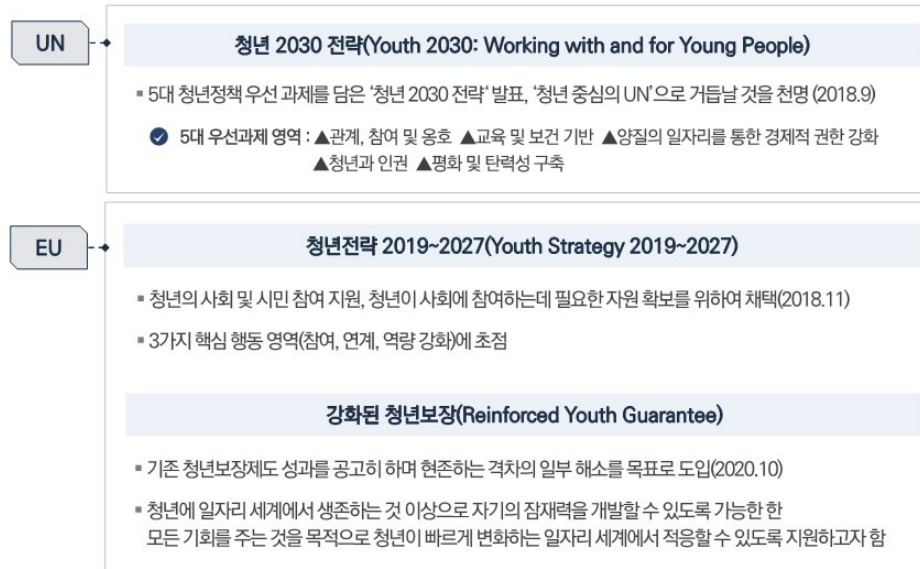
03 기초자치단체



11

▣ 해외 청년정책

01 국제기구



12

02 유럽

- 01 **영국**
 - ✓기업은 청년에 인턴십 기회 부여, 정부는 기업에 재정 지원 '익스타트 프로그램'
 - ✓학생에 취직 또는 견습 교육 준비 위한 근무경험 제공 '연수제도'
 - ✓청년 관객 모객을 위한 디지털 영역 강화 '내셔널 갤러리' 등
- 02 **스페인**
 - ✓청년이 시골에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골 공공근로 사업'
 - ✓청년 니트를 찾아 맞춤 지원과 진로 지도를 제공하는 도시 하혼 '청년 활성화 기관'의 거리상담사
 - ✓청년에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청년주거비 지원' 등
- 03 **프랑스**
 - ✓고용 관련 온라인 플랫폼 '한 청년을 위한 한가지 솔루션' 홈페이지 운영
 - ✓구직활동에 장기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수당을 보장하는 '청년고용계약'
 - ✓프랑스 파리지, 청년센터 설립과 청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등
- 04 **핀란드**
 - ✓개인 맞춤형 고용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TE-OFFICE'
 - ✓청년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싱키 오후야모 원스톱 안내센터'
 - ✓대학생이 회사를 설립, 경영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핀란드 탐페레시의 '프로아카데미' 등

13

■ 시사점

1 | **국내**

- ✓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려 및 대책 필요
- ✓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 다양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특성 파악이 선제적으로 필요
- ✓ 정해진 프로그램 지원보다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 계획,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필요
- ✓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예산 배정, 청년위원 수 확보 등에서 '청년예산' 도입 등 청년정책 제언, 입안 과정 중요
- ✓ 정책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니트 청년 등 잠재적 수요자 발굴 노력 필요
- ✓ 원스톱 정보 및 자원 제공, **다양한 공공부문(고용,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 간 협력 필요**
- ✓ **청년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 필요
 - 지역 청년 등록시스템 운영, SNS/행복박스/웰컴기프트 등을 활용한 청년 관련 정보와 정책 발송 등
- ✓ 청년을 위한 수당 지급, 바우처 제공 시 **지역경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 필요

14

2

국외

-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권리 제고 등의 전략 채택
-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신규 참여 기업에 직무훈련방법 등 컨설팅 지원
-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훈련 효과 제고,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직업 생활 맞춤형 자립 지원
-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 도모
- 청년의 단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이 아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 정책 추진 필요
- 지역 내 다양한 청년지원 공간(센터) 조성·운영
 - 특히 지역 청년지원센터는 고용, 교육 훈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5

3

구리시 환경 및 특성 분석

III. 구리시 환경 및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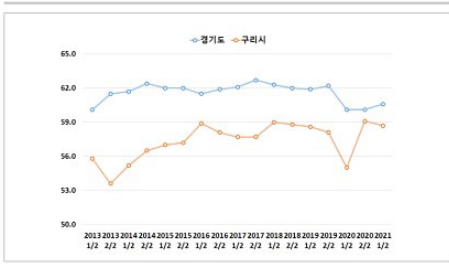
구리시 일반 현황

01 경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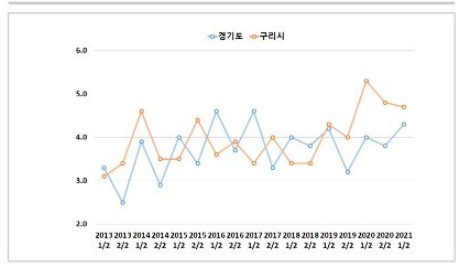
구리시의 경제 규모는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실업률은 높은 편

- ✓ GRDP 비중, 경기도 전체의 0.75%(3조 5,984억 원), 31개 시·군 중 27위 (2019년 기준)
- ✓ 고용률, 약 59.0% 수준으로 경기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 실업률, 시기별 차이를 보이나 코로나19 이후(2020년 상반기)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경기도 및 구리시 고용률 추이



경기도 및 구리시 실업률 추이



구리시 산업구조는 영세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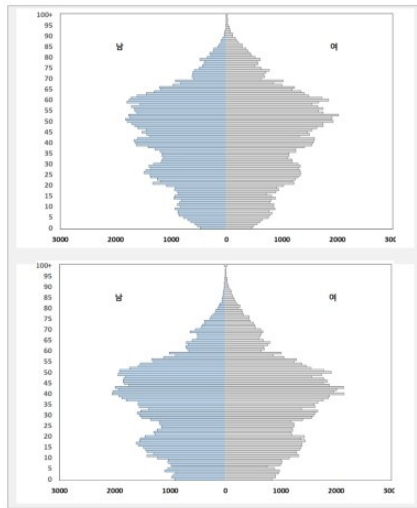
- ✓ 관내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비중 낮은 편
- ✓ 경기도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구조 보유

구 분	사업체			종사자		
	수(개)	산업별비중(%)	경기도 대비 비중(%)	수(명)	산업별비중(%)	경기도 대비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	0.0	0.2	2	0.0	0.0
광업	0	-	-	0	-	-
제조업	787	5.3	0.6	4,092	6.2	0.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0.0	0.5	87	0.1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2	0.1	1.0	336	0.5	1.2
건설업	457	3.1	1.5	4,031	6.1	1.4
도매 및 소매업	4,152	28.0	2.0	13,974	21.1	1.9
운수 및 창고업	1,838	12.4	2.0	4,106	6.2	1.6
숙박 및 음식점업	2,626	17.7	1.6	8,582	12.9	1.7
정보통신업	62	0.4	0.8	518	0.8	0.4
금융 및 보험업	162	1.1	2.2	2,902	4.4	2.8
부동산업	627	4.2	1.4	1,821	2.7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6	2.2	1.4	2,314	3.5	0.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9	1.4	1.4	2,834	4.3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	0.2	1.6	2,194	3.3	1.7
교육서비스업	781	5.3	1.7	5,105	7.7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19	4.2	1.8	7,395	11.1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82	3.3	1.6	1,624	2.4	1.4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643	11.1	1.8	4,466	6.7	2.2
전체	14,826	100.0	1.6	66,383	100.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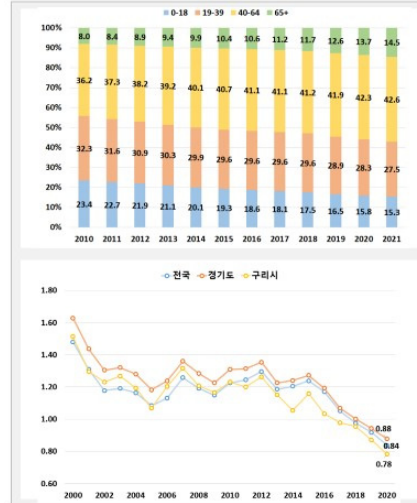
02 인구

- ✓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구리시 인구피라미드 모양 변화 (방추형 → 팽이형)
- ✓ 2021년 기준 구리시 전체 인구에서 각 연령대별 비중, 40~64세 → 19~39세 → 0~18세 순
- ✓ 전국 및 경기도 지역에 비해 낮은 0~18세 비중, 구리시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관련

인구 피라미드 변화(약: 2011년/아래: 2021년)



연령대별 인구구조(위) 및 합계출산율(아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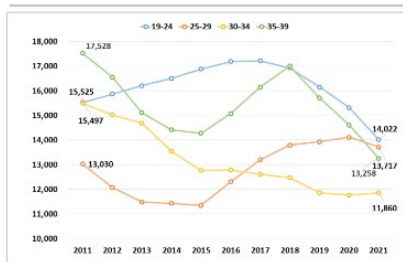
19

구리시 청년 현황 및 특성

01 청년 인구

- ✓ 구리시 청년인구, 지역별 각 연령대 비중 상이
- ✓ 2011년 대비 2021년
 - ▲청년 인구 약 8,700여명 감소
 - ▲19~29세 비율 증가 ▲30~39세 비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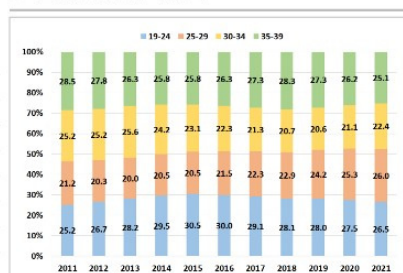
연령대별 청년인구수 변화



지역별 청년인구분포

구 분	19~24	25~29	30~34	35~39	청년인구	전체 대비 청년 비중(%)
갈매동	1,564	1,707	1,916	3,383	8,570	28.0
동구동	3,155	2,609	2,266	2,253	10,283	27.6
인창동	1,753	1,808	1,470	1,523	6,554	28.2
교문1동	1,059	1,217	1,076	970	4,322	26.6
교문2동	1,812	1,415	1,180	1,258	5,665	26.0
수택1동	1,118	1,337	1,049	951	4,455	28.5
수택2동	1,906	1,975	1,563	1,497	6,941	27.6
수택3동	1,655	1,649	1,340	1,423	6,067	27.7
합계	14,022	13,717	11,860	13,258	52,857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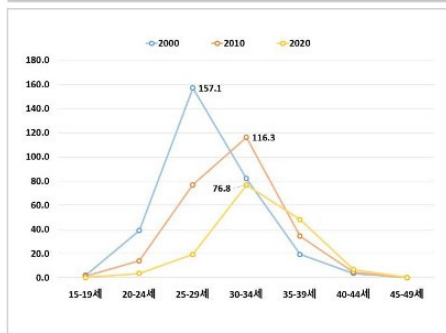
연령대별 청년인구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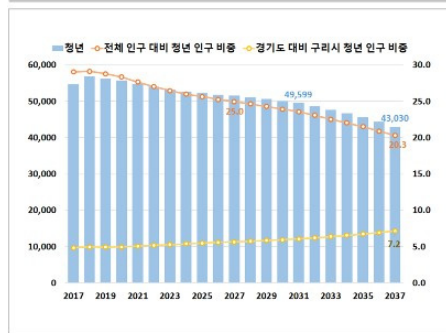
20

- ✓ 2020년 초혼 연령, 경기도(남 33.2세, 여 30.8세) 대비 구리시(남 33.8세, 여 31.5세)가 약간 높은 수준
- ✓ 구리시 연령대별 출산율은 낮아지고 출산연령은 높아지는 경향
- ✓ 구리시 청년인구 비중은 지속적 감소 예측, 경기도 청년 인구 대비 구리시 청년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

연령대별 출산율



청년인구 추계



21

02 청년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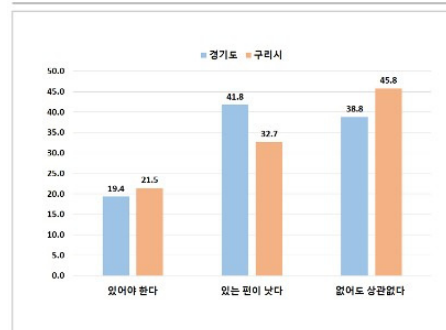
*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구리시 청년 대상 분석 결과

- ✓ 구리시 청년 절반 이상(51.5%)은 결혼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
 - 구리시 청년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낮은 편
- ✓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평균(38.8%) 대비 구리시(45.8%)가 상대적으로 높음
 - 구리시 청년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31개 시·군 중 6번째로 높은 수준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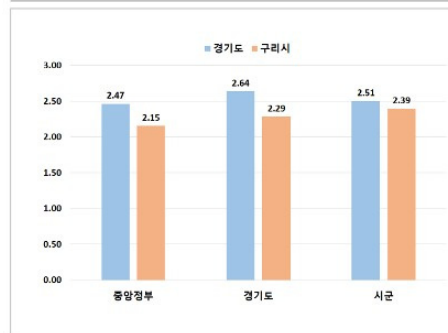
22

- ✓ 구리시 청년이 인식하는 행정 만족도, 시·군 2.40점 → 경기도 2.35점 → 중앙정부 2.10점 순
- 31개 시·군 청년 대비 행정 만족도, 시·군 28위, 경기도 30위, 중앙정부 31위
- ✓ 구리시 청년이 인식하는 행정 신뢰도, 시·군 2.39점 → 경기도 2.29점 → 중앙정부 2.15점 순
- 31개 시·군 청년 대비 행정 신뢰도, 시·군 27위, 경기도 31위, 중앙정부 30위

정책·행정만족도



정책·행정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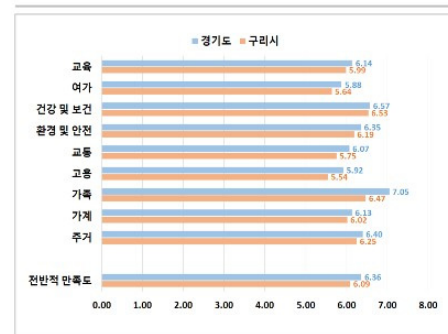
23

- ✓ 구리시 청년 일자리 만족도, 경기도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낮으며 격차 가장 큰 항목은 '일자리 안정성'
- 만족도(4점 만점)는 물질적 보상(3.00점), 보람과 자긍심(2.86점), 적성(2.83점) 순
- ✓ 구리시 청년 전반적 만족도와 행복 수준 모두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편
- 생활 만족 수준은 가족(0.58점), 고용(0.38점), 교통(0.32점) 순으로 경기도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행복 수준, 31개 시·군 중 28위

일자리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정신건강



24

구리시 청년정책 현황

핵심영역별 주요 방향

참여·권리 (6개 사업)

- 청년의 시정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강화 등)
- 청년정책 통합 추진 (전담조직 행정력 강화, 부서간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정책 분야 확대 추진)

일자리 (취업·창업, 17개 사업)

-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복지·문화 (21개 사업)

- 청년층을 위한 복지자원을 통해 생활 안정 추구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층 주거 금융 여건 개선



구리시 청년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와 일자리(취업, 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자리 분야에서 창업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창업 관련 지원 확대 필요
- 주거 분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교육 분야는 역량 강화나 일자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25

핵심영역별 정책과제

분야	정책 과제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구리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날' 기념 축제 운영 • 구리시 동별 청년협의체 운영 • 홈페이지 내 '청년정책코너' 개설·운영
일자리 (취업,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사업(4유형) • 일자리센터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3개과정) •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2개과정) • 구리시 청년 행복인턴사업 • 청년구직자 면접장장 무료대여 사업 • 구리시 청년 취업사진 촬영 지원 •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마스터 셀러' 교육 • 공원부지 등을 이용한 푸드트럭 설치 • 청년상인 아카데미(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 사회경제조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꿈꾸는 공작소 조성 및 운영(메이커스페이스) • 기업체 특례보증 지원사업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공유주방(공드린 주방) 운영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운영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자금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 신생아 출산지원금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산전검사/임신초기검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청소년 온라인 대학생 멘토 및 청소년 멘티 운영 • 지역예술인의 거리 예술 공연기회 확대 • 무료 야외결혼식장 대여 사업 •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카드 발송

26

■ 시사점

01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필요

- 구리시, 경제규모가 작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대비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이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을 위한 관리는 일자리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창출 필요
- 현 구리시 청년 일자리 분야 정책, 창업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청년 수요를 반영한 창업 관련 지원 확대 필요

02

구리시 청년 생활실태 파악과 삶의 질 증진

- 구리시 청년 만족도 및 행복 수준은 다른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교육과 주거 분야 정책 보완 및 확대, 구리시 청년 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파악을 통한 정책적 접근 필요
- 구리시 청년 인구, 경기도 대비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파악과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27

4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IV.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구리시
청년실태
조사

✓ 구리시 청년의 분야별 생활실태를 측정

✓ 청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분야별 청년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구리시 거주 만19~39세 청년

▪ 조사 방법: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 표본 추출: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 유효 표본: 320명

▪ 조사 기간: 2022년 1월 21일~2월 16일

조사내용

▪ 가족

▪ 고용 및 일자리

▪ 가계 및 경제

▪ 주거 및 교통

▪ 문화와 여가

▪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

▪ 주관적 웰빙

▪ 정책 체감도

▪ 청년공간

▪ 역량

▪ 창업

29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전체		(320)	100.0				
성별	남	(161)	50.3	주택형태	일반주택	(106)	33.1
	여	(159)	49.7		아파트	(194)	60.6
연령	만19~24세	(84)	26.3	소득	오피스텔 및 기타	(20)	6.3
	만25~29세	(82)	25.6		50만 원 미만	(28)	8.8
	만30~34세	(72)	22.5		50~150만 원 미만	(63)	19.7
	만35~39세	(82)	25.6		150~250만 원 미만	(74)	23.1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	22.2		250~350만 원 미만	(108)	33.8
	대학 재학	(63)	19.7		350~450만 원 미만	(37)	11.6
	대학 졸업	(181)	56.6		450만 원 이상	(10)	3.1
	대학원 이상	(5)	1.6	취업 여부	취업	(222)	69.4
혼인상태	미혼	(227)	70.9		미취업	(98)	30.6
	배우자 있음	(93)	29.1	구리시 거주기간	2년 미만	(49)	15.3
거주지	길매동	(52)	16.3		2~5년 미만	(62)	19.4
	동구동	(63)	19.7		5~15년 미만	(89)	27.8
	인창동	(40)	12.5		15~25년 미만	(77)	24.1
	교문1동	(25)	7.8		25년 이상	(43)	13.4
	교문2동	(35)	10.9	독립 여부	독립	(140)	43.8
	수택1동	(26)	8.1		비독립	(180)	56.3
	수택2동	(43)	13.4	가구 형태	1인 가구	(49)	15.3
	수택3동	(36)	11.3		다인 가구	(271)	84.7

30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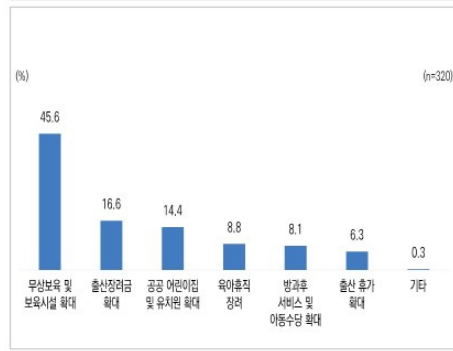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가치관



■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긍정적인 응답은 여성(56.6%)보다 남성(69.6%)에서 높았고, 고연령, 취업자(65.3%), 독립을 한 응답자(77.1%)에서 결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확대 시급한 출산 및 육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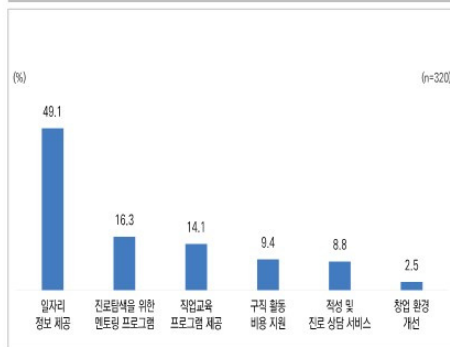
■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대'가 45.6%로 가장 높음

■ '출산 장려금 확대'는 남성, 만19~24세, 미혼에서 높았고, '공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는 여성, 만35~39세, 기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31

고용 및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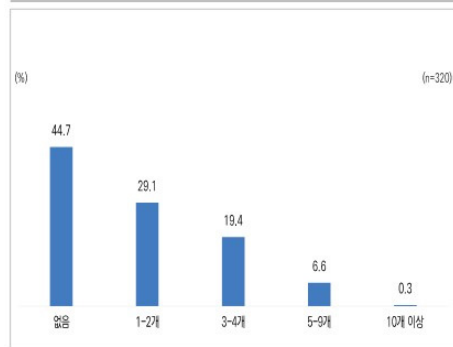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일자리 정보 제공' (49.1%)을 선택

■ '일자리 정보 제공'은 여성, 30대, 기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20대, 대학재학 이상,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알고 있는 구리시 내 유망중소기업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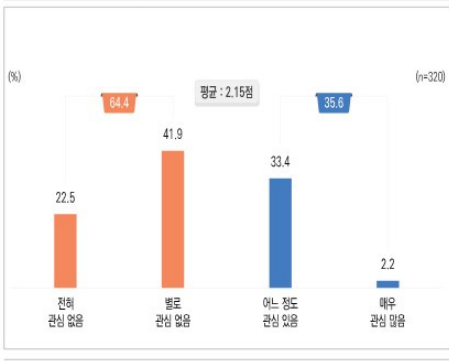
■ 응답자의 44.7%는 알고 있는 구리시 내 유망중소기업 없다고 응답

■ '1-2개' (29.1%), '3-4개' (19.4%), '5-9개' (6.6%) 등의 순으로 조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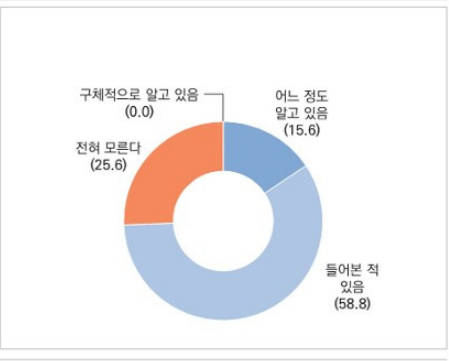
창업

창업에 대한 관심도



- 전체 응답자의 35.6%는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
-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 만25~29세,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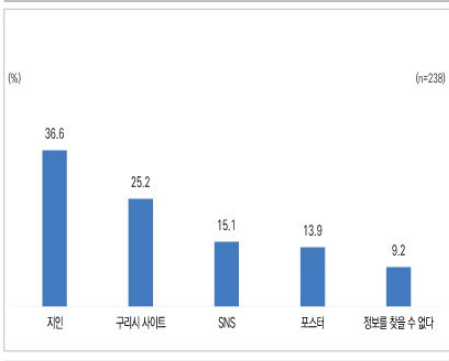
구리시 창업자원 인지도



- 구리시 창업지원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들어본 적 있음'이 58.8%로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은 15.6%,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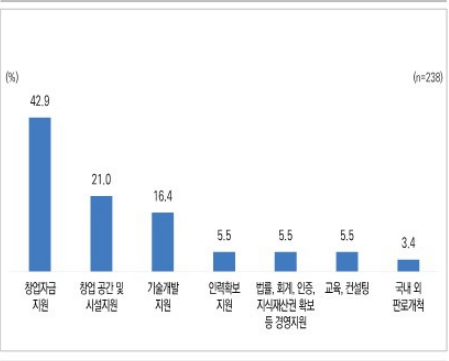
창업(계속)

창업 지원 정보 획득 경로



- '지인'이 36.6%로 가장 높았고, '구리시 사이트'(25.2%), 'SNS'(15.1%), '포스터'(1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은 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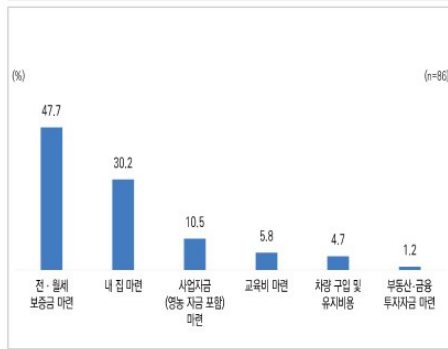
필요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 '창업자금 지원'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21.0%), '기술개발 지원'(16.4%) 등의 순으로 높음
- '창업자금 지원'은 만35~39세, 기혼자, 취업자, 독립 및 다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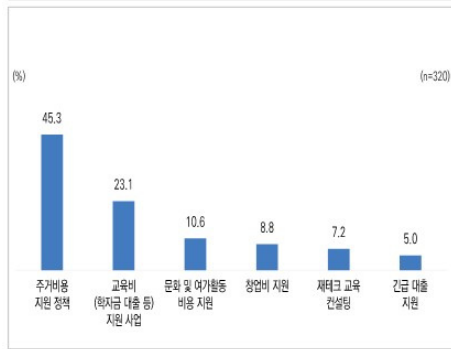
가계 및 경제

부채 발생 이유



- 부채의 주된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47.7%)과 '내 집 마련'(30.2%)로 주거비 관련 내용
- 다음으로 사업자금 마련, 교육비 마련, 차량구입 및 유지 비용 등의 순임

경제 관련 필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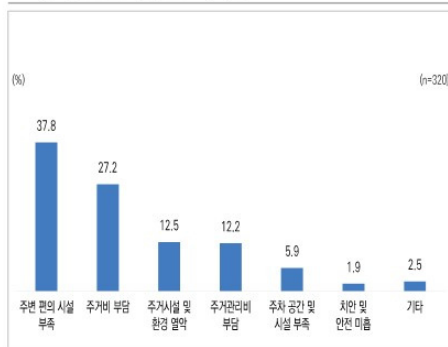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이 4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비 마련' 23.1%임
- '주거비용 지원 정책'은 만35~39세, 대졸자, 기혼자, 취업자, 독립 가구 및 1인 가구에서 높고, '교육비'는 만19~24세, 대학 재학생, 미혼,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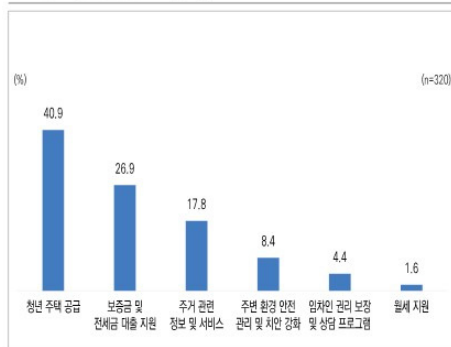
주거 및 교통

주거 관련 가장 큰 어려움



-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주변 편의 시설 부족'(37.8%)이 가장 높았고, '주거비 부담'(27.2%),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12.5%), '주거관리비 부담'(12.2%) 등의 순임
- '주변 편의 시설 부족'이라는 응답은 동구동 거주자, 주거시설 및 환경 열악은 교문1동 및 수택2동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주거 관련 필요 정책



-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청년 주택 공급'(40.9%) 선택했고, 다음으로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26.9%)임
- '청년 주택 공급'은 남성, 만25~29세, 미혼, 취업자, 비독립 가구에서 높았고,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은 만35~39세, 기혼자, 독립 가구 및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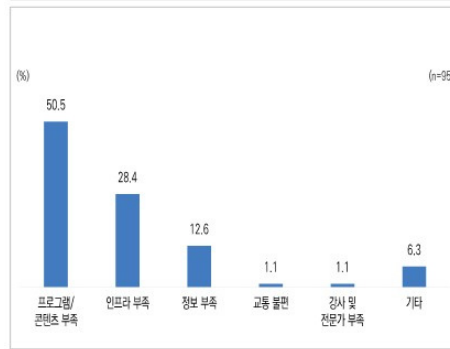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향유 지역



-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주로 즐기는 지역으로 10명 중 7명(70.3%)이 '구리시'라고 응답하였고, '서울시'(29.4%)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에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20대, 대학 재학생, 미혼, 미취업자에서 높았고, '구리시'라는 응답은 만35~39세, 기혼, 취업자인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리에서 문화/여가활동 하지 않는 이유



- 응답자 10명 중 5명이 '프로그램/콘텐츠 부족'(50.5%)을 꼽았고, '인프라 부족'(28.4%), '정보 부족'(12.6%)이 그 뒤를 이었음
- '프로그램/콘텐츠 부족'이라는 응답은 남성, 미혼, 미취업자에서 높았으며,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은 여성, 대졸 이상,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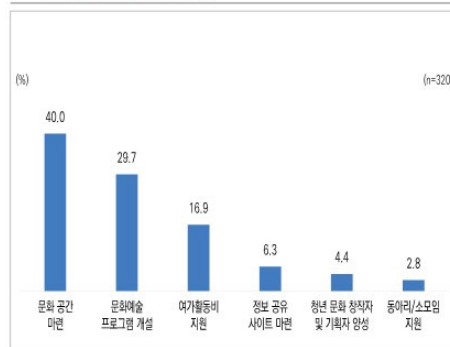
문화와 여가(계속)

구리시 전반적인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 '불만족'(52.2%)이 '만족'(47.8%)보다 4.4%p 높게 나타났음
-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교문2동, 수택3동 거주자, 미혼, 구리시 거주 25년 이상인 응답에서 높게 나타남

문화 관련 필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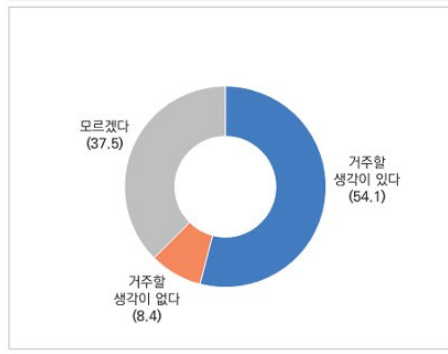


- '문화 공간 마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29.7%), '여가활동비 지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문화 공간 마련'의 경우 여성, 만30~34세, 대졸자, 기혼자, 아파트 거주자, 취업자인 응답자에서 높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의 경우에는 만25~29세,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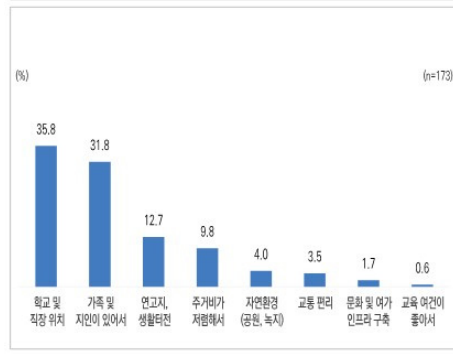
■ 사회적 관계 및 정주의식

▶ 3년 후 구리시 거주 의향



- 과반이 '거주할 생각이 있다'(54.1%)고 응답하였으며, '거주할 생각이 없다'는 8.4%로 응답
-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주택2동 거주자, 남성, 만35~39세, 기혼자에서 높았고, '거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만19~24세, 미혼인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구리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 '학교 및 직장 위치'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및 지인이 있어서'(31.8%), '연고지, 생활 터전'(12.7%) 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
- 계속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문화 및 여가 여건 미흡 > 일자리 부족 > 자녀 교육 여건 미흡의 순서로 나타남

39

■ 주관적 웰빙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정도를 물어본 결과, '받은'이라는 응답이 67.8%로 '받지 않음'(32.2%)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음
- 여성(62.3%)보다 남성(73.3%)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자(56.1%)보다 취업자(73.0%)에서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음

▶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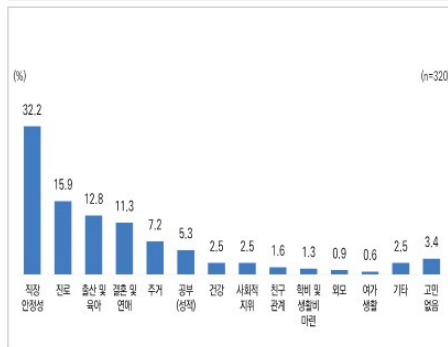


- 전반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8.4%이고, 기혼자, 만 35~39세, 다인 가구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93.4%), '건강 및 보건'(93.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환경 및 안전'(90.6%), '주거'(88.4%) 등이 뒤를 이었음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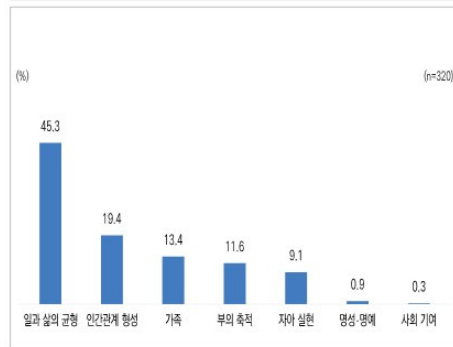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계속)

▶ 현재 가장 큰 고민



- '직장 안정성'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15.9%), '출산 및 육아'(12.8%), '결혼 및 연애'(11.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
- '직장 안정성'은 미혼자, 만25~29세에서 높고, '진로'는 남성, 만19~24세, 대학 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출산 및 육아'는 여성, 기혼자, 만35~3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 가장 우선시 하는 삶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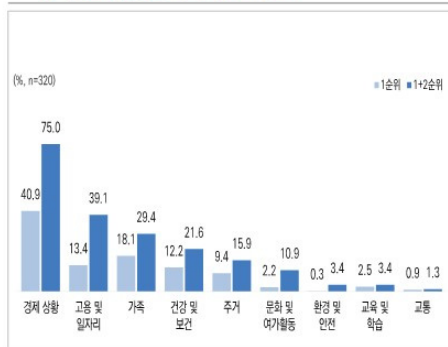


- '일과 삶의 균형'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 형성'(19.4%), '가족'(13.4%), '부의 축적'(11.6%), '자아 실현'(9.1%) 등이 뒤를 이었음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응답은 만30~34세, 미혼자, 비독립 가구에서 높았고,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응답은 남성, 만19~24세, 미혼자에서 높게 나타남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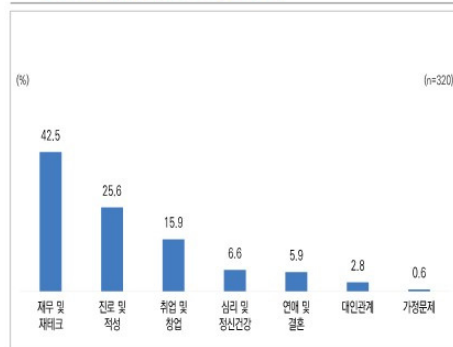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계속)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제 상황'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 및 일자리'(39.1%), '가족'(29.4%), '건강 및 보건'(21.6%), '주거'(15.9%)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
- '고용 및 일자리'는 남성, 미혼자, 비독립 가구에서, '가족'은 여성, 만35~39세, 기혼자,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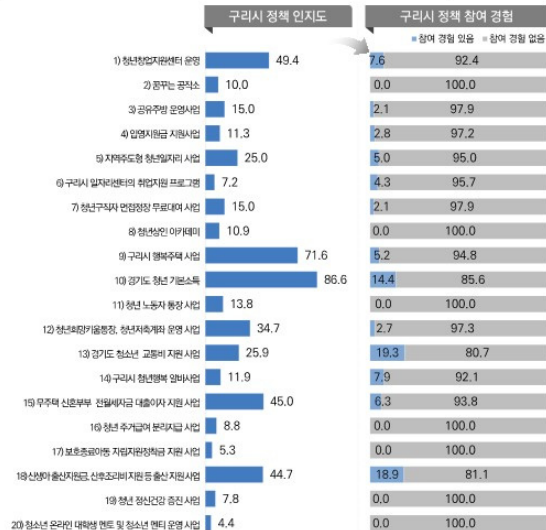


- 상담 주제로 '재무 및 재테크'가 42.5%로 가장 높았고, '진로 및 적성'(25.6%), '취업 및 창업'(15.9%), '심리 및 정신건강'(6.6%), '연애 및 결혼'(5.9%) 순으로 높게 나타
- '재무 및 재테크'는 남성, 만35~39세, 기혼자, 취업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진로 및 적성'은 만19~24세, 대학 재학, 미혼자, 미취업자에서 높게 응답

42

정책체감도

구리시 정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 구리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지원 정책 중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86.6%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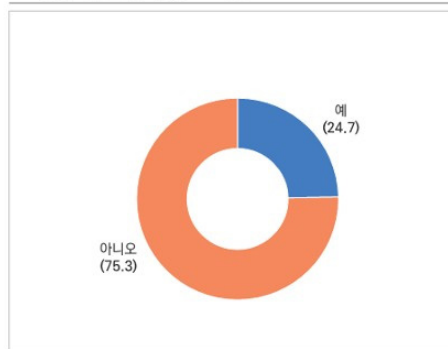
■ 이어서 '구리시 행복주택 사업(71.6%),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49.4%),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45.0%), '신생아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지원 사업'(44.7%), '청년희망기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운영 사업'(34.7%) 등의 순임

■ 참여 경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19.3%로 가장 높았고, '신생아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지원 사업'(18.9%),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14.4%) 등의 순으로 높음

43

정책체감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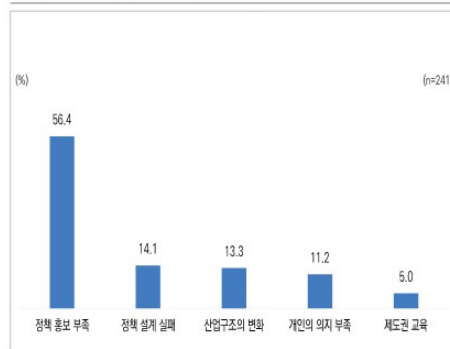
공공 청년 정책의 효과성



■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는 응답이 75.3%로 '예'(24.7%)보다 3배 이상 높게 응답

■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기혼자, 독립 및 다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청년정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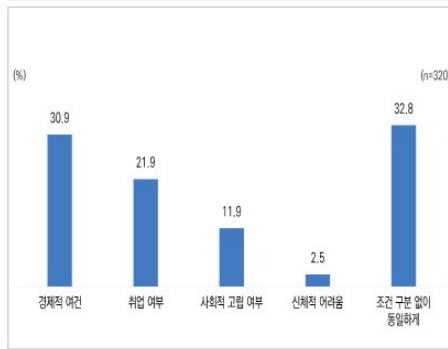
■ 응답자의 과반이 '정책 홍보 부족(56.4%)'을 꼽았고, 다음으로 '정책 설계 실패(14.1%), '산업구조의 변화'(13.3%), '개인의 의지 부족'(11.2%)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

■ '정책 홍보 부족'은 여성, 만19~24세,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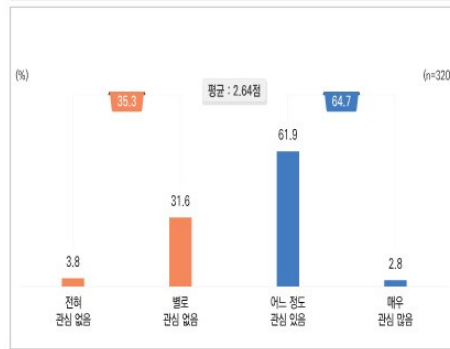
정책체감도(계속)

청년정책 대상 판별 기준



-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고, '경제적 여건'(30.9%), '취업 여부'(21.9%), '사회적 고립 여부'(11.9%) 등이 뒤를 이었음
- '조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청년 정책의 대상을 판별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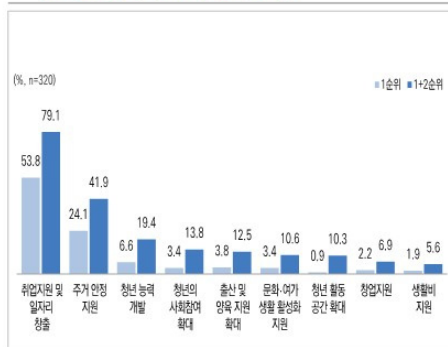


- '관심 있다'는 응답이 64.7%로 '관심 없다'(35.3%)보다 높았음
- 만25~29세, 미혼자, 비독립 및 다인 가구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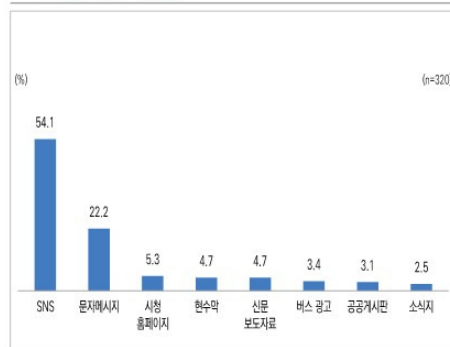
정책체감도(계속)

청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79.1%로 가장 높았고, '주거 안정 지원'(41.9%), '청년 능력 개발'(19.4%),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은 만19~24세, 미혼자, 미취업자, 비독립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음

효과적 홍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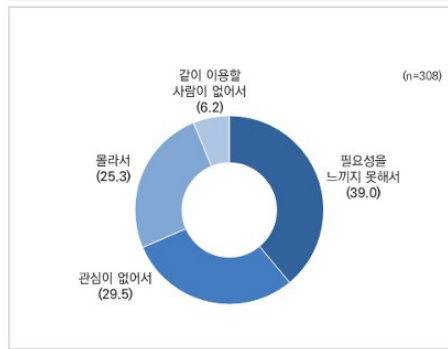


- 'SNS'가 54.1%로 가장 높았고, '문자메시지'(22.2%), '시장 홈페이지'(5.3%), '현수막'(4.7%), '신문 보도자료'(4.7%) 등의 순으로 높음
- 'SNS'는 여성, 만19~24세, 미혼자에서, '문자메시지'는 남성, 만35~39세, 기혼자,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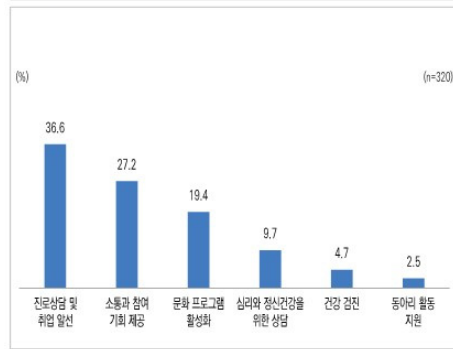
청년 공간

청년 공간 비이용 이유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9.0%로 가장 높았고, '관심이 없어서'(29.5%), '몰라서'(25.3%), '같이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6.2%) 등의 순임
-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여성, 만35~39세, 미취업자, 독립 및 다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청년 공간을 통해 받고 싶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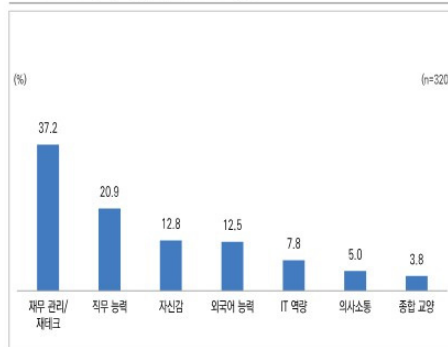


-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통과 참여 기회 제공'(27.2%),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19.4%),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9.7%) 등의 순임
-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은 남성, 만19~24세, 미혼, 일반주택 거주자, 미취업자, 비독립 가구에서 높음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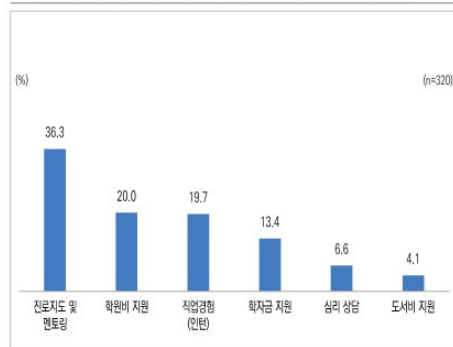
역량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 '재무 관리/재테크'가 37.2%로 가장 높았고, '직무 능력'(20.9%), '자신감'(12.8%), '외국어 능력'(12.5%), 'IT 역량'(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재무 관리/재테크'는 남성, 30대, 기혼자, 취업자에서 높았고, '자신감'은 여성, 만19~24세, 미취업자, 다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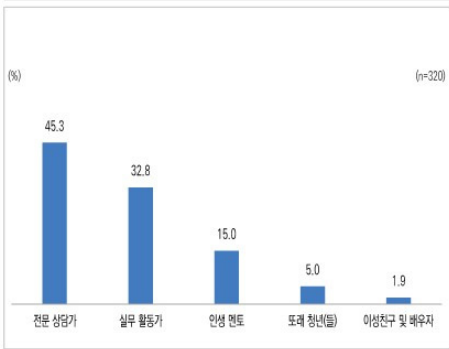


- '진로지도 및 멘토링'이 36.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원비 지원'(20.0%), '직업경험(인턴)'(19.7%), '학자금 지원'(1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진로지도 및 멘토링'은 여성, 만25~29세, 미혼자에서 높았고, '직업경험(인턴)'은 남성, 만35~39세, 기혼자,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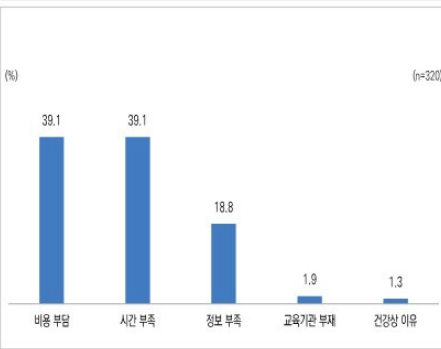
역량(계속)

발전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전문 상담가'가 45.3%로 가장 높았고, '실무 활동가'(32.8%), '인생 멘토'(15.0%), '또래 청년(들)'(5.0%), '이성친구 및 배우자'(1.9%) 등의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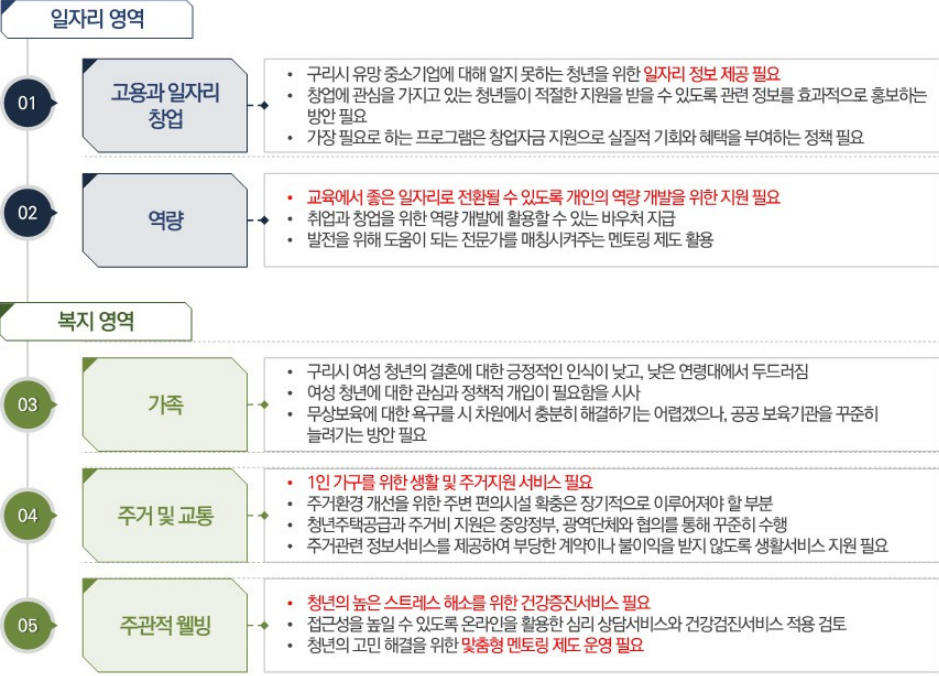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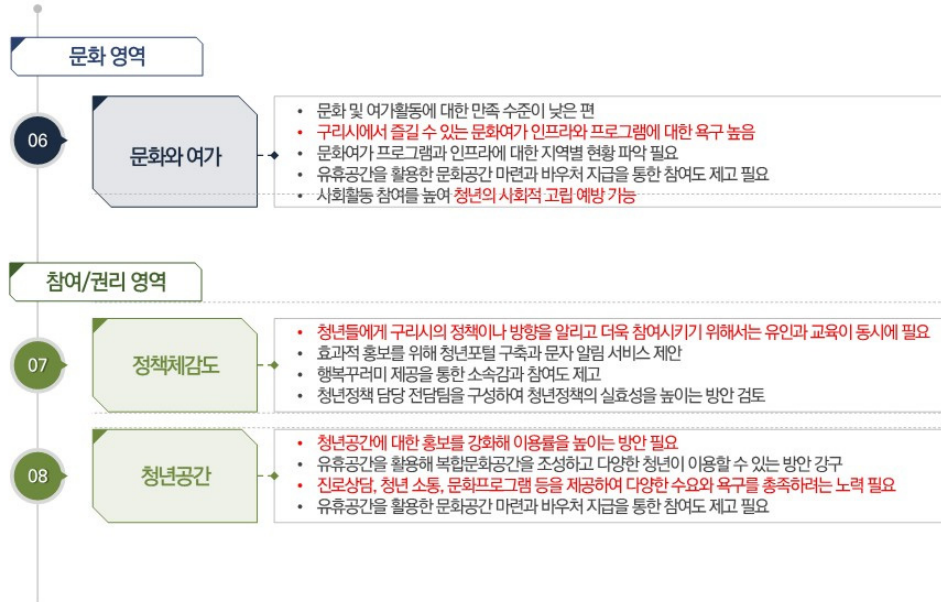
■ '비용 부담' 및 '시간 부족'이 각각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정보 부족'(18.8%), '교육기관 부재'(1.9%), '건강상 이유'(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혼 및 미취업자는 '비용 부담'으로, 기혼 및 취업자는 '시간 부족'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시사점 및 연계 방안



■ 시사점 및 연계 방안



51

5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V. 구리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추진전략 및 과제



53

전략 1. (일자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분야(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관내 타 분야 대비 비중,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열악한 산업구조를 지님
- 특히,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어서 관청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님
- 구리시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격차가 제일 큰 항목은 일자리 안정성임
- 한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 개인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창업 관련 지원을 늘려 고용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정책과제 1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정책과제 2

창업 지원 강화 및 공간 확충

정책과제 3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용-상담 연계 강화

54

전략 1-정책과제 1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
- 원하는 교육과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바우처 지급을 통해 원하는 교육이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취업 청년의 경우에도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활용

주요 내용

- 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
- 바우처 사용 가능 교육 프로그램은 **구리시 내 학원,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

전략 1-정책과제 2 창업 지원 강화 및 공간 확충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 및 자원을 연결 필요
-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 필요

주요 내용

- 지자체의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관련한 공간으로 청년에 지원
- 청년 멘티와 창업 멘토를 연결시켜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
-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청년이 취/창업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전략 1-정책과제 3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용-상담 연계 강화

배경 및 필요성

- 필요 고용 정책, '일자리 정보 제공(49.1%)',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16.3%)',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14.1%)' 순
-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진로탐색과 직업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의 인구 유지나 재정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주요 내용

- 전국 영역별 다양한 **지역 유망 기업 담당자와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진로 탐색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해당 기업의 분위기나 문화, 바라는 인재상, 업무 환경 등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시, 청년들을 매치시켜 인턴십 등을 지원

55

▶ 전략 2. (복지)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

- 구리시는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두고 있는 만큼 청년의 행복 보장과 삶의 질 증진은 중요한 목표
- 구리시 청년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며, 영역별 만족도도 대부분 낮은 수준
- 구리시 청년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03점으로 경기도 평균 6.31점에 비해 낮은 편이며, 31개 시군 중에는 28순위



56

전략 2-정책과제 1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 | | |
|----------|--|
| 배경 및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청년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 노력 필요 지역의 기초적인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청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건강 증진 사업, 심리적 건강증진 사업, 건강 관련 교육 사업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는 구리시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청년이 살기 좋은 구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전략 2-정책과제 2 청년 맞춤형 멘토링 제도 운영(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 | |
|----------|--|
| 배경 및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진로지도 및 멘토링(36.3%)' 발전을 위해 '전문 상담가', '실무 활동가', '인생 멘토' 등의 도움과 재무 및 재테크, 진로, 결혼 등 다분야 고민 상담, 조언 필요 대학생(멘토)-청소년(멘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부재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의 청년 멘토는 청년의 일상을 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멘토를 섭외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고, 동일한 목표와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주제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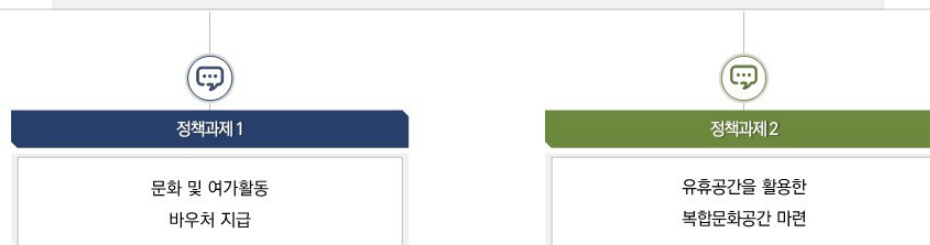
전략 2-정책과제 3 1인 가구 안정성 확대(안심주거지원 및 이사지원 서비스)

- | | |
|----------|--|
| 배경 및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고립 가능성이 증가하여 정서적/도구적 의존 대상이 보다 필요 1인 청년 비릇 밀약한 주거 여건에 처해있는 청년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수립 필요 1인 가구, 잦은 이사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사 관련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준비부터 실행까지 지원 필요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의 거주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 미달의 주거지에 안심주거 지원(도어락, 방범창 및 동네 CCTV, 방범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이사 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지원, 1톤 용달 화물 및 인건비 일부 지원 |

57

▶ 전략 3. (문화) 청년 문화 향유 확대

- 구리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음
- 특히 지역별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구리시 전반적으로 문화여가 관련한 프로그램과 인프라의 현황조사 및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함



58

전략 3- 정책과제 1 문화 및 여가활동 바우처 지급

배경 및 필요성

- 구리에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프로그램/콘텐츠 부족'
-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녔거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구리시 청년의 **문화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주요 내용

- 청년에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등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관내 **청년 예술인이 운영하는 문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 발굴을 위하여 관내 청년 예술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략 3-정책과제 2 유희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마련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 정책, '문화 공간 마련(40.0%)'
- 구리시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인프라 부족(28.4%)'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존 청년 관련 공간의 활용과 유희공간 발굴·활용한 공간 조성 필요**

주요 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활동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가능하도록 운영
-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이용
- 장기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리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례 : 제주지역 청년다락, 광명시 청년 복합문화 공간 청년동, 양평 청년공간 오름/양서면 청년공간 땀땀회관

59

▶ 전략 4. (참여/권리) 청년정책 실효성 및 참여도 제고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꾸준한 관심 필요
- 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상호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



60

전략 4- 정책과제 1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결과, 구리시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인지 부족에 대한 의견 구리시 청년 정책의 홍보 및 인지 부족으로 청년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필요 청년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또 빠르게 바뀌므로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포털 필요 청년 정책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과 신청 창구 통일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리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축 구리시 정책을 포함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청년 분야별 정책 정보 제공 및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구축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가칭) 구축 정책 사례 : 서울 청년 포털, 경기 청년 포털, 안양청년 광장

전략 4-정책과제 2 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정책알람 서비스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부족하여 청년정책 효과성 향상에 제약 청년들의 다양해지는 정책적 관심 및 복지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거주 청년들의 관심 분야와 지원 영역에 관한 데이터 구축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시 청년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기본 인적 자료를 데이터화 청년등록시스템 운영 : 구리시 청년DB(가칭)에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심 정책 분야를 설정 정책 알람 서비스 제공 : 청년DB에 등록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맞는 정책 정보를 문자 및 메일로 제공 정책사례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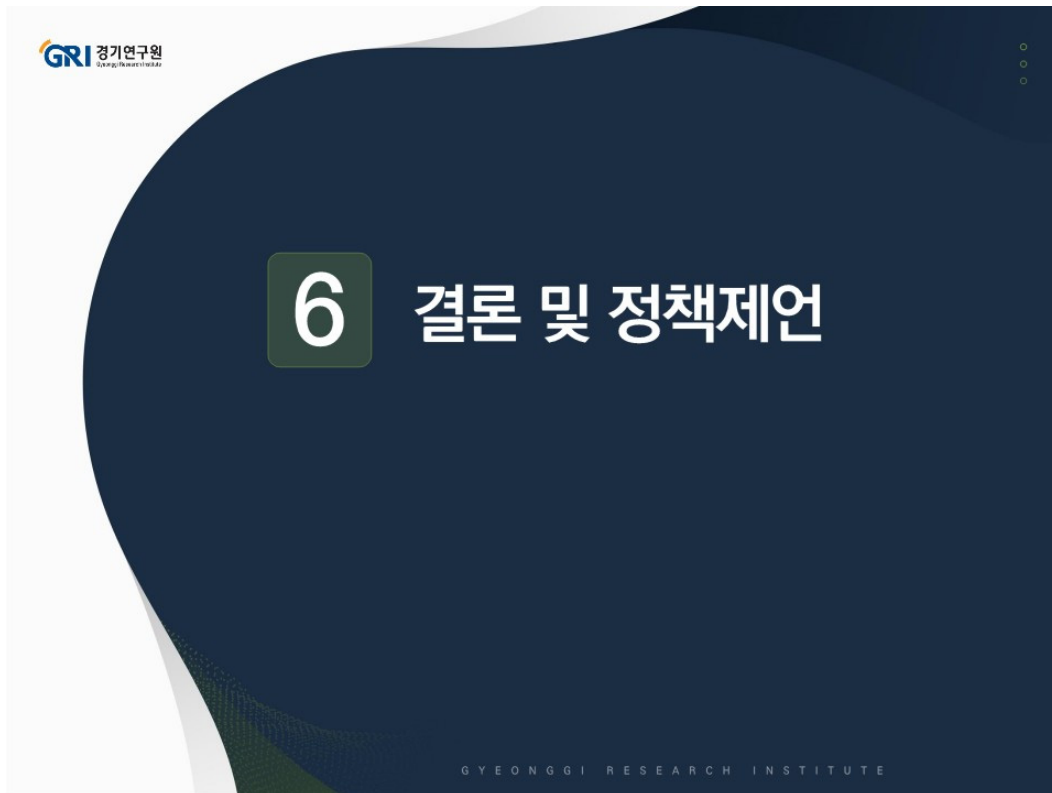
전략 4- 정책과제 3 청년 행복꾸러미 제공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정책 홍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구리시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들에게 정책 안내 책자와 필수물품이 담긴 행복꾸러미 제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39세 청년 중 청년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복꾸러미를 신청한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 안내 키트 및 유형별 생활용품 제공(예산에 맞춰 규모 조정 가능) 행복꾸러미 유형: 밀키트,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 중 직접 선택 정책 사례 : 부산청년행복박스, 서울 전입 청년 컴박스

전략 4-정책과제 4 청년 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청년사업단)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부재 여러 영역의 청년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주거·금융 등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정책 실행 어려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 단위 경계를 넘어서는 부서장 직속 '청년사업단'을 신설 현재 행복소통담당관 및 경제재정국 소속 일자리경제과, 복지문화국 소속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및 조정 사례 : 경기도 내 6개 시가 청년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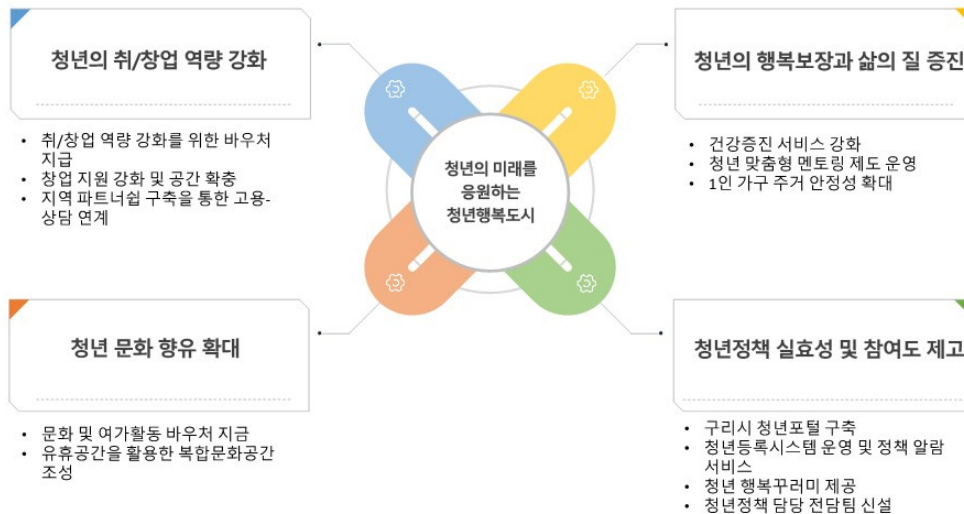


VI.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을 정책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
- 일자리와 고용 중심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리시 현황 분석'과 '구리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의견 다수
- 복지 영역에는 건강, 주거, 주관적 웰빙 등을 포함하여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존재
- 구리시 청년은 문화 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콘텐츠가 모두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과 개선 필요
-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위해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 결론



65

■ 정책 제언

- 정책과제는 자원 상황 및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적용 필요**
 - 중요도, 시급성, 차별성, 파급 효과 등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 '구리시 청년포털 구축', '청년정책 담당 전담팀 신설',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 '1인 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집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 청년사업단 신설과 홈페이지 구축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필요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등은 다른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
-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역 내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청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고, 청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활동들을 발굴 지원하는 방식이나 지역 내 시민단체의 청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

66

정책 제언

-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정책과제 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청년정책 관련 **지표 측정 및 관리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 필요**
 - 지표화가 가능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청년정책의 전략과 정책과제에서 적절한 몇 가지를 뽑아서 지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방향 필요
 - 성과지표는 청년의 수요와 욕구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이 연구는 구리시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조사'와 '구리시 청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구리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리시 청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거주지역(동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수요와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7

